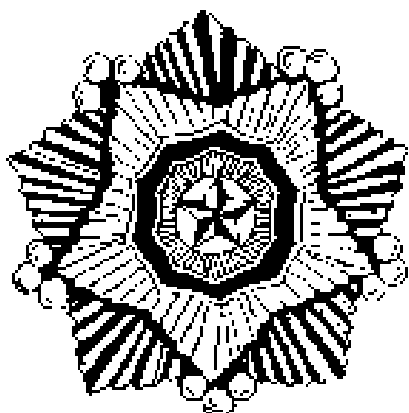


3

주체 91(200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1(2002)년 제3호

(루계 제 653 호)

◆◆◆◆◆ 차 례 ◆◆◆◆◆

4 대제일주의는 선군혁명문학의 영원한 표대	4
봄이 온다	6
명언해설	7
오, 한훤의 미시가루여	7
력사의 새벽길에 메아리친 총대서정	8
우리 장군님모습	10
생활의 깊이에서 울려 나오는 선군시대의 서정	11
땅과 총.....	16
고임돌	17
바다가에서	25
제것이 있어야 노래를 남긴다	26
라남, 그 이름 불러 보면	29
녀인의 노래	30
엄마의 속삭임	30
어머니의 흰 머리를 빗어 드리며	31
유산에 대한 생각.....	32

어머니의 흰 머리수건	33
군복입은 사람들	34
이 땅이 나를 안다.....	43
백명의 나와 함께	44
고운 별	45
바이론, 조지 고든.....	56
아름다운 신천리	57
소설의 원형들과 나눈 이야기	59
《별무리》 흐르는 곳.....	62
아이들이 소곤댄다.....	70
종자의 탐구와 성격형상	71
《친구》 부자.....	76
고향의 밤에 내 읊는 첫시를.....	78
붓과 인생 (외 1 편).....	79
내 삶의 푸르른 하늘에	80

4 대제일주의는 선군혁명문학의 영원한 표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꽃 피나는 21세기 두번째 해를 맞으며 당의 진격명령이 내려졌다. 새해 주체91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의 해, 강성대국건설의 비약의 해이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서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며 선군혁명문학창조의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불 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작가들이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선군혁명문학의 영원한 표대로 하여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한다.

수령이 탁월하고 사상이 위대하며 군대가 위력하고 제도가 우월하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4대제일주의는 주체의 숭결로 약동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며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이며 우리 문학의 기본문제성이고 시대정신이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작품마다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재생과 통성을 가져다준 생명수이며 우리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강의성, 높은 창조적위력의 근본원천이다. 우리는 문학형상을 통하여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가 제일이며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이 제일이라는 순결한 마음이 자자손손 우리 인민의 뱃으로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있어 놓아도 매달아 놓아도 수령만세를 부르고 절해고도에서도 수령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지키는 2000년대의 《ㄷ. ㄷ》 열혈투사가 되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우리는 문학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함으로써 수령님탄생 90돐을 계기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 인민적감정이 온 사회에 짙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이 천리혜안의 예지와 오랜 정치경력, 비상히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계시는 특출한 정치실력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형상을 더욱 훌륭하게 창조하는것은 최대의 영예이고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가장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문학의 모든 형태

들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다채롭게 창조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는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며 장군님과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말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와 높은 실적으로 장군님을 받드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가지고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도 **김정일** 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를 창작에 구현함에 있어서 그 형상수준을 최상의 경지로 올려 세우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초미의 과제로 내세우고 해결하여야 할 가장 절박한 현실적요구이다. 우리는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무게 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 가장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감동 깊게 펼쳐 주지 못하여 작품의 인간학적품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 등 아직도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남아 있는 부족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높이에 올라 서야 한다.

우리 문학은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문학작품마다에 주체사상의 불패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맥박치게 하여야 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 나가려는 드팀 없는 의지가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천하지대 본으로 튼튼히 틀어 쥐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준엄한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누구나 다 제 힘으로 일떠서며 우리의 로선, 우리의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말고 싸워 나가도록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또한 문학작품을 통하여 언어와 풍습, 생활양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철저히 살리고 우리의것을 적극 내세우도록 형상의 요소들을 이끌어나가는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자기 민족의 리익을 건결히 옹호하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열렬한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자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이다.

우리 선군혁명문학은 우리 군대제일주의사상을 깊이 있는 형상으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총대로 승리하여 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불패의 군력에 의하여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표대이다. 우리는 모든 문학작품마다에서 총대는 곧 국력이며 민족적자주권이라는 혁명의 진리가 박력 있는 형상으로 기운차게 울려 나오게 하여야 한다. 더우기 건군 70돐을 맞는 올해를 백두령장의 손길아래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승리자의 열병의 해로 빛나도록 하는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을 적극 창작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혁명의 수뇌부 제1선 대오,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급적원수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사랑과 증오의 심장을 지닌 인민군군인들의 형상과 함께 우리 인민들이 발휘하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과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생활화, 체질화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적성격들을 적극 창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리하여 뜻 깊은 올해에 문학작품마다에서 웅군애민사상 만세소리가 감동 깊은 형상으로 우렁차게 울려 나오게 하여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문학작품을 사상에 술적으로 더욱 훌륭하게 창작함으로써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제도제일주의에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가려는 애국의 열정이 차넘치고 있다는것을 강한 문제성으로 체현시키는것이다. 특히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기 위하여 아글다글 애쓰는 시대의 전형적성격들을 다양하게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형상에 구현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변화된 환경과 우리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모든 사색과 열정과 헌신적 노력을 다 기울이는 새로운 성격을 적극 창조하는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일군들, 당의 인재중시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실력 있는 첨단과학기술인재들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4대제일주의는 우리 문학이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찬란한 현실을 꽃피우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며 그 감화력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힘있게 고무하는 기치이며 표대이다.

우리는 4대제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더욱 높이고 혁명투쟁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은 현실을 반영만 할것이 아니라 생활의 선도자, 혁명의 나팔수가 되어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 격려하는 작가들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우리의 문학작품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불씨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의 영원한 표대인 4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제문학운동, 선군혁명문학운동을 활기있게 적극 벌려 나가야 한다.

선군혁명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근본추동력은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의 열화같은 수령숭배심,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에 있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순결한 혁명적량심과 도덕의리심으로 심장을 불 태우며 4대제일주의를 문학형상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는 것이다. 모든 창작단위들에서는 4대제일주의를 구현한 명작창작으로 선군혁명문학운동을 세차게 벌려 나가는 충성의 창작적열풍을 드세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4대제일주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명작창작전투에 떨쳐 나선 영원한 동행자, 작가대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사상과 감정, 운명을 함께 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겠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꼭 차넘쳐야 한다. 지난해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장군님께 충성의 명작창작선물을 드리기 위하여 창작실로 침실을 옮기고 밤을 지새며 탐구와 사색을 다하던 훌륭한 창작기풍이 올해의 민족최대의 명절들을 명작풍년으로 뜻 깊게 장식하기 위한 창작투쟁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4대제일주의를 문학작품에 구현하기 위한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작가들이 1950년대 준엄한 전쟁의 포화도 뚫고 불 타는 강도 건느면서 포탄이 작열하는 전호가에서 결전의 시가들을 창작하던 중군작가들의 전투적인 창작기풍을 따라 배우는것이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피 주신 라남의 봉화가 창작전투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야 하며 모든 창작부문에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 용암처럼 끓어 번지게 하여야 한다. 하여 라남의 로동계급처럼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를 지니고 당이 준 창작과제를 결사관철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창작실천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고 결사옹위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높이에서 창작사업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참신하고 드세차게 전개해 나가는것은 4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과 일군들은 새로운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문학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세계제일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지난 날의 사고관점과 낡은 틀, 고정격식화된 형상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 나 시대와 현실을 혁신적인 미학적안목에서 보고 대담하고 기발하게 착상하고 새롭고 참신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선군혁명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창작지도일군들의 일본새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창작지도일군들은 4대제일주의를 창작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운전대를 틀어 쥔 지휘성원들이다. 창작의 성과여부는 중요하게 창작지도일군들에게 달려 있다. 작가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충천하는 기세에 창작지도일군들의 높은 혁명성과 책임성, 조직력이 안받침될 때 창작의 빛나는 봉우리를 점령할수 있다. 우리 창작지도일군들은 강한 조직력, 집행력을 지닌 손탁이 센 창작지도일군, 기발하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작전하며 통이 크게 창작투를 벌려 나가는 참된 일군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군혁명문학운동의 척후에 선 우리 시대 창작일군의 참된 모습이다.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이여, 4대제일주의를 형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문학운동은 우리가 것처럼 바라던 락원의 행군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뻗어 있는 승리의 길이다. 걸출한 정치실력가이시며 회세의 령장이시고 위대한 스승이시고 문학의 영재이신 장군님의 락월하고 정력적인 령도와 비범한 예지가 우리 작가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풀죽을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도 당과 수령을 옹호하는 쇠소리나는 작품을 광광 썬내 동행자의 대오, 령도자의 작가대오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창작적임무를 빛나게 실천해 내고야 말것이다.

모두다 당이 제시한 4대제일주의를 희망의 표대로 삼고 열정을 끓이고 사색을 불 태우며 깨끗한 작가적량심의 필봉을 더욱 억세게 틀어 쥐고 형상의 높은 봉우리에 자랑차게 오르자.

봄이 온다

김충기

들 가득
전변의 노래가 끝없이 울리는
연백벌!
이 땅에 봄이 온다

굽혔던 허리 펴고 바라보면
여기 저기 새로 정리한 논배미마다
더운 김 피워 울리는 두엄무지들
곧추 뻗은 논길을 따라 걸으면
물씬물씬 풍겨 오는 잘 익은 거름내...

파릇파릇 밀보리 잎새 처든
어느 논머리 어느 밭머리에 서도
내 가슴은 봄빛으로 푸르려 지고
종자감자 알알이 고르는 처녀의 노래소리에서도
나는 기쁘게 느껴 안는다
다가온 봄의 숨결, 봄의 체취를

이해의 이 봄은 사랑의 새봄
이야기해 다오 벌이어
우리 장군님 찬바람을 헤치시며
해빛 안고 오시던 그날에
이 땅의 봄은 벌써 태동하지 않았더냐

장군님 또다시 보내주신
멋쟁이 프락프르들이
연안벌 어사벌에 첫 발동을 울리고
차판 가득 흰 비료가 실려 오던 그날에
이 땅의 봄은 오고 있었거니

봄이 온다
해빛 눈 부신 산기슭의 집들에도
뜰안에 새로 심은 과일나무가지들에도
정리한 포전마다 거름도 곱절 소출도 곱절낼
일욕심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도

우리 장군님 찬눈길 헤치시며
행복의 터전을 다지고 가꿔 오신
로고의 그 자옥에 실려 온 봄이어
오래동안 무르익혀 오신 강성대국구상이
눈앞에 꽃 피나는 봄이어

아, 들 가득 하늘 가득
고마움의 노래 끝 없는
천리 연백벌에 봄이 온다
무릉도원 꽃 피나는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강성대국건설의 비약의 새봄이 온다

명언해설

《진실한 생활속에 문학이 있고 예술이 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명언에는 진실한 생활속에서만 훌륭한 문학예술이 창조될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생활이 있고야 문학예술이 있다. 생활이 없으면 문학예술도 있을수 없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린 문

학예술작품만이 참다운 문학예술로 될수 있다. 진실로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 준다. 문학예술은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 때에만 영원한 생명력과 가치를 가진다.

오, 한흙의 미시가루여

곽명철

정녕 나눌것을 나누었던가

오늘도 불러 가슴 뜨거운

그날의 한흙의 미시가루여

한사람의 몫으로도 성차지 않을

그 한흙의 미시가루가

그날에 열, 스무사람에게 나뉘어 지고

세월 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나뉘어 지고

다 몰랐더라

우리 수령님 헤치신 고난의 행군길을

교과서에서만 읽던

철 없던 그 시절엔

우등불가에서 나뉘어 진 그 한흙의 미시가루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것이었던지

날마다 어머니

쌀독에서 인심 후히 쌀을 퍼담을 때에도

생각조차 해보려 하지 않았더라

한흙이 과연 얼마나 되는것인지

허나 내 자라

혁명의 대하속에 이 몸을 잠그고 보니

한흙이 그 한흙이

참으로 이 가슴에 무거웁게 얹어 지는것은

아, 천섬 만섬의 식량을 지고도

가내기 어려운 피어린 고난의 그 행군길을

우리 수령님 나누어 주신

그 한흙의 미시가루가

끝끝내 승리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였으니

가슴 뜨거워라

내 지금

수령님 한흙의 미시가루를 나누어 주시던

못 잊을 그날의 우등불가에

그 몇번째로 다가서고 있는가

아 정녕 수량으로만 잴수 없는

이 한흙은

영원불멸할

우리 혁명전통의 그 무한한 무게를 안고

세대를 부르고 있나니

한흙의 미시가루는

오늘도 나뉘어 진다

세대와 세대의 가슴마다

끝없이 나뉘어 지며

오, 한흙은

천만을 투사로 자래우고 있어라

역사의 새벽길에 메아리친 총대서정

-김형직선생님의 반일혁명시가를 새겨 보며-

리동수

세월은 멀리도 흘러 왔다. 허나 명작이 남긴 여운은 세월의 끝을 모른다. 1910년대의 언덕에서 조국해방의 러명을 부르며 짓밟힌 강토우에 재생의 숨결을 부어 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반일혁명시가는 일제의 아성에 죽음을 선포한 투철한 반제혁명기백과 피 끓는 반제격멸의 격조로 하여 오늘날 선군시대의 총대서정속에 메아리치고 있다.

시가의 가치는 시기성과 항구성에 있다. 당대의 시대상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시대를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서의 사명을 다할뿐아니라 시대와 세월을 넘어 먼 후날에도 항구적의의를 가지고 사람들의 기억속에 되새겨 지는 그런 시가야말로 창점을 대신하는 참다운 보검이 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점을 대신할수 있다.》

반일항전의 도화선에 혁명의 노래를 점화시켜 동포들의 가슴속에 해방전의 세찬 불길을 지펴 올린 선생님의 혁명시가는 혁명성과 전투성, 강렬한 호소성으로 하여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 잡았으며 혁명은 노래로 시작되어 노래로 승리를 이룩해 나간다는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 주었다.

선생님의 혁명시가는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가 되어 감옥으로 뒤덮인 어두운 강토우에 번개처럼 빛발치며 번뜩이였으며 강렬한 불꽃이 되고 불길이 되어 수천만 심장에 타래쳐 갔다. 바로 그 빛발, 그 불길의 여운이 오늘까지도 우리를 심장을 뜨겁게 덥혀 주는것은 그 노래속에 백두의 총대정신, 선군철학의 심오한 정서가 노을처럼 붉게 비껴 있기때문이다.

높이 솟은 철봉산아
물결 푸른 압록강아
청산류수 바라보니
절승경개 예로구나

설음 안고 떠나간 이
큰 뜻 품고 돌아 왔네
철봉산아 울려 다오

독립군의 총소리를

(시 《철봉산》)

수려한 강산, 아름다운 절승경개로 이름난 내 나라 산천에 대한 궁지와 자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안겨 오는가. 철봉산을 감돌아 흘러 흐르는 물결푸른 압록강, 맑고 청신한 물결을 따라 련련히 펼쳐진 산과 계곡, 어디를 보나 절경인 아름다운 조국강산은 선조들의 무덤이 있고 대를 이어 가며 용맹과 슬기와 미덕을 꽃 피우며 복락하던 3천리강토였다. 그러던 이 땅이 악착한 일제강도놈들의 발굽밑에 짓밟혀 눈물에 잠기였고 설음과 분노가 겹쳐 복수의 걱정을 몰아 온다. 그것은 마침내 원수를 징벌하는 장엄한 총성으로 터져 오른다.

항일구국항전의 《큰 뜻》 품고 용약 투쟁의 길을 떠나간 이 얼마였으며 그 길에서 피 흘리며 원한 품고 쓰러진 이 얼마였더냐. 해방전 독립전의 총소리 높이 울리자 철봉산에 호소하는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은 보복의 걱정으로 터질듯 하다. 바로 그것이다.

그 걱정은 우리의 가슴속에 파도쳐 와 제국주의 원수놈들을 이 땅에서 소멸할 때까지 끝까지 혁명을 해야 한다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게 한다.

투철한 반일애국정신, 반제혁명기백은 시 《통군정의 노래》, 《짓밟힌 동포야 일어 나거라》에서 더욱 힘있게 고조된다.

백두산정기 품고 흘러 2천리
배노래 구룡포에 처량하구나
전립을 옆에 끼고 백마산 보니
의주라 통군정은 희망을 주네

압록강 푸른 물에 붉은 피 흘러
현해탄 흡혈귀들을 진멸하자고
삼각산마루에서 맹세 다지니
의주라 통군정은 싸움터로다

백일원 넓은 뜰에 군사를 길러
물 건너 압제자들 구축하고서
무산자 새 사회를 건설하리라
의주라 통군정은 개선각이다

(시 《통군정의 노래》)

서슬 푸른 기상으로 시를 읊으시며 애국청년들의 가슴속에 멸적의 정신을 심어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오늘도 눈앞에 선히 안겨 온다. 선생님께서는 《백일원》이란 봉건때 조선군대의 훈련장으로서 백날동안 군대를 양성하다가 일단 유사시 하루를 써먹는다는 뜻에서 지어 진 루대이름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저 훈련장이 잡초 무성한 폐허로 되었지만 앞으로 일제를 몰아 내고 또다시 우리의 군대가 저 《백일원》에서 보무당당하게 훈련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격동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일제의 발굽밑에 강토는 짓밟혔어도 전립(전투모)을 옆에 끼고 백마강을 바라보는 서정적주인공은 지난 날 원썩격멸의 정신이 내려치던 통군정의 기개에서 희망과 용기와 신심을 가슴속에 가다듬는다. 압록강 푸른 물을 붉은 피로 물 들이며 나라를 찾기 위한 성스런 싸움에 한몸 바쳐 나선 애국선열들의 불 타는 구국정신이 내려치던 통군정은 일제를 격멸할 무적의 의지를 키워 가던곳이었다.

무장한 일제는 무장으로 때려 부셔야 하며 간악한 왜적을 물리친 강토우에 무산대중의 새 사회를 세우고야 말리라는 결사의 해방의지를 피력한 시가의 정서적바탕엔 오늘을 멀리 내다보고 목숨이 진할 때까지 사생결단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견결한 투쟁정신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다.

신음하는 거래의 가슴에 불을 지피 준 시 《짓밟힌 동포야 일어 나거라》는 읊을수록 멸적의 전투정신을 불러 일으키면서 일제침략자들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썩이며 놈들과는 피를 물고서라로 기어이 싸워 이겨야 한다는 필사의 결의를 다지게 한다.

...

굶주리는 민중아 슬퍼 말아라
짓밟힌 동포야 일어 나거라
판가리 싸움에 이 몸 바치니
사나이 총검이 분노에 운다

무도한 왜적들을 쳐물리치고
동주성 완월루에 다시 올라서
목청껏 독립만세 높이 부르자
무산민중 새 사회 세워 나가자

분노에 우는 총검을 높이 들고 판가리 싸움에 나설것을 격조높이 호소한 이 시가의 시줄마다에는 반일항전의 열정과 기백이 세차게 맥박치고 있으며 반제혁명의 격조가 뜨겁게 고동치고 있다.

시가는 혁명의 무장을 튼튼히 틀어 쥐고 일본제국주의 무도한 원수들을 때려 눕힌 승리의 기개드높이 독립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떨치자고 웨치는 서정적주인공의 랑만적인 호소와 불 타는 결의를 격동에 넘쳐 노래하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시가는 우리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강도 일제와 견결히 맞서 싸워 기어이 조국해방의 대업을 이룩할데 대한 철저한 반일애국사상과 반제혁명정신을 사상정서적내용으로 관통시키고 있다. 하여 선생님의 시가작품들은 오늘도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붉은 기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면서 선군시대의 총대정신, 총대서정을 가슴속 깊이 심어 주고 있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시가가 오늘도 선군시대의 총대서정, 총대정신으로 사람들을 고무하는 항구적사명을 다하고 있는것은 또한 제국주의자들과는 끝까지 싸워 기어이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철의 신념을 지닌 반일혁명투사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기때문이다.

오직 투쟁으로 혁명을 시작하고 투쟁으로 혁명을 전진시키며 투쟁으로 혁명을 완성하려는 철석의 의지로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려는 반일혁명정신의 체현자-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은 제국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씨도 없이 소멸하려는 오늘 우리 인민의 총대의지를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선생님의 혁명시가는 혁명의 험난한 시련의 길을 전두에서 헤치며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무산민중을 해방전으로 고무하던 직업적인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광풍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 쳐 와도 한몸바쳐 해방의 큰 뜻을 이룩하시려는 선생님의 결사의 맹세가 뜨겁게 굽이치고 있다. 시에 형상되고 있는 푸른 소나무는 암흑으로 뒤덮인 조국강토우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 오기 위해 천신만고를 무릅쓰고 불사신처럼 싸우는 서정적주인공으로 형상되고 있다. 서정적주인공은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순간을 살아도 해방전에 몸바쳐 싸웠다고 뭇뻗이 말할수 있도록 값 있게 사는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여기는 참된 인생관의 소유자로 그려지고 있다. 나라의 독립을 못하여 식민지노예로 살바에는 차라리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는 혁명가의 내적체험세계야말로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제국주의자들과의 결전에서 시련과 난관을 두렵워 말고 오직 앞으로만 돌진해야 한다는 혁명적진격의 정신을 호소한 《전진가》의 서정적주인공의 정신세계에서 우리는 또한 고난도 슬픔도 박차고 더 높이, 더 빨리 날으려는 선군시대 주인공들의 열정에 넘친 량만적모습을 그려 보게 된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최후결전에서 어떤 엄혹한 시련이 닥친다 해도 결사의 의지로 고난을 맞받아 대담하게 전진하는 전투적돌진의 기백을 지닌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청년영웅들과 인민들에게 큰 힘과 용맹을 안겨 주고 있다.

...

청년들이 가는 앞길 태산과 같이 험하다
고생함을 락심 말고 나아갈 때에
청년들이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용진용진 나아가세 문명부강케

이렇듯 《전진가》의 거세찬 박동과 강렬한 호소는 시대와 세월을 넘어 우리의 추억속에 력력히 살아 고동치고 있다.

시 《깃발힌 동포야 일어 나가라》, 《철봉산》에 형상된 서정적주인공의 모습 또한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불 타는 적개심과 견결한 투쟁정신을 지닌 열렬한 반일혁명투사로서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원수들의 무분별한 책동을 파감히 짓부시고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간악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총검밑에 신음하는 동포들의 비극적처지에 대한 심각한 체험으로부터 기어 이 도탄속에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는 혁명적자각과 의무감을 간직하고 무도한 왜적들을 쳐물리치

고 해방의 새날을 안겨 주려는 불 같은 결의에 충만한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격동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시가는 일제통치의 엄혹한 시기 삼천리강토가 철쇄에 묶여 신음하고 억압과 폭거의 검은 구름이 뒤덮여 온 나라가 감옥으로 되어 버린 시련의 시기 쓰러진 동료들을 감싸 안아 반일항전으로 힘차게 불러 일으킨 투쟁의 무기, 창검을 대신하는 멸적의 기치였다.

꺼져 가던 등불에 열을 주고 활력을 주고 생명을 부어 준 선생님의 시가야말로 겨레의 눈을 틔워 주고 참된 삶의 가치와 투쟁의 진리를 일깨워준 필승의 보검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근 한세기전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의 노래로 강도 일제와 싸움을 선포한 제국주의원수놈들은 이 땅에 침략의 검은 발자국을 찍으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략탈과 전쟁의 불길을 시시각각 몰아 오고 있다.

그렇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혁명을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놈들이 이 땅에 남아 있는 한 평온은 깃들수 없다.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총대우에 승리가 있다.

선군시대의 하늘아래 메아리치고 있는 선생님의 혁명시가, 멸적의 노래는 오늘날 우리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덥혀 주며 제국주의원수들과의 판가리 격전으로 힘차게 부르고 있다.

오늘의 선군시대에 메아리치는 반제혁명의 노래여, 제국주의 마지막숨통을 조일 그날까지 이 땅 하늘끝까지 높이높이 울려 가라.

가사

우리 장군님모습

차명숙

언제나 우러르면 태양과 같이
사랑에 불 타시는 모습입니다
그 품에 매혹되는 천만의 녀이
민족의 어버이로 따르웁니다
아, 천세만세 모셔 갈 우리 장군님

이 나라 온 겨레의 모든 운명을
한품에 안고 계신 모습입니다
민족이 누리여 갈 세상만복이

그이의 미소에서 꽃 피납니다
아 천세만세 모셔 갈 우리 장군님

삼천리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이
찬란히 비껴 있는 모습입니다
통일될 강성대국 천년미래가
그이의 손길아래 펼쳐 집니다
아 천세만세 모셔 갈 우리 장군님

생활의 깊이에서 울려 나오는 선군시대의 서정

김일수

우리의 선군시문학은 새 세기 첫해인 지난해 하반년도에도 또 한걸음 크게 전진하였다.

나날이 더 크게 파시되는 선군의 위력과 거대한 의의를 보여 주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폭 넓게 노래되고 그 서정적형상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다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새 세기의 풍격에 어울리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선군서정, 생활적이며 진실한 선군서정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 하나의 지향과 목표를 안고 기울여 진 사색과 탐구의 열정이 매 시들에 력력히 비껴 있다.

이 시들은 그 하루하루가 엮여 저 그대로 선군의 영웅사시이고 강성대국의 대교향곡인 우리의 날과 달들에 비끼여 흐르는 투쟁과 생활의 숨결이며 그 세찬 맥박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이라는 격동적인 사변으로 하여 세계가 21세기 태양의 열풍으로 뜨거웠던 여름의 날들을 이어 오늘도 그칠새 없이 울리는 청송과 흙모의 시가들이며 온 한해 쉽없이 전선길을 걸으시는 장군님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더듬고 있는 시들이 그것을 말해 준다.

라남의 봉화가 타오른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강성대국의 봄소식을 전하며 날로 변모되는 내 조국의 새 모습을 노래한 시들이며 통일열기로 한껏 달아 올랐던 여름의 금강산을 화폭에 담은 시들이 또한 그것을 보여 준다.

정녕 시를 통해 본 우리의 날과 달들에 얼마나 거창한 선군의 력사가 흘렀고 그 력사의 흐름우에 또 얼마나 힘 있는 선군서정이 굽이치고 있는것인가.

우리는 《기다림속에 그리움속에》(김석주 《조선문학》 10호), 《내 가슴에 새겨진 20여일》(오필천 《조선문학》 11호)을 비롯한 여러 시들을 읽으면서 온 세상에 선군자주의 폭풍을 일구어나가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의 위인상이야말로 무한한 시적흥분과 걱정의 원천이라는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

조국에 두고 오신 일 많고
늘 마음속에 안고 계신
그 인민이 그리워

불원천리 더 빨리 하신 걸음
하루길에 천리 몇천리

...

떠나신 날이 기다린 날이었습시다
떠나신 그 순간이 기다림의 시작이었습시다
간절한 기다림
행복의 기다림
아, 오셨습시다 우리 아버지
기다림속에 장군님 오셨습시다

-시 《기다림속에 그리움속에》에서-

세계가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의 마음속에 언제나 인민이 있고 어버이에게로 향하는 간절한 그리움, 기다림이 그대로 우리 생활의 숨결이고 체취라는것을 얼마나 생동하게 보여 주는가. 이것이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에 대한 시적화폭이고 선군시대 기본감정 흐름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이고 절절한 생활적정서로 펼쳐 준 서정세계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거룩한 자욱자욱에 깃든 가슴 뜨거운 사연을 전하고 있는 시 《정》(송명근 《조선문학》 7호), 《평장의 자욱 뜨거운 땅에서》(김정곤 《조선문학》 7호)도 구체적인 생활감정에 뿌리를 둔 선군서정의 세찬 격류를 느낄수 있다.

...

몰랐습시다.
숨동복 안실에서
장군님 손을 넣어 보실줄은!
피를 준 정만이 미칠수 있는 여기...
친어버이정만이 닿을수 있는 여기...

정녕 몰랐습시다
그 누구의 손도 미친적 없는
새 숨동복 안실에서
우리 장군님
숨새는 한가닥 랭기를 잡아 내실줄이야

...

351고지 눈바람을 막기엔 숨이 아직 얇다고 하시며 《그 누구의 손도 미친적 없는》 부분에까지 따듯이 보살피 주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 그 사랑에 목이 메여 《피를 준 정》, 《친어버이정》의 뜨거움과 강렬함을 느끼는 병사의 구체적이면서도 절절한 감정정서에 토대하여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위대성, 병사사랑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시형상을 펼쳐고 있다.

이러한 시적형상은 인간의 정에 대한 감정선을 타고 흐르는 독특한 서정과 《모든 사람 근심이 끝

나는 곳에/ 깊어 지는 걱정이 장군님정 아십니까》라는 무게 있는 주정토로 등에 의해 훌륭히 담보된다.

생활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하고 진실한 시적감정의 토로는 시 《다시 나의 감탄》(김석주 《조선문학》 11호), 송년시 《눈송이》(박호범 《조선문학》 12호)에서도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이 시들은 자기의 고유한 느낌, 남 다른 생활감정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위대성을 확증하고 선군시대의 의의와 생활력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

선군서정의 장엄한 흐름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직접 형상으로 노래한 시들과 더불어 시대의 다양한 생활, 다채로운 감정이 시화된 가지흐름들에 의해 더욱 풍부한 흐름을 이룬다.

많은 시들이 새로운것에 대한 지향과 탐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새 세기의 시다운 풍격을 갖추며 선군시대 서정을 진정한 생활의 서정, 참신한 서정으로 되게 하려는 노력들이 안겨 온다.

여기서 시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렴형미 《조선문학》 12호)의 시구절들을 다시 읽어 본다.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강의하고
일손은 류달리 웅골찬것인지...
집집의 부엌문을 열어 보라
크고 작은 깨단지 옥단지 층층 쌓여 있고
옷칠한듯 까만 무쇠가마들
안주인의 알뜰함을 자랑하거니
...
이들이 담그는 김치와 토장은 참으로 별맛
식혜, 낙지젓, 참나물김치
눈맛도 입맛도 천하의 별맛
남정네들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가
녀인맛은 음식맛, 음식맛은 사랑맛이라 했거늘
...

이 몇구절만으로도 시에 생활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펄펄 살아서 퍼덕이고 있다는 것을 긴 설명 없이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련을 가르치 않은 긴 시이지만 얼마나 거침없이 읽히우는가. 이 나라 녀인들의 생활의 단면들이 감칠맛 있게 안겨 와서 볼 맛이 난다.

시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녀인들의 성격과 생활의 이모저모, 그것은 단순한 생활세태적인 련거가 아니다. 다만 《남남북녀》의 유래와 전통이 꽃 피운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이 나라 녀인들의 아름다움과 강의함에 깃든 사연을 해명하기 위한 믿음직한 생활정서적바탕으로 되고 있다.

녀인들의 《평범한》 생활모습, 생활세계가 자나 깨나 이 나라 녀인들의 삶과 투쟁의 귀감이신 김정숙어머님을 생각하며 어머님을 닮으려는 숭고

한 지향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마음 얼마나 숭엄해 지는가.

아, 녀인의 정과 그리움 소중한 믿음을
송두리채 맡기고 사는 친정집
이 나라 녀인들을 어머니로, 투사로 되게 하는
넋의 친정집, 혁명의 친정집이
바로 여기 북쪽에, 회령에 있지 않는가!

평범하다고만 생각해 왔으나 결코 범상치 않은 고귀한 삶의 열정이 비낀 이 나라 녀인들의 생활의 의미가 새롭게 안겨 온다. 늘 하는 생각과 일썌씨, 성미 그 어느 면에서나 김정숙어머님과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녀성들의 생활세계를 선군시대 인간들의 인생관의 높이에서 보여 준대 이 시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후반부에 와서 지내 성급하게 의도가 드러나고 감정흐름이 비약된 감을 주며 《북쪽》이라는 의미를 시적일반화의 견지에서 보다 폭넓게 심화시키지 못한 것 등의 논의점도 없지 않다.

생활속에서 흘러 나와 생활의 목소리로 감수되는 선군시대의 서정은 서정시 《말기고 갑니다》(리진걸 《조선문학》 12호), 련시 《버들은 무엇을 속삭이는가》(장원준 《조선문학》 11호), 《만아들의 목소리》(전승일 《조선문학》 7호), 시초 《두 세월의 상봉》(박정애 《조선문학》 9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남에게 말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고 정이라지만
그 사랑, 그 정을
나는 말기고 갑니다
...

이렇게 시작되는 시 《말기고 갑니다》에서 시적 계기로 된 것은 병원에 아들을 입원시키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비낀 생활정황이다. 시로 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하다. 그러나 그 생활에 담겨진 시적의미는 결코 레사롭지 않다.

말기고 간다는, 부탁한다는 말밖에 못하고 문을 나서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는 《남에게 말길 수 없는》 인간의 사랑과 정에 대한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격찬의 감정을 선명하게 비추어 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살붙이!/ 곧 그대들의 혈육이 되고/ 남을 위해서는/ 내 사랑, 네 정이 따로 없는 우리 세상/ 하기에 아들을 말기고》 시름없이 가노라는 아버지, 서정적주인공의 목소리가 후덥게 가슴을 파고 들며 여운을 남긴다. 시에 선군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우리 시대에 대해서, 선군의 위력으로 굳건히 담보되는 우리 사회주의가 세상제일이라는-

우리의 삶이 자라는 어머니대지-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대하여 그리고 조국앞에 지닌 아들딸의 의무와 도리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

《만아들의 목소리》, 런시 《버들은 무엇을 속삭이는가》에도 우리 선군시대 인간들의 투철한 조국애의 열정과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요구성을 더 높여야 할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생활적소재가 암시하는 시의 세계에 깊이 침투해 들어 가는 사색과 탐구에 있어서 이전 시들과 구별되며 구호의 웨침이나 결구의 선언이 아니라 시종일관 자연스러운 감정의 논리로 생활의 의미를 깨우쳐 주려고 한것이 긍정적이다.

선군시대 총 잡은 병사들의 생활에서 시적계기를 잡은 시 《아들의 인사》(박현철 《조선문학》 12호), 《군화관을 한번 더 조여라》(김정근 《조선문학》 10호), 《파도와 나의 병사시절》(서성현 《조선문학》 12호) 또한 그러하다. 시형상수법이 좀 더 새로왔더라면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시들이지만 크나적으나 자기 감정, 자기 목소리로 선군서정의 대하에 합류하려는 시정신이 좋다.

런시 《6월의 금강속사》(신흥국 《조선문학》 10호), 《내 고장의 분노》(량덕모 《조선문학》 12호)를 비롯한 시들도 우리가 뼈에 새겨야 할 사랑과 증오의 감정. 변할수 없는 계급의식에 대한 혹은 통일될 강성대국의 밝은 래일을 그려 주며 6.15북남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더욱 끓어 오르는 민족의 통일될 열기에 대한 시형상으로 선군서정의 울림을 크게 하는데 기여하는바가 있다.

보다 무르익은 생활감정으로, 보다 깊이 있는 정서적주장으로 시형상을 더 높이 끌어 올렸더라면!...

새로운것에 대한 지향과 탐구가 보이고 진정한 생활의 시, 생활의 노래라고 생각되는 시들을 독자들이 읽고 있다.

선군시대의 참신한 서정은 결코 어떤 특이한 시적대상, 한정된 생활소재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 제일주의로 차넘치는 오늘의 생활의 갈피갈피에 충만되어있는 구체적인 생활감정속에 있다는것을 우의 시들은 크나적으나간에 자기 모습, 자기의 목소리로 보여 주려고 하였다.

선군의 위력과 의의를 새롭게 깨우쳐 주며 이 시대 인간들의 사상감정세계를 진실하게 노래한 이런 시들은 한해는 다 저물어 갔어도 오래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것이다.

지난해 하반년도의 시들을 되새겨 보며 이런 생각도 실어 본다. 독자들이 왜 어떤 시는 읽는데 어떤 시는 읽지 않는가. 어찌하여 독자들의 시첩에 벌써 새 폐지를 차지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나온지 얼마 되지지도 않는데 제목을 보아도 어떤 시였던지도무지 되짚어 지지 않는 시도 있는가...

어떤 리유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하여 몇편의 시들을 비교, 대비하여 보면서 대담을 찾으려고 한다.

- 《나》가 비껴야 한다, 이것이 첫번째 생각이다.

나는 책에서
시를 배우지 않았다
전호에서 배웠고
전호에서 썼다

시묵음 《병사는 노래한다》(박호범)에서 어제날의 병사-로시인은 총대와 함께-조국의 운명을 지켜 낸 준엄한 50년대의 병사시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신으로 살려는 오늘의 신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도 이 시인이 이미 지난 세기 60년대에 쓴 서정시 《전사》의 노래의 계속인듯하다.

원쑤와의 싸움에 나갔다가 돌아 오지 못한 전사의 넋을 이어 온 전우로서, 오늘의 선군시대 로병으로서 시인은 이제 다시 격전의 그날이 온다면 탄피를 가득 메운 어깨에, 심장에 지니고 갈 총대-서정을 토로하고 싶었던것이다.

시의 뜨거움은
피의 뜨거움
피와 땀과 넋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시를 써낼수 있다더냐

-시 《병사와 시》에서

오늘은 명절 -
그래서 나는 가슴에 훈장을 단다
크고 작은 훈장마다에
내 인생이 비껴 있지만
나는 군공메달을 제일 사랑한다

-시 《군공메달》에서-

여기 그 어디에 뜬 소리가 있는가. 생활의 정수, 느낌의 정수가 예리하게 번뜩이고 있다. 화선의 탄피냄새며 포연내가 물씬거리고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밀보리 푸르러 질 고향을 그리는 병사의 랑만이 안겨 온다. 그러한 시적화폭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병사-《나》의 모습이 비끼고 있다.

사랑과 증오를 두고, 승리의 확신을 두고 병사-서정적주인공은 자기 목소리로 주저없이 당당하게 노래 부른다. 그는 여직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량심의 가책을 두고도 자기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

...
오, 오늘도
가슴속에
수류탄 두알
매달려 떨어 지지를 앓네
터치지 못한 수류탄, 터치지 못한 량심이

-시 《수류탄 두알》에서-

어디에서나 병사- 《나》의 구체적인 감정이 강하게 울려 나와 독자의 가슴에 총대서정의 메아리를 일으켜 준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서정적주인공 자신인가... 그것은 서정적주인공 《나》이기도 하며 그에 비껴 있는 독자 《나》이기도 하다.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자기의 고유한 생활세계와 감정을 가진 《나》가 없을 때 읽고 싶은 시를 읽으려는 독자를 더 이상 붙들어 둘 수 없다.

분명 《나는...》하고 시를 시작했으나 시 《나는 평양의 아들》(송재하 《조선문학》 7호)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가 없다.

지금 보면 《나》를 평양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생활적전제도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여기에 《나》의 새로운 느낌, 《나》의 남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지 않다. 이 시의 서정적주인공은 맥박도 체온도 느껴 지지 않으며 그저 남이 하던 소리, 늘 들어 뻔한 소리를 그냥 되받아 넘기고 있는것이다.

구태여 시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능히 알 수 있는 상식을 말하는 《나》, 독자들보다 별로 높이 서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나》가 독자들의 마음을 끌어 당길 수는 없다. 몇해전에 발표된 박현철의 시초 《나는 평양의 아들이다》와 대비해 보면 이 시에서 얼마만큼 자기 몫,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시적주장을 터치려 했는가 하는것이 명백해 진다.

전변되는 내 조국의 현실을 노래한 시초 《물판의 새 노래》(량덕모 《조선문학》 8호)를 비롯하여 같은 호에 실려 있는 시 《이 가슴에 젖어 드는 물노래는》(최정용), 《동해기슭에 소금꽃 피오》(서진명), 시초 《사랑이 불 타는 땅》(김영길)을 왜서 독자물이 잘 읽지 않는가? 출판보도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본것, 알고 있는것, 느낀것외에 그이상 시로써 더 새롭게 안겨 주는것이 없기때문이다.

이 시들에서 서정적주인공은 변모되는 현실의 거창한 대상을 《통채로》 안고 그 넓은 결면을 다 훑어 보기에 분주하며 《크게》만 노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것》, 《세부적인것》을 통해서도 전변의 의의를 깊이 있게 보여 줄 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는가.

최근 이런 류형의 시들이 적지 않다는것을 말하고 싶다. 거창한 대상의 외적면모와 그에 대한 감탄, 시대적인 표현은 보이는데 유감스럽게도 서정적주인공 《나》의 모습은 그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이것은 생활속에 뿌리 내린 자기감정이 없다는것이며 그 변혁적생활을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독자들은 남에게 혼시하기보다 구체적인 자기 생각과 느낌을 고백할줄 알며 선군시대의 숨결을 자

기 생활의 호흡과 맥박으로 감수할줄 아는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진정한 생활의 시로 되어야 한다. 이것이 두번째 생각이다. -

그러면 우리의 시들이 생활의 반영이며 생활의 노래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지않다. 하지만 우리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는데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서정시 《12월의 눈》(심재훈 《조선문학》 8호)의 한두구절을 읽어 보기로 하자.

...

그 마음속에 12월의 눈은 녹지 않아라
중산의 나래 펼쳐 주는 눈이어

전기로의 열풍이 뜨겁다 해도
12월의 눈은 결코 녹지 않아라

...

강선의 12월의 눈에 대해 노래하려고 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지난 시기 얼마나 많은 시가 나왔는가. 또 녹지 않는 눈, 따뜻한 눈, 무거운 눈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는 그 시들에는 체험된 생활의 깊이에서 울려 나오는 자기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시에 무엇이 있는가. 12월의 눈에 대한 새로운 시적의미도 없고 감정의 뜨거움도 없다. 있다면 뜻도 잘 가닿지 않고 그 정서적의미도 불명확한 《녹지 않는 눈》에 대한 되풀이가 있을 뿐이다.

같은 시적소재를 가지고 창작된 백의선의 서정시 《흰 눈》, 《1980년대시선》에 올라 있는 이 시와 대비하기에는 우의 시가 너무도 초라하다. 꼭 같은 시적대상을 두고 노래했는데 어찌하여 두 시가 주는 느낌이 이렇게도 판이한가. 《흰 눈》보다도 짧은 《12월의 눈》이지만 읽기가 얼마나 따분한가.

시가 구체적인 생활적정서를 떠나 상념으로부터 출발한데 있다.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는 새 세기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과 생활을 예리하게 투시하는 안목이 없이 지난 시기 하던 방식대로 상념속에서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 가지고 억지로 시를 만드는 데 있다.

사실상 아직도 《녹지 않은것》은 새 세기 우리 생활과 감정정서와는 거리가 먼데서 시를 찾고 있는 시인의 구태의연한 창작태도, 굳어 질대로 굳어진 창작관습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모든것을 새롭게! 라는 새 세기 변혁과 창조의 열풍에도 녹지 않은...

시 《유치원마당가에서》(김성옥, 《조선문학》 10호), 당시 《소탈한 <친구>》(남철훈 《조선문학》 10호), 《시간을 달라》(리명희 《조선문학》 11

호), 《나에겐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전성호 《조선문학》 11호)를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당일군에 대한 시들인 《유치원마당가에서》나 《소탈한 <친구>》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것은 유치원아이들에게 둘러 싸여 갈 길을 잇는 한 농촌당일군의 소박한 모습이며 건설장의 노동자들과 허물없이 어울려 지내는 새로 온 당비서의 모습이다. 사실상 그것은 얼마나 생활적이며 친근한가. 생활의 음향이 아름답게 울리는 좋은 시로 될수도 있었다. 그런데 읽고 보니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저 그렇구나 하는데 머무르는 정도이다.

오만가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줄
찾고 있는줄
알거나 할가
이 아이들은...

보는것처럼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이런 때가 더 길다면 얼마나 좋으랴만》 아이들은 자기에게 바쁜 일감이 있는줄 알수 없다는것이 시 《유치원마당가에서》의 결구이다. 아마 이것이 시에서 보여 주자는것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것이다. 서정적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명백치 않은데다가 아무데서나 자기 자랑을 늘어 놓는 《나》의 모습이 인상을 더 흐린다.

자기의 궁지, 자기의 자랑을 터쳐 놓는다 해도 어떤지 그 세계가 낮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시의 전반 흐름과 허전한 결구가 그것을 말해 준다. 생활의 깊이에서 파고 들지 않고 외형만 보여 주면서 《자 이것이 생활이요》라고 하는 시라고, 생활의 본질에 대한 사상정서적해명이 없이 범상한 상념만이라렬된 시라고.

결코 이런 시들이 생활적인 시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생활 그자체를 아무런 시적인 《탐색》과 《가공》도 거치지 않은 《날것》 그대로를 내놓고 있기때문이다.

시적발견이 깃들지 않은 시를 두고 우리는 그것을 생활의 시, 생활의 노래라고 말하지 않는다. 시 《시간을 달라》는 지성도가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 시이다.

...

아깝구나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쓰기는
왜 해와 달은 오늘도
어제와 꼭 같은 시간에 뜨고 지는지
안타까운 이 마음

나는 바쁜 사람
시간이 모자라는 녀인

밥 짓고 빨래하고
남편시중 자식시중 세세히
직장에선 혁신자
안팎으로 일감은 언제나 많아
...

그래서 자기에겐 시간을 달라는것이다. 《대낮에도 잠을 자는/ 게으른 녀인이 있다면》, 《허영의 만족을 느끼며/ 한가하게 장거리로 오가는 <멋쟁이> 녀인이 있다면》, 《리기의 구름우에 떠다니는/시간의 랑비자들이 있다면》, 《술도 마시고 시간도 마셔 버린 술주정군이 있다면》...

하지만 공연한 푸념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밥짓고 빨래하고 남편시중 자식시중》 드느라 시간이 모자라고 《직장에선 혁신자》로 바쁜 사람이니 랑비되는 《그 시간을 모두 달라》고 하는것이.

때문에 아무리 시인의 환상이라도 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잘 납득될수가 없는것이다.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 하는것이 문제일것이며 생활과 창조에 바치는 열정과 노력, 사랑의 크기가 보다 문제일것이다.

어느 일개인의 사사로운 상념만이 번거롭게 라렬되어 있는 이런 시를 과연 시라고 할수 있겠는가.

집으로 들어 설 때 문을 몇번 두드리는가 하는것이 곧 몇발파를 했다는 소식을 알려 주는것이라는 탄부의 류다른 습관을 보여 준 시 《나에겐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생활적감정의 진실성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 진다.

이외에도 우리의 시들을 진정한 생활의 시로 되게 하는데서 론의할수 있는 시들이 없는것이 아니다. 이 시들에서 공통적인것은 우리 생활의 이모저모를 취급한 외적면모는 띠고 있으나 우리의 선군시대 생활과 투쟁의 본질과 의의를 깊이 있게 파고든 새로운 느낌, 남과 구별되는 자기 감정, 자기 목소리가 비껴 있지 않는것이다.

《생활을 노래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지는 생활과 멀리 떨어져 저 상념의 세계에서 시를 엮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 그런 경향과는 멀리 결별하자.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는 강성대국건설의 벽찬 현실이 우리 시인들을 부르고 있다.

가까이, 선군시대 격동적인 생활속으로 더 가까이! 온갖 낯은것, 뒤떨어 진것, 독자들과 인연이 없는것들을 활활 태우는 시대의 불길이 솟구치며 우리 시문학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생활의 깊이에서 우리나라오는 선군시대 서정이 이하늘아래, 이 땅우에 더 힘있게 메아리치게 하자.

선군시대 현실 그자체가 영웅서사시이다. 시인의 몫은 이제부터이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모든것을 참신하게- 시는 새로운것에 대한 지향과 탐구로부터 시작된다.

땅과 총

김형준

내 땅
잔디 푸른 전호가에
총을 없으니
내 배심 땅처럼 두텁고
마음은 하늘처럼 평온하다

전호도
내 땅우에 내 전호요
전호에 없는 총도
내 땅의 쇠들로 부어 났으니
나와 땅과 총은 하나의 운명

병사의 어깨우에
총이 메워 저야 하듯
땅우엔 총이 있어야 함을
력사는 진리로 새겨 주고
혁명은 목숨으로 가르쳤거늘

허공중에 없는 총 보았더냐
총이 없는 나라도 나라더냐
총은 나라
나라는 총
하여 총과 땅은 하나의 뜻

전호에 총을 없으니
총을 없은 땅속에선
금은보화가 무지개를 그리고

총이 지키는 땅우의 행복은
총에 감사 드리나니

총을 사랑하라
이 말은 땅을 사랑하라는 말!
땅을 사랑하라 이 말은 총을 사랑하라는 의미!
하여 땅의 무게는 총의 무게
하여 총의 무게는 땅의 무게

누가 감히
내 땅의 한그루의 나무
그 나무에 깃들인 날새 한마리
감히 건드린단 말인가
내 땅우에 내 총이 있는데

댈이 없어
정도 피도 흐르지 않는 총이라
함부로 말하지 말자
총은 자신이 없힌 땅만큼
사랑과 의리와 정을 주고 지키나니

오! 총에게 물어 보라
그대 지켜 귀중한것 또한 무엇인가?!
그러면 《땅!》하고 총성으로 대답하리
- 우리 겨레의 삶의 터전인
나의 땅 나의 강토다! ...

고임돌

김명진

그날은 김성녀의 생일이어서 구봉령에 있는 자식들이 모두 모여 들었다. 넉넉치 못한 살림에서도 저마다 한가지씩 들고 왔다.

온 식구가 큰 상에 둘러 앉아 떠들썩한 가운데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아침모임까지 하였다. 원래 도로관리가죽소대에서는 한주일에 한번 소대장인 성녀의 집에 모이곤 한다. 벽 한면을 차지하고 있는 구봉령도로관리락도앞에서 한주간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작업지시를 받곤 하는것이였다.

성녀는 이날 아침에도 어느 날과 같이 작업지시를 주었다. 밤새 비가 내린터여서 못 쓰게 된 도로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때 밖에서 가벼운 인기척소리가 났다.

문열에 앉아 있던 셋째딸 옥실이가 무심중 내다 보고는 한순간 몸을 떨었다. 그는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 밖으로 나가더니 아침모임이 끝나도록 들어 오지 않았다.

《어머니, 그 동무가 왔었어요.》

사립문새로 사라진 사람을 띠여 본 맏딸 경실이가 알려 주었다.

《그 동무라니?》

《작년에 찾아 왔던 그 <멋쟁이>말이에요.》

《?!》

풀을 꺾꽂이 먹인 회색작업복을 입고 팔에 《도로관리원》 완장을 끼던 성녀는 몸이 굳어 졌다. 평온하던 가슴에는 돌멩이가 떨어 진듯 놀란 파문이 일어 났다.

(다시는 이 집을 찾지 않을줄 알았던 그 청년이 어인 일인가?)

《멋쟁이》가 나타나고 옥실이가 보이지 않는것이 짙은 의혹을 자아냈다. 그 청년을 못 잊어 하던 옥실이 선뜻 따라 나선게 아닌가.

성녀는 마음이 산란했으나 얼굴에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어서들 일 나가거라.》

자식들을 각기 자기의 담당도로로 내보내고 그는 토방에 앉아 있었다. 옥실이를 기다렸으나 시간이 이윽히 지나도록 그 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녀는 가슴이 무거워 졌다. 옥실이가 《멋쟁이》의 꼬임에 들어 집을 아주 떠나가 버린듯한 불안이 갈마들었다. 그 애가 한가마의 밥을 먹으며 살면서도 어머니의 속을 이렇게 몰라 주다니...

가족소대에서 그 애만이 딴 길을 걷고 있는듯 싶어 성녀는 야속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돌이켜 보면 그 애의 생각이 달라 진것은 오래전 부터였다.

그게 아마 옥실이 열한살나던 해였던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 온 옥실이는 글짓기시험에서 백지를 냈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손》이라는 제목을 받고 도로관리에서 굳어 진 어머니의 크고 험한 손을 쓸수 없었다는것이였다.

다른 집 어머니들의 회고 매끈한 손을 부러운 눈길로 보아 온 그 애는 어머니의 투박한 손을 부끄럽게 여기는듯 싶었다.

그때 경실이가 동생을 땀나게 닦아 세웠다.

《바보 같으니, 어머니의 손이 어떻다고... 로동에서 굳어 진 그 손을 오히려 자랑스레 써야 할게 아니냐...》

그랬던 옥실이가 혼기에 이른 오늘까지 어머니의 심정을 몰라 주며 도로관리원생활에 애착을 못가진 듯 싶었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저녁 둘째딸 춘실이가 와서 성녀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것이였다.

《옥실에게 새서방감이 생긴것 같아요.》 키가 크고 얼굴이 미끈하게 생긴 총각이 옥실이가 일하는 곳에 여러번 찾아 온것을 보았다는것이였다.

성녀는 귀가 띄여 입이 벌글썩해 졌다. 만이와 둘째는 대상자들을 쉽게 만나 나이들기전에 시집들을 보냈는데 셋째한테는 아직 새서방감이 나서지 않아 속으로 은근히 걱정해 오던차였다.

어떻게 생긴 총각이기에 춘실이가 그렇게 칭찬하는가 싶어 하루는 옥실이에게 넌지시 그 총각을 집에 데려 오라고 일렀다.

그 이튿날은 쉬는 날이였는데 총각이 버젓이 찾아 왔다. 진곤색양복을 쪽 뿔아 입은 청년이였다. 지질탐사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청년은 성녀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의 크고 마디진 손을 유심히 더듬어 보는것이였다.

《어머니, 전 옥실동무와 사귀지 오랍니다. 사실..., 우린...》 청년은 말을 더듬었다.

《알고 있네. 우리 옥실이두 마음을 두고 있는것 같더군. 그래 임자생각은 어떤가?》

《저야 뭐... 옥실동무를 한생 도로관리원를 시켜야 하겠습니까?》

뜻밖의 물음에 성녀는 어정쩡하여 그를 건너다보았다.

《도로관리원이 뭐 어드래서?》

《옥실동무가 출가한후에도 도로관리를 해야 한다면...저두 여기로 와야 할텐데...》

청년은 긴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성녀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진심으로 말해 주었다.

《도로관리원은 집의 가풍으로 되어 있네.》

성녀는 청년에게 옥실이를 달고 갈 생각은 아예 말라고 미리 못 박아 놓았다. 청년은 주눅이 들지 않고 통사정을 했다.

《그래도... 옥실동무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임자는 우리 옥실이가 도로관리를 하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것 같구만. 그래서 안되지. 잘 생각해 보게.》

성녀가 두말 못하게 놀려 놓자 청년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후에 청년을 더는 볼수 없었다. 옥실이에게 조용히 물어 보니 아주 단념하고 돌아 섰다는것이였다. 성녀는 그제야 그 청년의 속심을 알아본듯 싶었다. 그는 내 험한 손을 보고 생각이 달라 진게 아닐가. 자신의 손도 옥실이의 손도 그렇게 되어 버릴가 봐...

그런 일이 있은후부터 옥실이의 생활에서는 변화가 생겼다. 얼굴에서 웃음을 잃고 일에서도 성수를 내지 않았다. 형제들속에 끼여서도 말이 없고 시름에 잠겨 있는듯 싶었다. 옥실이는 그 청년을 못 잊어 그러는게 아닐가.

그렇게 해를 넘기더니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녀는 옥실이를 기다리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애가 총각을 만나보고는 자기 담당도로로 곧바로 올라 간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안을 애써 털어버리었다.

그랬으나 마음은 좀체 진정되지 않았다. 밤새 비가 내린 아침날씨는 맑고 상쾌했다. 물기를 머금어 더 푸르고 수려한 산봉우리우로 부채살 같은 해살이 퍼져 산도 도로도 더 령롱하게 빛났다. 북방의 날씨는 처서를 넘기자 벌써 선기가 돌아 서늘한 느낌이 옷자락밑으로 스며 들었다.

성녀는 자루가 긴 삽을 총대처럼 들고 령길에 들어 섰다. 마을이 끝나고 령길이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성녀네 가족소대가 관리하는 도로가 놓여있다. 흰구름을 두둥실 띄우고 우렁이 솟아 있는 저 아득한 령마루까지 30여리...

한옆에는 장자강의 푸른 물을 굽어 보며 굽이굽이 뻗어 올라 간 령길, 푸른 하늘과 잇닿아 더욱 선명하고 웅건하게 솟은 령마루가 오늘 따라 눈뿌리 아프게 안겨 오는것은 무엇때문일까.

뒤에서 자동차경적소리에 성녀는 놀라 길옆으로 비켜 섰다. 짐을 만재한 화물차 한대가 기세좋게 달려 오더니 성녀의 옆을 썰하니 지나갔다.

성녀는 두손으로 삽을 지팡이처럼 짚고 서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그 자동차를 점도록 지켜보았다.

(내 인생도 이렇게 지나가고 말았구나...)

한순간 이룰할수 없는 감회가 짜릿하게 마음의 금선을 울린다. 길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 생활, 길을 위하여 바쳐 온 자기의 한생이 느닷없이 떠오르며 가슴이 산란해 지는것이였다.

가슴에 때없이 일렁이는 이 파문은 얼마전에 옥실이아 일으켜 준것이였다.

《어머니가 길을 위해 한평생 일해 왔지만...남은것이 무엇이에요?》

이즈음 고민에 잠겨 있는 옥실이한테서 눈물 배인 말을 들은것이다. 고드름으로 쪼리운듯 한 그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모진 아픔을 남기였던가.

지난해 자식들이 차려 준 생일상을 받으면서 어쩔수없이 찾아 든 서글픔, 자기의 인생길도 한고개 넘기며 머지 않아 일손을 거두게 되리라는 그런 허전함을 안고 있는 성녀에게 그것은 너무도 아픈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진정 길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온 나에게 남은것이 없는가.

삽자루에 몸을 의지하고 끝없이 뻗어 간 령길에 눈길을 보내노라니 이 길에 누벼 온 지나간 생활이 주마등처럼 흘러 갔다.

...한옆에는 장자강을 끼고 있고 다른 한옆에는 큰 기계공장을 끼고 있는 중성간도로, 평양으로 잇닿은 이 넓지 않은 도로에서 성녀는 도로관리원생활의 첫 자국을 떼었다.

가정에 묻혀 있는 그에게 삽을 쥐여 준 사람은 기계공장에서 일하는 말수 적은 남편이였다.

《여보, 위대한 수령님께서 1년에도 몇차례씩 우리 공장을 찾아 주시지 않소. 그런데 도로가 불비하니 어쩐지 죄스럽기만 하오. 당신이 이 길을 맡아 주오.》

남편은 공장에서 제 손으로 제관하여 만든 삽을 내놓았다. 강쇠로 된 크고 든든한 삽이였다. 거기에 남편의 크나큰 당부가 담겨 있는듯 싶어 그 삽을 소중히 받아 쥐었다.

희고 자그마한 손으로 그 삽을 다루는것이 험치 않았다. 삽자루를 잡은 손등에는 파란 피줄이 일어서고 손바닥에는 대번에 파리알 같은 물집이 잡혔다. 그랬어도 성녀는 삽을 놓지 않고 강심을 먹고 일했다.

울망줄망 태어난 어린것들을 달고 하루종일 도로에 붙어 있다나니 힘들기도 하고 가정생활에도 부

답이 갔다. 어린애들의 시중을 들어 주지 못하고 빨래감들이 쌓이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무뎠던 남편이 성녀가 힘들어 할세라 일손을 거들어 주곤 했다. 남편은 그에게 힘을 보태주고 잘못된것은 깨우쳐 주는 생활의 길동무였다.

그렇게 기둥같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마흔살을 못 채우고 불치의 병으로 갈줄이야.

《모든것을 당신에게 맡기요...》

아직은 섬약한 손을 꼭 잡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성녀의 가슴에 못 박혔다. 그 손으로 다섯자식을 키우고 도로관리를 잘하라는 당부임을 성녀가 어이 모르랴.

너무도 큰 상실을 당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혼자손으로 이 어린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 가는가.

하지만 불행을 겪은 그를 나라에서는 따듯이 돌보아 주었다. 아이들에게 철 따라 무로나 다름 없는 교복과 학용품들을 안겨 주었고 먹을것, 입을것을 떨구지 않고 보장해 주었다.

성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도로관리에 모든 힘을 기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라고 하신 말씀을 전달 받고는 그 《얼굴》이 흐려 질세라 닦고 쓸고 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성녀에게는 도로가 마음의 기둥이었고 생활의 전부이기도 하였다. 어려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도로에 마음을 얹고 도로에 의지하여 생활을 꾸꾸이 헤쳐 나갔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온 담당도로가 어느 해인가는 번듯하게 포장되었다.

《성녀동무, 이제 좀 허리를 펴게 되었소.》

도로시설대 대장은 그를 생각하여 포장된 도로를 그대로 관리할것을 위임하였다.

성녀는 생각이 깊어 졌다. 포장도로에서야 삽 쓸 일이 없지 않은가. 남편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는듯 싫어 죄스러운 심정이였다.

그무렵 군에서는 구봉령도로관리문제가 일정에 올라 있었다. 구봉령은 군과 도소재지사이에 높이 솟은 험하기 이룰데 없는 령이였다.

령이 멀고 외진 곳이여서 누구도 선뜻 몸을 내대지 않았다. 구봉령을 담당했던 관리원이 얼마전에 아프다는 구실로 손을 떼어서 령길이 말이 아니였다. 거기에 당장 보낼 사람이 없어 도로시설대에서 꼴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성녀는 큰 결심을 품었다. 이 삽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그는 남편이 하얀 붓나무로 자루를 맞추어 준 윤기나는 삽을 두손에 꼭 모두어 쥐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내가 구봉령으로 가려고 해요. 당신은 찬성하시지요?)

(잘 생각했소. 거기야말로 당신이 지켜 서야 할 초소요.)

번들거리는 삽에서 성녀는 분명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남편이 유일하게 남겨 준 그 도구에서 남편의 숨결을 느끼며 힘을 얻곤 하는 성녀였다.

그는 도로시설대 대장에게 자기 결심을 이야기했다. 대장은 깜짝 놀라 만류했으나 성녀는 종시 초소를 구봉령으로 옮겼다.

령아래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하고 다섯아이를 데려 왔다.

령을 돌아 보니 말이 아니였다. 굽인돌이마다 길이 끊어 지고 령길 전체가 패여 언뜰뼉혔었다.

성녀는 이사짐을 풀어 놓지도 못하고 도로관리에 달라붙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별을 이고 령길에 올랐다가 별을 이고 돌아오곤 했으나 일자리는 나지 않았다. 도로시설대에서 도와 나섰고 기관들에서도 펼쳐 나 일을 제껴 주었으나 그래도 주인은 도로관리원이였다.

성녀는 손에서 삽을 놓을새없이 1년 12달을 령길에서 맞고 보내였다. 계절의 변화에 제일 민감한 것이 도로였다. 그 섬약한 손으로 무슨 일인들 안했으랴.

봄철에는 골짜기와 흙태기들에서 눈석이물이 범람하여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도처에서 얼음을 까내고 무너진 옹벽을 쌓고 물과 씨름을 하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어 들곤 한다.

여름에는 물과의 싸움을 더욱 본격적으로 벌려야 한다. 가는 구름, 오는 구름이 다 걸려 무시로 쏟아지는 폭우에 령길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물도 랑썰기, 끊임없이 패우는 길에 석비레 깔아 주기...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일이었다.

겨울은 겨울대로 간고하고 일감이 더미로 쌓인다. 령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하루해를 보내야 했다. 수시로 쌓이는 눈치기, 얼음 까내기, 경사지에 차들이 미끄러 지지 않게 흙을 깔아주는 일...

이러한 로동속에서 날과 달이 흐르고 해가 바뀌었다. 물집이 잡히곤 하던 말큰말큰한 손에는 탄탄한 못이 박히고 자그마한 손은 크고 억세어 졌다. 별에 타고 그슬러 검스레해 진 손에 다슬려 삽자루는 반질반질한 윤기가 돌고 삽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세월의 눈비가 내려 쌓이고 쌓여 성녀의 칠혹갈던 머리에는 어느덧 흰서리가 내리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을 남기였다...

비를 머금은 석비레땅은 먼지 한점 일지 않고 반반하였다. 방금 지나간 자동차바퀴가 무늬처럼 길게 자국을 남겼을뿐 도로에는 돌맹이 하나 띄우지 않고 깨끗하였다.

하지만 밤새 내린 폭우로 군데군데 씻기운 자리가 띄어 성녀는 길 한옆에 두부모처럼 쌓아 놓은 석비레를 삽으로 듬뿍듬뿍 떠서 퍼나갔다.

이 석비레무지들은 구봉령의 어느 한 골짜기에서 파내려 온것이다. 소달구지나 발구에 석비레를 그득그득 실어 내린것이 몇백, 몇천번인지 모른다.

석비레를 깔고 또 깔아 주어서 원래는 진흙과 돌맹이뿐이었던 길이 이제는 포장도로 못지 않게 반듯하고 탄탄해 졌다,

그래도 성녀는 도로가 불비한것 같아서 길 한옆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석비레무지를 쌓아 놓고 길이 꽤일 때마다 아낌없이 퍼주는것이다.

그렇게 정성스레 다스려 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거침없이 내달릴때면 성녀의 얼굴에는 가벼운 미소가 떠오르곤 한다.

이 길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나가시리라 생각하니 그 기쁨과 긍지는 남 다른것이였다.

《어머니, 이 장갑을 끼고 일하세요.》

갑자기 등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울려 성녀는 삽질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산에 부림소들을 풀어놓고 내려온 막내아들이 하얀 장갑을 내미는것이였다. 며칠전에 만들어 준 장갑을 여적 끼지 않고 내놓은것은 이 예미의 손을 아껴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원, 애두...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아들의 손에 장갑을 끼여 주는 성녀는 이제 막내아도 다 자랐다는 대견한 생각이 들었다.

×

성녀는 첫번째 구간을 막내에게 넘겨 주고 북으로 휘우듬히 뻗어 오른 령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령길의 구간구간을 자식들에게 맡겨 놓고 매일 이렇게 순회길에 오르는것은 그의 어길수 없는 일과였다.

길 좌우에 주련이 늘어 선 길나무며 촘촘히 박아 세운 말뚝이며 석비레가 하얗게 깔린 도로의 한메터한메터가 이제 너무도 낮이 익어 눈을 감고도 걸을수 있는 길이지만 성녀는 매일 처음 오르는 길인듯 유심히 뜯어 보면서 삽으로 부지런히 손질해 나가는것이다.

한굽이, 또 한굽이... 비스듬히 경사를 이룬 령길의 한옆에 자그마한 집 한채가 서 있는 골짜기가 나뉘었다. 여기서부터 만팔 경실이와 그의 남편이 담당하여 관리하는 구간이였다.

삐죽이 나온 산굽이를 돌아 서자 몸이 보기 좋게 난 경실이의 모습이 보였다. 늘씬한 허리를 틀동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며 산기슭을 따라 길게 켜여 있는 도랑을 정리하고 있었다.

성녀가 가까이 다가서자 경실이는 삽질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팔소매로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요새는 매일같이 비가 내려 일한 뒤끝이 없어요.》

《그럴테지, 철이 애비는 어디 있나?》

《저우에 있어요.》

경실은 도로의 웃쪽을 가리켜 보였다. 그러는 딸의 얼굴은 별에 타고 그슬려 가무스레하다. 크고 서늘한 눈이며 날이 선 코며 도톰한 입술은 처녀시절의 미를 간직하고 있으나 반듯한 이마에는 벌써 실주름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삽을 쥔 손은 사내들손처럼 크고 마디져 있었다.

성녀는 딸의 얼굴을 이윽히 더듬어 보다가 물었다. .

《내가 도로관리를 시작한지 몇해나 되었나?》

《그건 새삼스레...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15년...》

성녀는 나직이 외워 보았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인적 드문 이 령길에 나선지 어느덧 15년이 되었던 말인가. 하긴 이 애가 낳은두 자식이 벌써 학생이 되었으니 세월은 얼마나 멀리 흘러왔는가.

(바로 이 자리에서였지...)

성녀의 눈앞에는 15년전 그날 이 령길에 달려 올라 왔던 단발머리소녀의 얼굴이 우렷이 떠올랐다....

《어머니, 우리 오늘 졸업식을 했어요!》

10여리 령길을 단숨에 달려 올라 온 경실은 어머니앞에 성적증을 내보였다. 성녀는 삽을 눕혀 놓고 성적증을 받아 펼쳐 보았다.

《최우등을 했구나.》

그는 만족한 눈길로 이제는 몰라 보게 숙성한 딸을 더듬어 보았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키가 늘씬하고 눈이 크고 서늘하여 어디서나 용모가 빼여 저 보이는 딸, 아버지 없는 이 애를 나라에서 키워 주고 공부시켜 주었구나.

《어머니, 나 대학추천을 받았어요.》

경실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쳐 흘렀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한시 바빠 어머니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10여리 령길을 달려 올라 왔던것이다.

《대학추천을 받았단 말이지...》

성녀는 나직이 외우며 시름겨운 눈길로 령아래 어딘가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한테서

반가와 하는 빛을 보지 못한 경실은 저으기 실망한 듯 토라진 소리를 했다.

《어머니는 내가 대학 가는게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기가야...》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경실은 이상하다는 듯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 보았다. 성녀는 성적증을 돌려 주고 삽으로 흙을 떠서 우묵히 패인 차바퀴자리를 메꾸기 시작했다. 그러는 성녀를 이윽히 지켜 보던 경실은 어머니한테 달려 가 삽을 빼앗아 쥐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를 모셔 가겠어요.》

경실의 부르짖음에 성녀는 나직이 대답해 주었다.

《나는 여기를 뜨지 않겠다.》

《네?》

경실은 이해할 수 없는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여기서 한평생 일하겠단 말이에요?》

《아야.》

성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딸에게 말했다

《이 령길은 내가 자진하여 딸은 초소인데 가기는 어딜 간단 말이나?》

《...》

《저 령아래를 내려다 보아라. 이 령길은 평양과 곧바로 이어져 있는 길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도를 찾으실 때는 이 령길을 넘어 오시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도 높고 험한 령인데...》

어머니의 절절한 토로에 딸의 머리는 점점 수그러졌다.

성녀는 크고 투박한 손으로 윤기 흐르는 삽을 꼭 그러쥐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네 아버지는 이 삽을 만들어 주면서 나에게 큰 당부를 남겼다. 도로를 잘 관리하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모셔 달라구...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일하지 못했구나.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기에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구나. 나는 우리 모녀가 이 삽을 잡고 령길을 지켜 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머리를 수그리고 한참동안 숨을 죽인 듯 잠자코 있던 경실이는 얼굴을 들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크고 서늘한 눈에는 물기가 가득 고여 올랐다.

어머니의 손이 어깨를 부드럽게 쓸어 주자 그는 《어머니!》 하고 목 메어 부르며 성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경실이는 어머니와 그 소원을 가슴에 새겨 안고 령길에 나섰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나이로서는 쉽지 않은 결심을 한 것이다.

그 애가 선크를 때놓아서 그뒤로 춘실이, 명철이, 옥실이, 성철이... 련달아 도로관리원이 되었다.

그 애들이 어느덧 나이 들어 하나 둘 시집, 장가를 가서 오늘은 가족소대가 구봉령을 지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색이 좋지 않아요.》

경실이는 성녀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나서 근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옥실에 그 애때문에 그러지요?》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요먼저 말해 주었더니 그 애도 생각을 깊이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위해 주고 동생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 무던히 마음을 써오는 딸이었다.

성녀는 그 자리에 경실이를 남겨 놓고 또다시 령길을 밟아 오른다. 걸음을 옮길수록 산세가 더 험해지고 푸른 하늘이 가까와 지는 듯 싶다.

일매지게 쌓아 놓은 웅벽들이 한열에 담벽처럼 일어 서고 그우로는 무성한 나무숲이 짙어졌다. 바람이 일자 좌- 하는 숲의 설레임소리가 파도소리처럼 들려 온다. 어디선가 휘파람새가 《호르르 빛.》 하고 선창을 떼자 나무숲의 여기저기서 솔새들의 합창이 귀따갑게 들려 온다.

그러는가 하면 웅벽의 꼭대기에 다람쥐가 난딱 올라 앉아 령의 주인을 반기듯 꼬리를 달싹거리며 바라보고 있다.

한굽이, 또 한굽이... 새로운 풍경이 펼쳐 지는 령길은 점점 더 높아 지고 굽이가 많아 지는 듯 싶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생활의 자국자국이 찍혀 있는 령길이 성녀에게는 그저 령길로만 보이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우리 생활의 얼마나 많은 곡절과 사변들이 이 령길을 타고 넘어 갔던가. 시대의 숨결을 안고 구봉령은 때로 환희와 걱정으로 흐느끼기도 하고 때로 상실의 아픔으로 몸부림치기도 하였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어느해 봄이었다.

허기진 배를 달래며 령길에 오른 성녀는 둘째딸 춘실이 내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길에는 눈석이물이 넘쳐 흐르고 돌담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애들은 무얼 하고 있을가.

성녀는 령의 중턱에 들어 앉은 그의 집을 찾아갔다. 마당에 들어 서고 부엌에 들어 서도 인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부뚜막이 싸늘하여 가마뚜껑을 열어 보니 맹물만 한바가지 들어 있었다.

(이 애들이 아침을 끓이지 못했구나...)

머칠전까지만 해도 찰뿌리를 캐어 가루범벅을 해 먹는 것을 보았는데 이젠 그것마저동이 났단말인가.

방문을 열고 들어 서니 아닐세라 썰렁한 방에 춘실이내외가 누워 있었다. 처녀때처럼 늘 발깃한 홍조가 피어 나던 딸의 얼굴은 누렇게 떠서 부석부석

부어 있었고 사위의 검승한 얼굴은 두눈이 우뚝하게 꺼져 들어 가 있었다.

《일어들 나가라!》

성녀는 가슴아픔을 누르고 딸, 사위에게 소리쳤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애들이 영영 일어 나지를 못할것 같아 아픈 매를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 눈석이물이 넘쳐 나 길이 말이 아니다.

일을 해야 할게 아니냐!》

어머니의 엄한 요구에 딸이 먼저 일어 나고 뒤이어 사위도 일어 나 앉았다.

성녀는 그들앞에 허리에 차고 온 밥보자기를 풀어 놓았다. 찰뿌리가루에 강냉이가루를 조금 섞어 만든 범벅이었다. 여러날째 이런 범벅으로 예워온 성녀는 오늘 아침도 번지고 밥보자기를 싸들고 나섰던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딸과 사위는 잠간새에 범벅을 게눈 감추듯 없애 버렸다.

성녀는 이들과 함께 령길로 나왔다. 허기진 배를 곬어 안고 하루종일 눈석이물과 싸움을 벌렸다.

이렇게 배를 곬으면서도 성녀네는 하루도 령길을 비우지 않고 다지고 또 다져 나갔다. 눈비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쳐 와도 령길을 끄떡없이 받들고 있는 고임돌들처럼 자식들을 키워 냈다.

그렇게 높고 험한 시련의 고비를 넘어 서니 앞길이 탁 트이지 않는가. 령길의 좌우에 거연히 머리를 추켜 든 봉우리들이며 기암괴석들, 푸르게 우거진 나무숲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 낸 인간의 힘과 의지 이런듯 보였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긴 오늘에 와서 옥실이 하나만이 생활의 위전으로 밀려 난듯 싶어 성녀는 못내 가슴이 쓰리었다. 《멋쟁이》와 헤어진 후부터 그 애가 시름에 잠겨 있는것이였다. 생기를 잃어 버린 딸을 보는 성녀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 애의 장래를 비틀어 버리는게 아닐가.

그러던 어느 날 성녀는 길령에서 뜻밖에도 《멋쟁이》를 만나게 되었다. 물도랑을 켜고 있는 성녀를 본 그 청년은 몹시 당황하여 허리를 굽혀 깎듯이 인사를 했다.

성녀는 삽질을 멈추고 청년을 더듬어 보았다. 서늘한 하늘색샤쓰에 곤색바지를 입은 그의 몸에서는 연한 향수내가 풍겨 왔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두손을 앞에 모두어 쥐고 잠시 쭈뼛거리다가 《옥실동무는 잘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이 녀석이 여전히 그 애를 잊지 못해 하는구나.)

하긴 눈에 정기가 돌고 키가 늘씬하고 준수한 청년이 성녀의 마음에 들지 않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물었다.

《임자 아직 그 애를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

《보아하니 임자는 외양이 멀끔하고 인사성도 밝은데… 사람이 허울만 좋아서야 무얼하겠나. 속에 든게 있어야지. 우리 옥실이 가 무엇때문에 이 령길을 떠나지 못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나라를 위하는 보석 같은 마음을 간직해야 어디 가서도 빛이 난다네…》

성녀는 《멋쟁이》가 알아 듣도록 차분히 타일러 주었다. 청년은 생각이 깊어 저 아무 말도 없이 담배를 태우기만 했다.

그날 저녁 성녀는 딸을 불러 앉히고 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냈다.

《너 요새 고민하고 있는게 무엇이나?》

뜻밖의 물음에 옥실이는 놀란듯 어머니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꼭 수그렸다.

《이젠 너두 시집 갈 나이가 됐지.》

《…》

《왜 대답이 없느냐?》

성녀가 다그쳐 물어서야 그 애는 한참후에 얼굴을 들었다. 눈에는 물기가 가득 고여 있었다.

《어머니, 제가 그런 생각으로 그러는줄 아세요? 아니예요.》

그 애는 가까스로 말하고 다시 고개를 수그렸다.

성녀는 의아해 졌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게 무엇이나?》

《…》

《말을 해야 알지.》

《어머니.》 옥실이는 마침내 어깨를 떨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요새… 어머니의 한생을 돌이켜 보았어요. 어머니는 도로를 관리하느라 한생을 바치셨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삽날이 다 닳고 손이 이 지경이 되도록 일했어요. 이제는 예순살도 넘으셨는데… 어머니에게 남은것이 무엇이예요? …》

말을 마친 옥실이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껴 우는 것이였다. 한순간 성녀는 심장이 똑 멎는듯 했다.

(남은것이 무엇이나구? …)

갑자기 숨구멍이 막히기라도 한듯 숨 쉬기가 힘들어 졌다. 너무도 뜻밖에도, 너무도 가슴 아픈 물음 이어서 억이 막힐뿐이였다.

성녀는 가슴 한귀가 무너져 내린듯 싶어 그길로 도로에 달려 나와 두손에 삽을 꼭 부둥켜 안고 목메여 속삭이였다.

(여보, 이런 때는 어쩌면 좋수? …)

(남은것이 없는것이 아니요. 도로가 있소. 당신이 한평생 땀을 바쳐 가꾸어 온 도로가 있소.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길을 지나시지 않소.)

남편은 성녀의 가슴을 부드럽게 쓸어 주고 힘을 돋구어 주었다.

성녀는 이 대답을 그 애에게 해주지 못한것을 후회하였다.

그러나 서둘러 말해 줄 생각은 없었다. 그런 깨달음은 말이나 해주어서 되는것이 아니다. 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고 받아 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기는 목소리에 성녀는 수긋했던 얼굴을 들었다. 길 한옆에서 둘째딸 춘실이 사을 세운채 웃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몸이 보기 좋게 난 둘째 사위가 서 있었다. 성녀는 어느덧 령의 중력에 이르렀던것이다.

《너희들이 수고하누나.》

춘실이네들은 밤사이 에 비를 머금고 길 한옆에 쏘아 저 내린 사태를 쳐내고있었다. 딸의 얼굴에서도 사위의 목덜미에서도 땀줄기가 흘러 내렸다.

《내가 좀 도와 줄가?》

성녀가 사을 들고 사태무지앞으로 가자 춘실이 막아 나섰다.

《어머니, 여기 일은 걱정 말고 욕심이한테로 어서 올라 가보세요.》

《?》

《조금전에 그 애가 <멋쟁이>와 함께 올라 갔어요.》

《그래서?》

《<멋쟁이>는 나를 보더니 몹시 쑥스러워 하더군요! 알고 보니 속이 깊고 생각이 많은 청년이더군요. 한번 꼭 찾아 오겠다고 했어요.》

춘실이는 욕실이 일이 마음 놓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녀의 등을 떠밀어 주는것이였다.

(무슨 다른 일이 있을라구...)

성녀는 딸을 믿고 싶었다. 하면서도 그 애가 이 령길에 다시 찾아 오지 않을줄 알았던 청년의 뒤에 묻어 다니는것이 어쩐지 심상치 않았다. 그는 불안을 털어 버리지 못하고 령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어 올라 갔다.

×

(이 애가 어디로 갔담?)

령길에는 욕실이도 <멋쟁이>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 총각의 꼬임에 넘어 초소를 리탈한것이 틀림 없는듯 싶다. 그 청년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있더니 오늘은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여기까지 한달음에 달려 올라 온 다리땀이 아운하게 풀리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싶었다.

그런 성녀에게는 도로의 비탈면에 쌓은 돌벽이 밤새 내린 비에 몽청 무너져 앉은것이 아프게 눈을 찔렀다! 그것은 그대로 그 애의 마음 한귀가 무너져 내린듯 싶어 더구나 가슴이 아팠다.

도로가 이 지경이 된것도 모르고 이 애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성녀는 더 보고 있을수 없어 팔소매 부르짖고 나섰다. 무너져 내린 돌들을 추어 내고 그 자리에 새로 돌벽을 쌓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런 일쯤은 웬만한 석공 못지 않게 능하게 했다. 손에 잡히는 돌을 이모저모 돌려 가며 하나하나 쌓아 올라 갔다. 마치 그 애의 가슴에 생긴 공백을 메꾸어 주듯 다시는 그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이가 꼭꼭 맞게 돌을 쌓아 나갔다. 사람의 마음도 이 돌벽과 마찬가지로 밀이 흔들리면 무너져 내리기 마련인데...

(여보, 내가 그 애를 잘 키우지 못했어요...)

성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사죄하였다. 그이는 애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키우기를 바랬는데...

이 령길을 받들고 있는 고임돌 하나가 빠져 버린듯 싶어 남편앞에, 나라앞에 죄스럽기만 한 심정이였다.

(너무 상심 마오. 그 애의 마음도 이제 돌아 설거요.)

남편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녀를 지켜 보며 힘을 돋구어 주는듯 싶었다.

성녀는 무너져 내린 돌벽을 거의 쌓아 올라 갔다. 처음에는 우뚝하게 무너져 내려 보기 흉했던 상처 자국이 거의 아물어 저 갔다. 욕실의 마음 한귀가 무너져 내린것을 이렇게 쌓아 올릴수 있다면...

마지막돌을 들어 올리던 그는 그만 손가락 하나가 돌쥘에 찢기였다. 《아!》 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돌을 놓쳐 버렸다. 돌은 비탈아래로 굴러 내려 갔다.

《저 돌을...》

성녀는 손가락의 아픔도 잊고 돌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 갔다. 여기는 돌이 귀해 빈 자리에 대신 놓을 돌이 없었다. 굴러 내린 돌을 끌어 올려다 쌓아 놓아야 했다. 마지막돌을 놓지 않으면 거기에는 빈 자리가 생길것이 아닌가.

돌은 산비탈아래로 굴러 내려 어느 한 나무밑둥에 걸려 있었다.

성녀는 숨돌릴사이도 없이 두손에 힘을 모아 돌을 들어 올렸다. 목직하였다. 돌을 안아 들고 비탈을 가까스로 오르기 시작했다.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돌의 무게가 점점 실리면서 팔이 떨어 질듯이 아팠다.

그래도 돌을 놓쳐 버릴가봐 안간힘을 쓰며 비탈을 한걸음 두걸음 툭아 올랐다. 온몸이 천근처럼 무거워 지고 숨이 턱에 닿았다.

그렇게 힘겨웁게 오르던 그는 손땀이 풀리면서 그만 돌을 떨구어 버렸다. 그 순간에도 어푸러지며 돌을 부여잡아 요행 놓쳐 버리지는 않았다.

성녀는 숨을 모두 쉬고 다시 돌을 들어 올리려
고 했다.

몇번이나 추석거렸으나 손뭍이 풀려 떨구어 버리
군 했다.

(이젠 뭍이 진해 버렸는가…)

성녀는 몸을 더 지탱하지 못하고 비탈진 풀밭에
누워 버렸다. 돌 하나도 들기 힘들 정도로 자기 몸
이 갑자기 쇠진해 진듯 싶어 가슴에 그 어떤 서글
픔이 밀물처럼 흘러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 역시 나이는 속일수 없는듯 하다. 제다
가… 오늘은 옥실이가 안겨 준 정신적타격으로 해
서인가…

(일어 나야 한다.)

성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몸이 땅에 들어 붙은듯 움
쩍할수 없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었다.

성녀는 눈을 감았다. 온몸이 땅으로 잦아 드는듯
하다. 여기서 영영 일어 나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
이 일어 가슴이 서늘해 졌다.

얼마후에 눈을 뜨니 새파란 하늘이 가없이 펼쳐
졌다. 태양은 눈 부시고… 목화송이 같은 구름이 두
둥실 떠올려 갔다. 풀판에 넘치는 따사로운 햇빛,
싱그러운 풀향기, 어디선가 울어 대는 풀벌레의 단
조로운 울음소리…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나의 한
생이 흘러 갔구나. 굽이굽이 에돌아 올라간 령길치
럼 나의 한생은 길었던가 짧았던가.

수십년 세월 눈비를 맞으며 구슬땀을 바쳐 길을
관리해 온 그 힘은 어디에 원천을 두었던가.

1년에도 몇차례씩 이 령길을 넘나드시는 어
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뵈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 이제는 한분밖에 계시
지 않는 우리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그 일념에서
였다.

(아, 장군님을 뵈옵고 싶구나…)

그이를 만나뵈오면 가슴속에 쌓인 소원을 아뢰일
수 있으련만…

성녀의 가슴은 그리움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눈을 습벅이자 눈귀에 가득 피었던 눈물이 랑불
을 타고 주르르 흘러 내렸다.

성녀는 다시 온몸에 힘을 주어 가까스로 일어섰
다.

그때였다.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와 함께
길에서 옥실이가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 왔다.

그는 옷이 구겨져 있는 성녀를 보고 놀라 물었
다.

《어머니, 왜 여기 내려 와 있어요?》

《이 돌이 굴러 내려 와서…》

성녀는 옷에 묻은 검부레기를 손으로 털어 냈다.

그러는 그의 손가락 하나가 찢긴것을 본 옥실이
는 두손으로 그 상처자국을 조심히 어루만지였다!

《저때문에 저때문에… 어머니가…》

옥실이는 울먹이며 내의아래도리를 끄집어 내여
그 한돌기를 찢어 냈다. 그 천으로 어머니의 상한
손가락을 찬찬히 감아 주었다.

《그런데… 어디를 갔었나?》

성녀는 엄한 눈길로 딸을 바라보았다. 옥실은 어
머니의 두손을 꼭 잡고 목 메인 소리를 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속을 태워드
렸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에서 실연을 당한후 도
로관리원의 영예를 잃어 버리고 일시적으로 동요를
했다는것, 어머니의 속마음을 모르고 가슴아픈 소
리도 했다는것을 고백하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 뜻밖에도 그 동무가 찾아오
지 않았겠어요. 새 탐사지로 떠나면서 나에게 할 말
이 있다고… 자기는 그동안 우리 가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오늘에야 어머니를 다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어머니를 다시 뵈고 싶
은데 아직은 면목이 없다면서… 후에 찾아 오면 받
아 주겠는가고 했어요. 그 동무를 보석골로 바래주
느라고 그만…》

이렇게 말하고난 옥실이는 성녀의 두손을 꼭 부
들켜 잡고 눈물을 비오듯 떨구었다.

《저는 어머니의 이 손이 얼마나 소중한것인지 오
늘에야 알게 되었어요. 이 손으로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나요. 어제날에는 내가 어머니의 손
에 대해 아무것도 쓰지 못했지만… 오늘은 글짓기
를 다시 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이야말로 보배로
운것이라고 이 땅에 쓰고 싶어요…》

《됐다. 그만하거라.》

성녀는 거치른 손으로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 주었다. 눈물에 젖은 그 애의 고백을 듣고나니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스스로 풀어져 내리는듯 싶
다. 두눈이 빛나고 발그레하게 달아 오른 딸의 얼굴
이 이 순간에는 더욱 청초해 보였다.

마음의 진통을 겪고 난 인간은 이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자, 이젠 올라 가 돌을 마저 쌓자.》

성녀는 온몸에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돌을 안아
든 옥실이를 앞세우고 비탈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
다. 령길에 오른 어머니와 딸은 돌담의 빈자리에 마
지막돌을 올려 놓았다. 그들이 다시는 무너져 내리
지 않게 몇번이나 고쳐 가며 든든히 박아 놓았다.

(여보, 기뻐 하세요. 이젠 옥실이도… 자기 자리
를 잡았어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이제는
아버이장군님을 부끄럼없이 뵈울수 있게 되었어
요.)

성녀는 윤기 도는 sap을 두손에 꼭 그리쥐고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였다.

×

그로부터 몇달후 김성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는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구룡령마루에서 자신과 가족소대원들을 친히 만나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이 령을 넘으실 때마다 도로를 알뜰히 관리해 온 주인들을 보고 싶었었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날이 절반으로 줄어 든 성녀의 sap을 손수 들어 보시며 그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었다.

그러시고나서 장군님께서서는 뜻밖의 영광에 몸둘바를 몰라 하며 옷섶으로 가리려는 성녀의 크고 마디진 손을 오래도록 잡으시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남자들 손보다 더 힘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것을 이 손이 다 말해 줍니다. 보배손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해별과 바람에 검실검실하게 탄 그의 얼굴과 거쿨진 손에서 그의 한생의 신념과 고결한 량심을 읽고 계시는듯 싶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성녀가 오랜 기간 도로관리원으로 성실히 일했을뿐아니라 온 가족을 도로관리원으로 키워 내며 인적 드문 령길초소를 지켜 가고 있는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들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고임돌처럼 묵묵히 받들고 있는 애국가정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족소대원들을 자신의 곁에 불러 주시며 령길에서 만난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실 때 성녀는 감격으로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견잡을수 없었다.

그처럼 바쁜 시간을 내시여 오랜 시간에 걸쳐 령길에 꽃 피여 난 가지가지 이야기도 들어 주시고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와 자작시도 들어 주실 때 성녀는 북받쳐 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도 헤어지기 아쉬운듯 얼마쯤 달리던 차를 멈추고 밖으로 나오시여 또다시 그들에게 손을 저어 주시었다. 아버이장군님을 우러러 성녀와 가족소대원들은 뚫어 오르는 걱정으로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며 허리 굽혀 인사를 드리었다.

영광의 절정에 오른 성녀의 두볼로는 뜨거운 걱정의 눈물이 흘러 내렸다. 령길을 지켜 무수한 낮과 밤을 보내면서도 진정 오늘과 같은 벽찬 순간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가. 세월의 눈비속에 한생을 바쳐 이 길을 다지고 다져 온것은 정녕 오늘을 위해서가 아닌가.

《어머니, 오늘이라는 평범한 하루에 어머니의 빛나는 한생이 비껴 있어요.》 옥실이는 어머니의 마디진 손을 꼭 잡아 쥐었다.

바다가에서

황승명

썩-철썩

쳐철썩- 쿵광

밤낮으로 쉬임없이 기슭을 치며

이 가슴을 흔드는 파도소리 파도소리

절벽에 부딪쳐 부서 진다고

산산이 흩어 지는 물방울이라

또다시 뭉치여 와와 밀려 드는

도도한 파도

바다의 저 툄동

저 음향은 정녕

언제나 굴함없이 대고조로 내닫는

내 조국의 장엄한 전진의 기상이여라

아, 물머리 높이 추켜 들고

갈기를 날리며

바다는 지금도 소리높이

승리를 웨치네

-보아라

내밀에 덩구는 모래알이 있다

그것도 한때는

산악 같은 바위돌이었느니라

제것이 있어야 노래를 남긴다

홍현양

내가 이 글을 쓰려고 붓을 드니 지금도 가슴에
과고 드는 한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

《이 내용을 어디에 얹히면 더 좋겠습니까?》

시인 정문향의 부고였다.

《문학신문》 편집국장이 신문편성안을 가지고 그
때 내 방에 들어 와 물어 본 말이었다.

그 순간 나의 눈엔 글줄들이 밝혀 온것이 아니라
먼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는것을 감출수가 없
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인의 한생을 귀중히 여기
시고 중앙신문들과 《문학신문》에 부고를 내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려 주셨던것이다.

그해 몇달전만 해도 지평이에 몸을 의지하고 출
판사에 들리어 나를 만나주었던 로시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날 창밖의 거리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수일들에 맺혀 있는 비물방울들이 마치 우리
의 슬픈 마음을 대변해 주는듯 소리없이 툭툭 떨어
지고 있었다.

작가로서 제것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던 로
시인이었다.

참으로 그는 작가로서 제것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주는것이 로시인의 정이였고 동지의 사랑
이 아니었던가.

함경북도 무산군 어느 시골에서 태어난 그는 꿈
 많던 소년시절부터 문학에 뜻을 두었으나 식민지강
토의 자갈밭우에서는 희망의 싹을 틔울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신 그해 12
월에 서정시 《승리의 서한》을 세상에 내놓았다.

주체37(1948)년 하반기에는 서정시 《대의원이
나서는 구내》를 발표하여 우리 문학사의 한페지에
남기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0(1951)년 2
월에는 서정시 《그는 이렇게 걸어 갔다》를 《로동
신문》에 발표하여 굴하지 않은 조선녀성들의 백절
불굴의 기개를 온 세상에 보여 주었다.

이 시기까지의 작품들만 간단히 보아도 시인 정
문향의 개성적특징이 살아 있을뿐아니라 30대에
벌써 중견의 자리에 오른것을 잘 알수 있다.

정문향은 사색형의 시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직 주체의 관점과 입장에 튼튼히 서서 자
주적인 인간의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창작적사색
을 무르익히며 왕성한 열정을 내어 창작활동을
벌릴때에만이 인민대중이 좋아 하는 새롭고 독창
적인 형상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체의
관점과 입장에 서서 자주적인 인간의 생활을 깊이
연구하는 창작적사색을 게을리 하지 않는것이 작가
의 본분이며 새롭고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할수 있
는 기본 비결이다.

사색활동을 작가의 기본 로동수단으로 삼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속에 붓을 달렸기때문에 시인 정문
향은 우리 혁명의 매 단계마다 기념비적인 작품들
을 남길수 있었으며 제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도 되였다.

내가 시인 정문향과 처음 사귀게 된것은 그의 첫
서사시 《새 세대의 노래》를 담당편집할 때부터였
다.

주체58(1969)년 봄 나는 시인 정문향의 서사시
를 작업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평안남도 성천군에
있는 성천로동자휴양소로 떠났다.

시인과 나는 대동강역에서 기차를 타고 려행을
시작하여 그날 점심시간 좀 못 미쳐서 성천역에 내
리였다.

석비레를 깨끗하게 깔아 놓은 농촌길을 우리는
즐겁게 봄향기를 맡으며 걸었다.

우리가 도착한 휴양소는 성천읍에서 한 10리가
량 떨어져 있는 비류강기슭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서있는 산릉선에 여러채의 각으로 나뉘여 저 있었
다.

시인과 나는 아담하게 꾸려 진 휴양소의 어느 한
호실에 들었다.

이러한 생활조건은 창작과 편집활동뿐아니라 많
은 문학이야기들을 나눌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에게 주었던것이다.

소탈한 품성과 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 문학에 대
한 박식은 머리속에 산만하게 정리되지 않은채로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하여 자기의 일가견
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공식처럼 정립해 놓고
있었던것이 시인의 특징이였다.

때문에 시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모든것이 명백하
고 얻는 지식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나는 시인 정문향과 사귀후 수십년 세월 교제를
하면서 작가로서 제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
람이라는것을 재삼 느끼곤 하였다.

작가로서 제것이라면 우선 정신력을 들수 있으며
창작적재능과 풍부한 경험, 그에 기초하여 정립되
고 체계화시킨 문학적론리라고 볼수 있다.

정신력의 핵이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민족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신념이라면 창작적재능
과 풍부한 경험은 이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철학적
으로 형상해 내는 능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라면 쓰기만 할것이 아니라 이 능력에 토대하여 붓이 낳은 실천을 하나하나 정립시키고 체계화한 자기의 문학적론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체계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시인이 작품창작에 관한 문제를 자기의 실천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논리적으로 정립하여 가지고 있는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성천로동자휴양소에서 서사시 《새 세대의 노래》를 같이 작업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는 작가가 되자면 어떠한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것을 거듭 생각하게 되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투를 진행하던 날 어느 저녁에 식사를 마친후 시인은 나 보고 비류강가에 나가 소풍을 좀 하는것이 어떠냐고 제기하는것이였다.

나는 그에 쾌히 응하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저녁노을이 서편 하늘에 스러져 가고 있는 강기슭을 말없이 걸었다.

장마철때마다 강물이 밀고 나간 기슭의 자갈밭을 한참 밟고 내려 가던 시인은 나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하는것이였다.

《홍동무, 강 건너 저 벼랑이 어떻게 보이오?》

시인이 불의에 들이대는 물음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몰라 망설이고만 있었다.

《사색을 하지 않누만.》

《예?!》

《나는 저 벼랑이 수백리 전장에서 달려 온 옛 장수가 자기 애마의 타는 목을 추겨 주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오.

말고뻘을 잡고 말없이 기슭에 서 있는것 같지 않소?》

시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강변의 벼랑바위가 그렇게 안겨 왔다.

《아, 신통합니다. 장수가 서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 보라구. 나는 작가로서 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동무는 놀고 있었던 말이요.》

좀 무안했지만 무엇인가 나의 머리를 툭 쳐주는 충격적인것이 있었다.

갑자기 잔잔하던 강물위에 바람이 일며 물향기가 풍겨 왔다.

같은 작가로서 같은 순간에 같은 대상을 보며 한 사람은 로동을 하고 한사람은 놀고 있다는 이 리치가 20대 나이였던 나의 가슴속에 새로운 세계를 펼쳐 주는것이 있었다.

《동무는 사색을 하지 않고 있소. 작가의 로동은 붓을 들고 쓸 때만 하는것이 아니라 굴진처럼 선행시켜야 하는 사색에 있소.》

그러면서 시인은 어느 명절날에 어떤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거리에 가족, 친구들과 같이 나와 거닐며 그야말로 허리띠를 풀어 놓고 하루를 즐기고

있을 때 그속을 걸어 가고 있는 작가 한사람만은 휴식을 못하고 로동을 한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즐기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속에서도 작가는 아이와 로인들, 젊은 사람들의 웃음을 보며 머리속에서 부단히 묘사해 보고 부단히 느끼며 부단히 작품의 종자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사색을 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단 한초라도 중단한다면 작가는 죽은 목숨이나 같다고 하면서 사색하는 방법론을 깨우쳐 주었다.

시인 정문향이 사색형의 사람이라는 이 말속에는 그가 이러한 작가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작가수업을 게을리하지 않은데 있는것이다.

이렇게 되여야 현실이 대학이 되고 체험이 말 그대로 작가의 부단한 로동의 련속과정으로 이어 질수 있는것이다.

붓을 들기전에 일상적으로 사색을 선행시키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한 작가는 자기 작품에 기쁨을 칠수 있다.

생활의 향기, 생활의 철학을 입히는것이 문학의 맛이며 작가가 치는 기쁨이다.

그날 저녁 비류강기슭에서 나는 문학이야기들이 방에 돌아 와 작품에 대한 수정방향을 토론하면서 계속되었다.

시인은 자기 작품에 애정선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나는 서사시의 주제가 새 세대 청년들에 대한 문제인것만큼 사랑선이 꼭 있어야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주인공 강철림이와 송순이와의 사랑관계가 설정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애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하는것을 보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고 있던 시인이 갑자기 《동무는 사랑해 보았소?》 하는것이였다.

나는 《예.》하고 무의식적으로 대답하였다.

《개가 한창 쏘아 지겠구만. 부럽소,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지 않았겠소.

당해 보지 못한 일을 작품에 그리자니까 힘들구만.》

솔직한 시인의 인생담이였다.

《그래두 무슨 처녀 이야기가 있겠지요 뭐.》

《하하, 있긴 있는데 눈물이 나서...》

그 사연을 듣고 싶어 나는 시인곁에 무릎을 바짝 가져다 대고 졸라 대다싶이 하였다.

담배를 무척 즐기던 시인은 물주리에 새 가치를 끼워 불을 붙인후 방안에 안개처럼 한모금 연기를 퍼워 올리였다.

시인이 물주리를 쥐고 있는 손의 둘째손가락 끝마디가 잘려 있는것이 유묘하게 나의 눈에 들어와 박히며 가슴을 허비였다.

《그 손은 언제 다쳤습니까?》

《이거 말이요? 만주에서 그렇게 됐지!》

정문향은 스무살소리를 하던 애젊은 나이에 살길을 찾아 만주로 들어 갔었다.

처음 자리 잡은 곳이 어느 광산이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일을 하던 시인은 한쪽 손의 손가락을 잃는 가슴 아픈 불행을 당했던것이다.

더는 거기에 있을수가 없어서 다시 광산을 떠나 북행길에 방랑자처럼 오른 정문향이 정처없이 걸어가닿은 땅이 내몽골 황막한 반사막 초원이었다.

소와 말들의 배설물들을 말려 가지고 불을 때는 토착민들의 풍토생활이 조선사람에게 맞을리가 없었다. 고향의 맑은 샘물을 한조롱박 마시고 싶은 모진 갈증이 미칠것처럼 시인의 가슴을 매일 지지며 파고 들었다.

그러나 망국노에겐 돌아 갈 나라가 없었고 태줄 묻은 땅의 한모금 물마저 마실 권리가 없었다.

밤이면 백두산바람을 타고 들려 오는 꿈 같은 항일의 전설적이야기들이 시인의 젊은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하였다.

(조국이 해방될 날은 언제일가?)

이국의 황토바람을 맞으며 그날을 목 마르게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살아 가는 고행길이었다.

그러던 시인의 운명에 조국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셨다!》

민들레꽃씨처럼 황막한 이국의 산야에 휘뿌려졌던 백의민족의 가슴속에 환희의 눈물, 걱정의 눈물을 터쳐 준 하늘땅을 진동시킨 그 소식이 정문향의 마음속에도 날아 들었다.

《가자! 조국으로!》

《여보게들, 이제는 두만강을 춤 추며 건너 가세!》

조선사람들이 하얗게 길을 메우고 산을 덮으며 조국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었다.

그속에 시인 정문향도 끼여 두만강을 목표로 삼고 떠났으나 장춘을 지나 길림을 앞에 두고 그만 열병에 쓰러졌다.

고열속에 혼미해지는 의식, 사람의 얼굴도 가려 볼수 없는 처지에 놓인 정문향에게 자기 몸을 눕힐 손바닥만 한 구들조차 없었다.

길가에서 그대로 무주고혼이 되는가 아니면 기여 서라도 끝까지 조국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시인은 기여 가는 길을 택하였다.

한치 또 한치 몸이 가는지 발이 가는지 알수도 없이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그를 조국으로 물밀듯이 흘러 가던 조선사람들속에서 다행히도 한 가족이 동정하여 감싸 안아 주었다.

그날부터 시인은 그 가족이 되었다.

이름도 고향도 알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한겨레, 한피줄이라는 뜨거운 정이 가를수 없는 한가족으로 만들었던것이다.

그 집에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처녀의 무릎을 베고 한술 두술 떠주는 미음을 받아 마시며 간호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8월의 대륙풍이 비를 몰아 오면 길가에서 한장의 우장아래 시인을 눕히고 처녀는 물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들의 옷이 젖는줄도 까맣게 잊고 병치료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그들은 15일 가까이 걸어서 두만강가에 이르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처녀의 가룩한 마음과 그 집 부모들의 눈물겨운 사랑이 약이 되어 정문향은 기적같이 일어 나 땅을 다시 밟았다.

그렇게도 오고 싶던 조국산천을 다시 바라보는 시인의 두눈에 뜨거운것이 축축히 고여 올랐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마운 처녀의 그후 운명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다.

《그때 그 처녀가 지금 선생의 부인입니까?》

《아니요, 운명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소.》

《그러니까련정의 불은 서로 달지 못했구만요.》

《그렇소, 어디 그럴 경향이 뻬소.》

그러나 나는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겨레의 피가 얼마나 진한가 하는것을 방랑생활과 죽음의 문턱에 서서 절감하였소.

그 처녀가 내 심장에 심어 준 셈이지...》

시인 정문향은 이처럼 피와 눈물에 절은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조국을 자기 서정시의 총체로, 작가의 세계로 형성시키고 살았다.

작가는 자기의 세계를 이렇게 형성시켜야 한다고 본다.

시인 정문향은 그것을 창작실천을 통하여 보여 주었으며 또 깨우쳐 주었다.

그는 전후 가장 어려운 때인 주체 45(1956)년 겨울 5호농장(대흥단군종합농장)에 나가 오래동안 현지체험을 한것을 긍지를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 보곤 하였다.

시인이 현지체험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던 곳이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개척하신 농장이다.

누빈 솜옷 한벌을 입고 장작불이 활활 타는 난로에 감자알을 넣어 구워 내는 그야말로 백두산맛이나는 귀틀집에서 조국과 땅에 대한 시를 써가던 그 시절은 시인이 작가로서 자기의 세계를 완성시켜가던 소중한 시절이었다.

아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한 서정시 《조국땅 한끝에》가 이때 창작되었고 명작으로서 우리 문학사에 남길수 있었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시인은 서정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 《조국에 대한 생각》을 내놓았고 시집 《승리의 한길에서》를 출판하였다.

수십년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시들을 수많은 창작한 정문향은 로시인으로서 작가동맹 기관지들에 대한 관심도 남달리 크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중에 속한다.

그가 평양에 올라 올 때면 늘 출판사에 들리어 잡지 《조선문학》에 나간 작품들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의견을 말해 주는것을 습관처럼 여겨 왔다.

그것처럼 편집일군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깊었고정이 남달랐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번 올라 올 때에는 개성특산 약재들을 구해 가지고 와서 병치료에 쓰라고 주곤 하였다.

시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들 그 누가 말할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작가들의 지면을 두고 늘 생각하고 있는 시인 정문향의 인간적품모를 엿볼수 있는 작은 일화에 불과하다.

시인은 생의 말년에 심한 병으로 신고하고 있었지만 편집부에서 청탁 받은 글들은 군말없이 무조건 써주는 《작가의 행군》을 멈추지 않았다.

서정시 《나는 너를 떠날수 없다》는 시인이 잡지 《조선문학》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작품이다.

분별된 조국의 아픔을 두고 개성을 떠날수 없다고 웨친 시인의 이 심장의 호소가 겨례앞에 남긴 마지막서정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인이 우리 주체문학건설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하시여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김일성상》을 수여해 주시고 설날과 중요 계기때마다 신년축하장과 사랑의 선물들도 친히 보내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시인은 림종의 시각 《생각 많은 한생이 한 일없이 문혔도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의 많고 많던 생각이 바로 창작과 실력으로 제 것으로써 당을 충실히 받들어 온 마를줄 모르는 사색이였으며 한 일 없다는 그 말속에 력사에 새긴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들어 있다고...

시인은 제것을 후대들에게 주었고 또 남기였다.

라남, 그 이름 불러 보면

박두천

라남 그 이름 불러 보면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의 열풍인듯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불 타는 고장

날마다 새 기적을 창조하는 부름으로

이 가슴 울려 주고

라남 그 이름 새겨 보면

《고난의 행군》의 가장 어려운 시기

자기 수령을 어떻게 옹위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 준 충신의 모습으로

이 심장 불 태워라

누구나 한알의 쌀알이 더없이 귀한 그때

그들을 자기자신보다도

먼저 나라를 생각했고

장군님을 그리며

미래를 내다보며 살았다

《자력갱생》기지를 하나 건설해도

실리를 따져 가며 일떠세웠고

기대앞에서 열번을 쓰러지면

백번을 다시 일어 설 각오로

장군님 주신 명령지시에 충신했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

먼 외국방문의 그 피로도 뒤로 미루시고

라남의 로동계급부터 찾으신것 아니던가

그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온 나라에 불길로 지펴 주시려

그 불길이

오늘은 이 가슴에 타번진다

온 나라에 봉화되어 세차게 타번진다

21세기 첫해에 타올랐던 그 불길

수령님탄생 90돐을 맞는 올해의 날과 달을

붉게 물들이며 세차게 타번진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도 이 봉화로

우리 사상제일주의도 이 봉화로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도

라남의 봉화로 온 세상에 보여 주리라

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보란듯이 강성대국 일떠세울 그날까지

라남의 봉화여 너는

우리의 모습, 조선의 모습으로

활화산마냥 치솟아 타오르라

녀인의 노래

럼형미

아름다운 행복의 옷은 녀인이 뜬다네
기쁨과 때로 아픔이 엉킨 생활의 실토리
녀인의 작은 두손에 풀려 나가네
인생은 다시 뜰수 없는 뜨개질과 같아
만약 한코를 놓친다면
불행의 흠집은 날로 커지리

아, 녀인이여 불 같은 사랑으로
마지막 한코까지 뜨고 또 뜨라
정다운이들에게 입혀 줄
아름다운 행복의 옷은
성실한 녀인만이 지을수 있다네

아기를 업은 엄마 넘어 질수 없듯이
사회주의 어머니는 곳곳이 걸어 가리
애끓는 눈빛으로 요람을 다독이고
창조의 두손으로 생활의 뿌리 가꾸는
강직한 이 나라 녀인들 있어
부강의 조국은 일떠서리라

아, 녀인이여 사랑의 시작도
사랑의 마무리도 그대가 맺는법
정다운이들에게 입혀 줄
아름다운 행복의 옷은
굳세인 녀인만이 지을수 있다네

엄마의 속삭임

리명옥

(1)

아가,
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좀 있으면 해님이 온대
너와 놀고 싶어
창문가에 밤 새도록 내려 앉았던 저 별들이
네가 눈을 뜨면
너의 눈에 몽땅 뛰여 들것만 같구나
어서 눈을 뜨렴
이 엄마도 기쁘게
저 별들도 기쁘게
어서 반짝-새벽별이 되어 주렴
아이, 방긋 웃는걸 보지
옳아, 넌 지금 꿈나라에 가있는거지
너의 그 나란 어딜가
빨간 사과랑 주렁진 사슴동산일가
매매랑 야옹이랑도 있는...
거긴 웃음할아버지 옛말할머니만 사는지도 몰라
옛말에 나오는 신선그네에 널 태워
훨훨 달나라로 보내려는지도 몰라
그럼 넌 계수나무동산에서
이 엄마도 있고
옥토끼와 강충충을 추겠지
그리곤 어디론가 어디론가 또 가고...
어마나, 그건 안돼
어서 내려 와, 어서
달나라 희한해도 엄마가 없단다
옥토끼 좋아도 새참시간은 없단다
꽃들은 교와도 요람은 없지

네가 잠든 이 요람보다 더 포근한 보금자리가
어디에 또 있겠니?
이제 잠을 깨면 포동손 퍼들고
네가 배운 그 몇마디 말로
맘마 달라 속삭일 때
네 소원하는것이면
이 세상이라도 통채로 안겨 주고 싶어 하는 엄마
그런 엄마가 어디에 또 있을줄 아니?
아가, 이 엄마 너 없인 못 살지
너는 이 엄마의 꿈이고 행복의 전부야
그 꽃잎 같은 입술에 피여 나는
한줄기 웃음에도 이 엄마 한생을 엮는거란다
너의 그 보듯한 손이
잠결에도 젖품을 파고 들때면
온 세상을 안은듯 행복해 지는거란다
세상에서 제일 진귀한 나의 보배덩이- 너를
누가 따듯이 품에 안아 주고 있는지...
두볼에 힘껏 입 맞춰 보는 나의 아가가
이 엄마의 더없는 행복을 위해 태어난
기쁨의 새- 나의 아가가
나라가 그토록 어려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장군님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자고 태어난
너는 어머니조국의 아름다움!

(2)

우리 아가 잠자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어쩌면 저리도 평온하겠습니까

새근 새근-
 새물 새물-
 인생의 평온이 우리 아가에게 모두 깃든가 봅니다
 웃으며 뒤채며
 온밤을 자고
 해님이 동산에 저렇게 높이 솟았는데
 이 아침도 그냥 꿈나라에 있으려는지...
 아, 할머니 깨우지 마세요
 마음껏 꿈나라를 즐기게 그냥 듭시다
 탁아소야 좀 늦은들 뭐랍니다
 저 평온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길이길이 그 꿈이 복되어 지라
 아빠, 엄마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지금 낮과 밤을 잊고 사는게 아닙니까
 저길 보십시오
 어제밤 우리 집 창가에서 아가의 두손에
 껌껌 녹아 나던 긴팔 기증기가
 하늘중천에 높이 뿔었습니다
 일터로 가는 아버지가 입 맞춰 주며
 무슨 약속을 남기고 갔는지
 아가는 아는듯 모르는듯
 또 한번 덩굴며 웃으며 잠만 잡니다

어쩌면 이리도 곱습니까 아가의 잠이
 엄마도 잊은듯 한 그 깊은 잠속에서
 우리 아간 고운 꿈을 꾸니다
 그 꿈이 자랄 때
 아빠에겐 놀라운 기적이 솟아 나니
 우리 아가의 잠은 착한 잠
 우리 아가의 잠은 복잠
 이제 깨여 나면
 어제보다 한뼘은 더 자랄 우리 아가
 보동보동 고운 살 오르고
 웃음 방실 피여 날 우리 아가
 억센 그 생명의 태동을
 원썬들은 제일 무서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가가 래일의 뜻이기때문입니다
 우리 혁명이 내다본 승리한 언덕에 뽀
 꽃이기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가가 꿈속에서 웃습니다
 우리 조국의 래일이 웃는겁니다
 장군님 가꾸시는 그 미래가
 벌써 웃고 있습니다
 아, 그 미래
 내 조국의 그 미래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머니의 흰 머리를 빗어 드리며

리득규

이제는 검은 오리라군
 하나도 없는 어머니의 흰 머리
 내 정히 빗어 드리니
 만시름 다 놓으신채 잠드시였네

치렁치렁 젊음은 어디 가고
 어이하여 거뿔한 백발만 드리웠는가
 오리오리 흰 오리마다
 뜨거운 마음이 실리는가

이 딸을 키우실제
 버드나무아래 빨래함지 옆에 놓고
 가리마 곱게 빗어 넘기던 그 검은 머리
 눈이 시여 다시 뜨고 바라보던 어린 시절...
 오늘은 그 머리를 제가 빗어 드리나이다

한생을 머리수건밑에 감추고
 뜨는 해 지는 달을 벌에서 맞으며
 높이 쌓은 버넌가리우에
 이 딸을 둥둥 태워
 조국의 딸로 키워 주신 그 마음

그 젊디 젊었던 검은 정기를
 내 머리에 다 옮겨 주시고
 백발마저
 이 딸 위해 바치시는 그 마음

농장벌 어디에나
 내 발길 닿지 않은 곳 없어도
 발길 닿는 모든것
 자욱자욱 먼저 앞서며 타이르시는 어머니

오, 어찌 보면 숭고한 녀이런듯
 이 마음 죄송스런 가책이런듯
 수고 많은 백발앞에서
 한점의 티라도 앓을까봐
 내 마음을 빋고 빋는 이 딸이웁니다

어머니의 흰 머리를 빗어 드리는
 이 딸만이 느낄수 있는 뜨거움이
 일 잘하는 자식을 옆에 두신
 어머니만이 받을수 있는 진정이
 한데 엉켜 흐르는 뜨거운 백발이여

몸도 마음도
 내 무릎에 다 맡기신 어머니
 어머니 걸어 온 두렁길을 내 걸으며
 어머니 가꿔 온 이 땅을 내 가꾸며
 한생을 빗내갈 이 딸이
 아 어머니시여
 신성한 그 백발을 정히 빗어 드리나이다!

유산에 대한 생각

최상기

황해남도토지정리전투가 마감단계에서 한창이던 올해 초 어느 날 남포시 강서구역돌격대가 전투를 벌리고 있는 연백벌에 취재를 나갔던 나는 지난해 봄에 만난적 있는 한 녀성불도젤운전수를 만나게 되었다.

거방진 불도젤을 드다루느라 더욱 억세여 진듯한 녀인은 세련되고 능란한 솜씨로 불도젤을 몰아가고 있었다. 단독으로 한 전구를 당당하게 말아안고 나가는 그를 보니 마음이 무뎠기 빼 났다. 지난해 봄 철까지만 해도 남자기능공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운전할수 있었던 그였다. 그런데 지금은... 벽찬 나날과 더불어 녀인은 자신을 높이 끌어 올린 것이다.

벌의 기본면적은 다 정리되고 구석구석에 남은 포전들을 정리하느라 불도젤들은 대다수가 분산되어 작업하고 있었다.

《농장원들이 무척 좋아 하겠군요. 이렇게 품이 많이 드는 대상들까지 정리해 주시...》

나는 입술을 옥물고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산더미 같은 흙밥을 밀어 가는 녀인의 곁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지난 날 같으면 이런 다락논처럼 높낮이 차이가 심하고 논배미들이 오롱조롱한 포전들은 토지정리대상에서 외면 당하기가 쉬웠으며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기가 일쑤였다.

녀인의 꼭 다문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가 물결쳐 갔다.

《정말 좋아 한답니다. 실제로 토지정리의 덕을 보아야 할 포전들은 이런 다락논들이었다고...》

연유, 부속, 기일... 이러저러한 사정을 내세우면서 하느냐 마느냐를 론하던 우리들이 막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우리 조국땅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잠을 좀 덜 자는 한이 있더라도 후대들에게 한점 티도 없는 유산을 땀땀이 물려 주자, 후날의 세대들이 우리 조국의 역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선군혁명시대에 대해 추억하게 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수행한 토지정리가 얼마나 완전무결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이 대지에 새겨 주자, 우리는 바로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펼쳐 나섰습니다.》

나의 가슴은 찌르르해 났다.

이들,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그토록 뜨거운 열망과 지향이 깃들어 있는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한점 티도 없는 유산을 땀땀이 물려 주자! 나의 귀전에는 녀인의 말이 크나큰 의미를 안고 증폭되어 울려 왔다.

나는 숨얼한 감정에 휩싸여 불도젤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규모 있게 정리된 크고 넓은 포전들과 곧게 뻗어 나간 포전도로며 관개수로들이 뜨겁게 안겨 온다.

그렇다. 이것은 우리 선군시대사람들의 피와 땀, 뉘이 스민 귀중한 유산이다. 우리는 실로 조국과 민족 그리고 력사앞에 얼마나 큰 일을 해놓았는가. 선대가 후대들에게 물려 주는것이 유산일진대 이 땅보다 더 귀중한 유산이 어데 있으며 이 땅을 풍만하게 기쁨지워 넘겨 주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데 있으랴.

그래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토지정리사업은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만년대계의 애국위업! 새겨 볼수록 마음이 뿌듯해 진다.

강토는 민족의 삶의 터전이며 보금자리이다. 강토를 떠나서 어찌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으랴. 하기에 우리 민족은 언제나 이 땅을 생명처럼 지켜 왔고 심혼을 바치고 정력을 바쳐 가꾸어 왔다.

하지만 반만년 우리 민족사의 갈피갈피를 다 뒤져 보아도 전면적이고 대규모적인 토지정리와 같은 국토변혁의 력사는 찾아 볼수가 없다. 하긴 구태여 력사기록을 들쳐 보아 무엇하랴. 말 없는 력사의 증견자인 저 대지가 실물로 그것을 보여 주고 있지 않는가.

눈부리 아득하게 끝간데없이 펼쳐 진 대평원, 이제 우리의 후대들은 몰라 보게 변모된 이 땅에서 천대만대 행복하게 살아 갈것이니, 정녕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흐뭇해 지고 가슴은 긍지와 자부로 부풀어 오른다.

유산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고결한 뉘이 스며있고 숭고한 지향이 깃들어 있다. 선군시대라는 그 이름과 더불어 영원토록 전해 질 이 만년대계의 애국위업- 토지정리에 바쳐진 인간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래일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숭고한 희생정신은 또 얼마나 고상하고 깨끗한것인가.

나에게는 이 녀인이 불도젤운전대를 잡게 된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기 토지정리전투장에서 순직한 녀인의 남편은 원래 건강상태가 시원치 않아 돌격대명단에서 빠졌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며칠동안 모대기던 끝에 《가야 해. 이 사정 저 사정하면서 하나 둘 빠지면 우리 장군님의 구상을 누가 실현하겠는가.》하면서 기어이 돌격대에 참가하여 건강한 사람이상으로 신바람나서 떠나갔다고 한다. 남편이 무엇때문에 부득부득 떠나는가를 잘 아는 녀인은 남편을 붙잡을수가 없었다.

그들은 평범한 노동자부부였다. 그러나 당에서는 그들의 두 아들은 남포제1고등중학교에서 공부시켜 주었고 딸아들은 졸업후 대학에 입학시켜 주었다. 그때문에 남편은 더욱 피로와 하였다. 병약한 자신은 당과 조국을 위해 너무나도 한 일이 없는데 당에서는 자식들의 재능을 귀중히 여겨 주고 활짝 꽃 피워 주니 이 사랑,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으랴...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토지정리전투장에 달려 온 그는 억척같이 일했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뛰쳐나와 다시 조종간을 틀어 쥐었고 동무들이 만류하면 제발 내 생명을 끊어 놓으려 하지 말라고 눈물겹게 사정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끝내 불도젤운전칸에서 조종간을 틀어 천채 순직했다고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토지정리전투장에서 순직한 한 평범한 불도젤운전수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가슴 아파하시며 그의 가슴속깊이에 간직된 소망을 헤아려 주시여 그를 화선입당시길데 대한 은정 깊은 믿음을 베풀어 주시었다.

두 아들을 데리고 화선입당모임에 참가했던 이 녀인은 그 길로 남편의 뒤를 이어 불도젤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 잡았고 오늘은 이처럼 당당한 불도젤운전수로 자라난것이다...

불도젤에서 내린 나는 들길을 걸으며 유산에 대해서 생각했다,

가사

군복 입고 떠나던 동구길에서
어머니 혼드시던 흰 머리수건
전호가에 하얀 안개 흐를 때이면
눈앞에 어려 오네 흰 머리수건

어릴적 뛰놀던 시내가에서
내 얼굴 닦아 주던 흰 머리수건
총창에 은은한 달빛 흘러도
고향마을 내물소리 들려여 오네

유산! 유산을 넘겨 주는것은 선대가 후대들앞에 지닌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 하다면 우리 시대 인간들은 이 풍요한 대지와 함께 얼마나 고귀한 정신적유산을 후대들에게 넘겨 주고있는가.

더없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땅, 이 땅에는 실로 우리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깃들어 있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백두의 설한 풍속에서 풍찬로숙하며 피바다 만리 불바다 만리를 헤쳐 온 항일혁명선열들.

다시는 노예로 살수 없어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 나 조국땅 한치 한치를 피로써 사수한 혁명의 2세들.

재가루만 날리는 빈터위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선열들의 그 땀이 있었기에 우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엄혹한 나날에도 백두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 낼수 있었고 불사신같이 다시 일어나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갈수 있었다.

옛 모습을 찾아 볼수 없이 천지개벽한 우리의 사회주의대지, 그우에 약동하는 우리의 생활.

기세차게 흩을 밀어 가는 불도젤들, 거름을 싣고 달리는 트랙터들, 사람들의 흥겨운 웃음소리, 줄지어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명량한 노래소리... 모든것이 정답고 소중하게 안겨 온다.

이 모든것이 고난의 시기에 피로써 지켜 내고 땀 흘려 창조한 우리의것이어서 그토록 더없이 소중한 고 정다운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세월이 흘러 먼 후날에 가서 후대들이 선군 시대에 대해 추억할 때 이 풍요한 대지를 유산으로 넘겨 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상과 정신, 어떤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일했는가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추억해 줄것이다.

어머니의 흰 머리수건

한기운

어머니 혼드시던 흰 머리수건
위훈의 날개로 펼쳐 안으리
격전장에 붉게 어릴 흰 머리수건
포화속을 헤쳐 가도 타지 안으리

아, 장군님을 옹위하는 병사의 길을
어머니는 언제나 함께 간다네

군복입은 사람들

조인영

적동색의 윤이 나는 둥근 얼굴, 후더운 인정미가 느껴 지는 그윽한 큰 눈, 왕북으로 쿵 찍은듯한 특한 눈썹, 모양새의 아무러한 특징도 없는 우뚝한 코 그리고 든든하고 거울진 체대...

군사대학을 갓 졸업한 부대장 김경진상좌의 외모는 대체로 이려하다. 김경진상좌는 감색수지안전모에 까만 방수작업복차림으로 부대군관들을 마주 서 있다. 물길굴 현장에 들어 온 그는 부대군관들 앞에서 부임인사를 하는중이었다.

한창 콘크리트시공을 하고 있는 어둡스레한 물길굴막장, 쇠북을 두드리듯 쇳쿵거리는 압축기소리와 기관총의 연발사격인양 따따따 암벽을 짓쫓는 착암기소리... 한쪽에선 혼합기와 진동기소리가 물길굴 안에 공명을 일으킨다.

부대는 지금 강성대국건설에 펼쳐 나선 나라의 숨결에 박동을 맞추면서 결코 작지 않은 발전소들 자체로 건설하고 있다.

김경진은 제식동작대로 군관들과 경례를 나누다가 대오속에 3대대장이 없는것을 유감스럽게 여기면서 참모장에게 피곳 의문의 눈길을 보내었다.

《막장에서 조만간 수천립방의 석수가 터져 나올것이 예견되어 비우지 말고 감시하게 했습니다.》

참모장의 대답에선 자못 긴장이 느껴 졌다.

(3대대. 긴장하단 말이지!)

경진은 이미 내려 오기전에 상급참모부에서 3대대의 긴박한 정황을 이야기 들은바 있다.

거기가 끝나야 수십리 물길굴 전 구간이 끝난다고들 했다. 그런데 확장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콘크리트 충진을 함께 하는 막장에서 나타난 커다란 물주머니가 터지는 날에는 부대는 물론 린접한 부대들까지 물란리를 겪게 되어 있어 당분간 막장작업까지 중지시켰다니 3대대장이 얼마나 안타까우라 싶었다.

서둘러 부임인사를 마친 김경진은 5리 남짓이 떨어져 있다는 3대대구간으로 향하였다. 3대대막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놀랐다. 다른 단위들에서는 확장을 거의 다 끝내고 콘크리트시공에 들어 갔는데 여기엔 아직도 좁다란 도갱이 수십메터나 남아 있었다. 그런데 당장 석수가 터진다는 암벽에 대고 누군가 착암기를 돌리었다.

안전모를 꼭 내리쓰고 방수비옷으로 턱밑까지 조여 맨 사람의 일숨씨는 어텐가 거칠고도 왁살스려운데가 있었다. 길다란 정대가 깊숙이 들이 박힌 암벽 틈사리로는 분수마냥 물총이 내뿜졌다. 막장작업을 중지시켰다더니 이게 웬일인가?

이거야말로 이고 있는 물둥이에다 돌팔매질을 하는것과 같은 무모한짓이 아닌가.

이름 모를 착암수결에 다가선 김경진은 청 높은 소리로 자기를 소개했다. 이제껏 착암에 여념이 없던 사람이 급기야 공기변을 달고 차렷자세를 취하면서 《3대대장 강창덕》하고 규정의 보고를 했다. 눈빛이 근엄하고 맵찔다.

(강창덕이라,) 이름이 귀에 익었다. 하나 같은 이름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경진은 스무해 이전에 한중대에서 함께 소대를 지휘해 온 강창덕소위를 문득 상기하였다. 한데 지금의 이 중좌 강창덕은 그때의 소위 강창덕과는 비슷하지도 않다. 얼굴에 매닥질된 흰 돌가루물이며 폭 눌러 쓴 안전모, 턱밑을 바싹 조여 맨 방수비옷... 하긴 이쯤이면 용모로서 스무해전의 전우를 가려 본다는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한데 석수가 금방 터진다는걸 방비대책도 없이 마구다지로 뿔러 대면 어쩔니까?》

경진은 강창덕의 무도함에 불만스러웠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뒤편어 진 우리더러 <쏘구역>에 얹드려 기다리라는건데, 당장 타개책은 없지. 아무래도 터치고 나갈 판인데 발과구멍이라도 뿔러 놓자는겁니다.》

그는 이따금씩 딱딱 막히는듯 한 말문을 성급히 여닫으면서 성찰진 목소리로 내뿜었다.

경진은 그가 처음 만나는 직속상관앞에서 어텐가 불손하고 무례하게 구는것 같아 다소 불쾌감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하나 대대가 받은 명령관철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심정만은 저으기 헤아려 졌다. 그런데 김경진은 그와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그의 쇠소리 나는 높은 억양이 류달리 귀에 익었으며 그래서 지금 자기앞에 서 있는 3대대장 강창덕이 곧 지난 날 소대장시절을 함께 보낸 그 강창덕임을 알아 보았다.

《여보시오, 강창덕소위. 내 경진소대장이요.》

그 말에 강창덕의 칼끝처럼 예리한 메밀눈이 반짝하고 빛을 내었다.

《아니, 이럴데라구요. 이렇게 다시 만났구려.》

창덕은 무등 기뻐 했다. 스무해 세월이 지난뒤 다시 만난것이다. 경진은 소대장시절에 거의 언제나 강창덕의 승벽앞에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체육과 문화오락, 소대살림에서 창덕은 남다른 이악성으로 다른 소대들을 앞서군 했던것이다. 그러던 강창덕이 이런 난국에 빠졌으니 속이 기름가마

처럼 바질바질 타들고 있을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었다.

경진의 너부죽한 얼굴에서 후더운 인정미가 어린 서글서글한 두눈이 반가움에 젖어 습벽이었다.

그는 흘러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젊었던 강창덕의 모습을 찾아 보려고 애 쓰듯 그의 얼굴을 살펴 보았다. 세월은 자기의 소임인듯 창덕의 모습을 훨씬 변모시켜 버렸으나 철색으로 번들거리는 살갗과 록록치 않은 인상을 주는 메밀눈만은 여전한듯 싶었다. 이마에 패운 굵은 주름살과 귀밑에 희끗희끗하니 돌아 난 흰 머리칼은 그를 퍼그나 나이 들어 보이게 했지만 지금껏 지녀 온 강창덕이라는 거센 발음의 이름 석자와 영민하게 반짝이는 작은 눈만은 젊었던 시절의 패기와 자존심을 변함없이 지니고 있다는것을 강조하는듯 했다.

김경진은 강창덕이와 나란히 3대대구간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진이 허심하게 말하였다.

《강창덕동무! 난 지하공사엔 껌껌이랴오. 동무를 만난게 기쁘오. 많이 도와 주오.》

그러자 강창덕이도 진심으로 기뻐 하면서 자기의 럽장을 겸손하게 밝히었다.

《그야 어린하겠소만 지난 날의 인연으로 나를 남달리 대하지는 마시우.》

그 말에 김경진의 어글서글한 두눈이 헉헉한 미소를 그윽히 담았다.

《사업은 사업이고 생활에서야 지난 날의 우정을 어데다 흘려 버렸소. 강동무, 우리 소대장때처럼 서로 이끌면서 명령관철에 앞장섭시다.》

진심을 토로하는 김경진상좌의 호협하고 헌거로운 모습에 강창덕은 감동되듯 했다.

《알았습니다!》

창덕은 친우로서가 아니라 부하로서 진정에 넘쳐 대답하였다.

×

그들은 마주 보며 껄껄 웃었다. 현실이라는 각박한 정황을 망각한 한순간이었다. 뒤이어 현재로 돌아 온 부대장이 불안스레 물었다.

《물주머니를 효과 있게 극복할 대책이 없소?》

강창덕은 《글쎄... 별 뽕쫓한 수가 없는 이상 맞반아 나가든가 에도는수밖에 없는데 둘 다 명령관철을 저애하는...》 하고 평소의 그답지 않게 퍼그나 갈았은 소리로 주저주저 했다.

그들은 종시 물주머니를 안전하게 타개할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한채 부대장의 막장지휘처로 돌아왔다.

두사람은 담배를 피워 물고 지난 날을 회고했다.

《참. 만팔애는 지금 무얼 하고 있소?》

김경진은 문득 생각난듯 강창덕에게 물었다.

《인민학교 소년단지도원이랴오. 얼마전에 소년예술폭진대를 이끌고 여기도 왔었지요.》

강창덕은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그것 참 잘되었구만.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퍼그나 몰라 보게 속성했을걸. 만나보고 싶구만.》

김경진이 애뜻한 감회에 잠긴다.

《그런데 그 맥 만팔애는 어찌 되었소?》

이번엔 강창덕이 물었다.

《아니, 그걸 모르고 있었구만. 그 애가 사단군의 소외과 간호장이랴오.》

경진이도 딸자랑에선 강창덕에게 지지 않았다.

《가만!》

강창덕이 급기야 메밀눈을 좁혀 뜨며 놀란듯 웃음을 일으키었다.

《아니. 그 왜 김명해라구 껌장눈에 맘씨 고운 사단의 보배간호장 말이요?》

강창덕은 이제껏 그걸 모르고 지낸걸 후회하듯 《허참.》 하면서 손을 털더니 담배 한대를 피워 하는데 그 인상이 갑자기 어두워 졌다.

경진은 그의 돌변한 모습에는 별로 개의치 않고 지나간 나날의 감회에 머물러 있었다.

두 집에서는 같은 해에 똑같이 첫딸을 보았었다. 어느해 두 가정이 모여 앉아 설맞이를 하던 때 두 어머니가 나누던 이야기가 지금도 경진의 뇌리에 인상깊게 인박혀 있었다...

경진의 안해가 강창덕의 안해에게 물었다.

《혜옥 어머니 언 어떤 사위를 맞았음 해요?》

《우린 땅크병. 거기선요?》

그러자 명해 어머니는 잠시 생각을 고르다가

《우린 비행사!》 하고 대답했다.

《아이, 욕심두...》

두 녀인은 끝끝한 사내대장부를 사위로 맞고픈 심정을 담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에 겨워 웃음꽃을 피웠다. 설축배로 마음들이 훈훈해 진 경진이와 창덕이도 함께 웃었다...

한동안 담배만 물썩거리고 있던 강창덕은 잠시후 경진의 기색을 여겨 보면서 물었다.

《그래, 명해를 만나보았습니까?》

《아직 들러 보지 못했지요.》

《아니, 그럼 명해가 제대명령을 받고도 집으로 가지 못한 리유를 모르고 있는게 아닙니까?》

다급히 묻는 강창덕의 두눈이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미간이 좁혀 졌다.

《내 여기 오기전에 집에 들리니 제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무슨 중환자를 말았는데 퇴원시킨 다음에야 돌아 가겠으니 그리 알아 달라고 썼더군요.》

김경진의 심드렁한 대답에 창덕은 저으기 죄송스러운 낮빛이 되어 안타깝게 뇌이였다.

《아, 그러니 결국 내가 명해의 제대를 막은셈이 되지 않았는가.》

《그건 무슨 뜻이요?》

경진이 자못 의문 짙은 표정으로 강창덕을 마주 보며 물었다.

《지난해 가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강창덕은 심한 자책에 겨워 우울하게 대답했다.

…버력을 만재하고 수백메터 경사궤를 미끄러져 올라 가는 광차, 뽕뽕하게 행기운 쇠바줄… 예상치 않게 굴중턱이 무너지면서 강한 충격으로 쇠바줄건 인고리를 벗겨 버렸다. 런결뼘이 빠져나가는 순간 광차는 아래로 미친듯이 질주하였다.

우당통탕 버력을 흘뿌리며 내리 구는 광차, 그 아래 통로궤에 모여 서 있는 군인들… 그 속에 있던 대대장은 지레대를 들고 광차를 맞받아 경사궤로 올리 뛰었다. 찰나, 쇠불이끼리 부딪치던 굉음이 멎고 거대한 차단봉에 부딪친듯 광차가 굴벽을 치받으며 멈춰 섰다.

순간 강창덕은 육박의 창끝마냥 꼬나들었던 쇠지레대를 떨구며 우뚝 멈춰 섰다. 아무런 소리 들리지 않았다. 광차 주변에는 폭발직후처럼 먼지가 자욱하여 아무것도 가려 보기 어려웠다. 극심한 정신적충격에 감각마저 마비되어 버렸는가. 강창덕은 심혼의 온 공간을 짹 채워 버린 공포를 가까스로 몰아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눈을 떴다.

군인들이 갑자기 《아-아-아!》하고 부르짖으며 경사궤로 달려 올라 갔다. 반사적으로 들뛰어 간 강창덕이 《앗!》소리를 쳤다. 이를 어찌랴! 그는 선채로 석상처럼 굳어 졌다.

저만치 레루우에 휘뿌리워 쓰러진 분대장 림성철이, 그는 창덕이 총애하던 병사였다. 향방 잃은 광차를 억척의 힘으로 멈춰 세워 모재비로 자빠뜨린 것은 성철이가 메고 있던 동발목이었다.

병사는 심한 두뇌타박으로 시력마저 상실했다.

군의소에서 그를 처음으로 맞이한것은 오늘래일로 제대명령을 받게 되어 있는 직일간호장 김명해 상사였다. 명해는 성철분대장이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침대궤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를 극진히 간호하였다. 얼마후 명해는 제대명령을 받았으나 담당환자를 완치하여 퇴원시키기전에는 부대를 떠나지 않겠다면서 지금껏 정열적인 치료전투를 벌리고 있다는것이였다.

그때부터 강창덕은 심한 자책속에서 자신을 모질게 타매하였다.

잠시 고개를 떨구고 있던 강창덕이 문득 생각난듯 저으기 격해진 억양으로 말했다.

《근데 얼마전에는 참 엉뚱한 소리가 들렸지요. 명해의 소행에 모두 감동하고 있는 판에 군의소에서 누군가가 그와 성철분대장이 이미전부터 남다른 사이여서 명해가 제대를 마다하고 떨어졌다는 말을 돌리었다는군요. 그들은 전혀 얼굴조차 모르던 사이였는데도 말이지요. 원 참 그런 언어도단이… 그래서 내 군의소에만 가면 그따위 소리를 한장본인을 찾아내여 혼뜨قم을 내주자는겁니다.》

경진은 그 무슨 뜻밖의 소리냐는듯 고개를 약간 기웃하였다. 어디에 것처럼 남의 뒤소리를 지어낼 사람이 있단말인가. 쉬이 믿어 지질 않았다. 그런데 그런 소리는 어디서 나와 가지고 여기까지 떠돌아왔단 말인가? 경진은 다른 사람도 아닌 명해가 그런 뒤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모르게 얼굴이 뜨끈해 졌다. 그러면서 명해의 신상에 끼쳐진 수치를 제 자식이 들은것만치나 분해하는 강창덕이 고맙게 여겨 졌고 그 역시 강창덕이처럼 딸의 순결한 병사생활을 믿고싶었다.

잠시후 강창덕은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을 했는가 싶었던지 저으기 면구스러워 하면서 말머리를 돌리는것이였다.

《이건 나의 당부인데 인차 군의소에 들려 주시오. 그리고 명해를 잘 타일러서 인차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려 보낸다면 죄진 네 마음도 한결 편하겠습니다.》

강창덕의 이 말에 경진은 속으로 긍정하였다.

부대로 오기전에 집에 잠깐 들리니 안해도 딸을 손 꼽아 기다리면서 이 문제를 꼭진히 당부하였다. 지금도 외동딸 명해를 애바르게 기다릴 안해의 애모쁜 심정을 헤아려 보느라니 경진이 자신도 가슴이 아릿해 졌다. 딸 가진 심정은 강창덕이도 다들바없을것이였다. 그래서 그도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는것이 아닐가.

경진은 강창덕의 권고에 대답하기 위해서 보라도 그의 피로와 하는 마음을 어루술어 주고 싶은 생각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여튼 물주머니나 극복한 뒤에 군의소에 들려 보겠습니다.》

그러자 창덕은 그때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는듯 민망스러운 눈길로 부대장을 바라보면서 속이 달아올라 목단추를 끌러 놓는것이였다.

×

정적이 깃든 3대대 막장에 김경진부대장이 서 있었다. 수천립방의 물동이 금시 터져 나올것 같은 뽕뽕한 정황속에서 방금 협의회를 끝내고 지휘관들을 다 돌려 보낸뒤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아직도 지휘관들의 열띤 목소리들이 쟁쟁거렸다.

《에돌아 갑시다. 그게 린점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니요! 에돌자면 반년이나 생굴을 뚫으며 고생하게 되요. 그래 이 강창덕이더러 명령을 관철 못한 패배자가 되란 말요?》

(그럼 물벼락을 들쓰며 터치고 나가자는건가?)

린점의 대대장들이 놀라며 두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들의 눈앞에선 파국적인 환영이 화면처럼 움직이 있을것이다.

귀청을 켜는 발파소리, 발파소리. 허망창 쏟아져 내리는 수천립방의 지하수. 포효하는 물사태에 순식간에 휩쓸려 버리는 수천 t의 세멘트 그리고 갱내 대형압축기와 전동기를 비롯한 중기계들이 침수되어 버린다. 인명피해가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 피해는 린점의 대대들과 련대들에도 급속히 파급된다....

경진부대장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결코 자기 부대의 출로만을 위하여 린점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것이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에돌거나 수천 t의 자재와 설비를 밖으로 끌어 내는 공사를 벌릴수도 없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경진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였다.

방금 내뿜은 자기의 거친 주장에 스스로 수치감을 느낀듯 강창덕은 바닥에 펄근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다 못해 수수뻑뻑같이 되어 갔다. 참아 내기 지겨운 피로운 시간이 락수물 듣는 소리와 함께 긴장하게 흘러 갔다. 침묵이 지휘관들의 머리우에 배회했다. 뒤미처 강창덕의 눈빛이 번쩍 하고 빛나더니 그 눈은 츠르르 물기에 흐려 졌다. 경진부대장은 그 눈빛의 하소연을 읽었다.

(잘못 생각했소. 내 이 무슨 꼴이란 말요.

절박하고 어려운 정황에 닥뜨렸다고 자기만을 먼저 생각했소.)

그의 어그러진 얼굴은 우는듯 했다. 경진은 가슴이 아릿했다. 정황은 지휘관의 과단성 있는 결심을 요구했다. 하나 난생 처음 이런 정황에 맞닥뜨린 그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엄청나게 높고 넓은 물길굴의 막장 정면에 뚫려 있는 착암기구멍들에서는 분수처럼 물총이 내쏘고 있었다. 협의회는 일단 중지해 버렸다. 군인들을 다 철수시킨 행방한 막장에서는 물보라를 일으키는 지하수의 물총만이 제멋대로 전횡을 부리었다.

어데론가 사라졌던 강창덕이 저벅저벅 버력을 짓차며 들어 왔다. 그는 무척 수척해 진 인상이었다. 경진은 그의 모습을 측은히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물었다.

(맞받아 터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겠는가?)

순간 강대대장의 어둡던 얼굴에 한줄기의 미묘한 빛발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분명 그 어떤 새로운 타개책에 대한 선택과 동요의 복잡한 심리를 은연중에 드러낸것이였다. 강창덕이 평소의 그답지 않게 주저주저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부대장동지! 방도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힘겨운것이여서 선뜻 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대장의 억양은 심중했고 눈길에 서는 숨길수 없이 동요가 느껴 졌다.

《방도가 있다면 무엇때문에 주저합니까?》

부대장이 초조한김에 성급히 물었다.

《좀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강창덕이 그 어떤 타개책을 착안하고도 선뜻 발표하지 못하는걸 보면 말 못할 심각한 고려가 동반되는 모양이였다. 무엇이 저 담통 큰 사나이를 주저하게 만드는가. 경진은 그가 새로운 방안을 대담하게 선언하게 될 순간이 각일각 안타깝게 기다려 지는것이였다.

×

이튿날 아침에 강창덕이 손기척도 없이 부대장의 귀틀식으로 지운 지휘처에 나타났다.

불빛이 쏟아져 들어 오는 창문으로 물 오른 참나무우듬지들이 파랗파랗해 지는것을 바라보면서 세월의 흐름에 마음을 쓰고 있던 부대장은 강창덕의 때 아닌 출현에 기대 어린 눈길을 그에게 던지였다. 강창덕의 얼굴은 거의 흙빛이였다.

어떤 비상한 일에 부닥친듯 눈빛이 근엄했다.

기대는 허물어 졌다. 그는 청 높은 목소리로 침통하게 뇌이였다.

《부대장동지! 이걸 어쩍니까? 성철이가 곧 퇴원해서 인차 집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실명한 그를 부모들한테로 보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 것 같습니다.》

경진은 그가 물주머니극복과는 전혀 다른 일로 흥분하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말하는 강창덕은 연거퍼 작은 눈을 감았다 뜨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눈언저리에 축축하니 눈물이 어리였다.

경진은 그의 고뇌가 헤아려 졌다. 화는 쌍으로 온다더니 강창덕이를 은연히 괴롭히던 일이 절박하게 들이닥친것이였다.

잠시후 강대대장이 눈빛을 빛내였다.

《잠간 나갔다 오겠습니다.》

창덕이 서둘렀다.

《무슨 일때문입니까?》

부대장은 의문스러웠다.

《성철의 일때문입니다. 밤새 몇번이나 자리에서 소스라쳐 일어 나곤 했습니다. 앞 못 보는 부하를 어찌 홀로 집문턱을 넘어 서게 합니까.

우리 혜옥이한테 전화를 하렵니다.》

그는 말하기를 힘겨워 했다. 어마어마한 상실을 각오한 사람마냥 눈빛이 근엄했다.

창덕은 계속했다.

《내 고백하지만 성철일 알게 된 첫 순간부터 나는 그를 점 찍어 두었겠지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랑심을 속이면 결국 나를 배신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대대장은 부대장을 설득시키려 했다. 하나 그 문제가 강창덕이 맞서고 있는 물주머니를 타개하는것보다 더 어려울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 들자 경진은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혜옥이가 리해를 할가요?》

경진이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자 강창덕은 서둘러 《내 손탁에서 자란 딸이니 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줄겁니다. 난 확신합니다.》

경진은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었다. 어릴적의 혜옥이는 부모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착한 아이로 소문 났었다. 이 점이 강창덕이한테 미련과 확신을 주었는지도 몰랐다. 하나 그러한 확신은 아직 주관일수 있다. 사랑이란 그럴만 한 생활적바탕과 계기가 있어야 하는것이다.

경진은 딸을 불러 성철의 곁에 세워 주려는 강창덕의 마음이 저으기 리해는 되었지만 만약에 그 일이 뜻대로 되지 못할 경우 그에게 가해 질 2중 3중의 심리적부담이 예상되자 그가 더없이 측은해졌다.

부대장의 이러한 심정을 깨달은듯 강창덕이 활기 있게 입을 열었다.

《웁습니다. 우리 혜옥이도 성철일 이미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단예술공연 뒤끝에 오락회가 있었는데 혜옥이가 노래를 부르자 성철부대장이 꽃다발을 주었지요. 꽃다발을 받은 혜옥인 그 대가로 군인들의 재청을 여러번이나 들어 주었습니다. 혜옥이가 돌아 가서 성철이를 비롯한 군인들에게 위문편지까지 보내 왔더구만요.》

강창덕은 신심 있는 눈길로 경진을 바라보았다.

《내 제격 나갔다 올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강대대장은 이 말을 남기고 경진부대장이 어찌볼 사이 없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

김경진은 창덕이 나간뒤 한동안 방안을 오락가락 하였다. 그 어떤 지점은 생각이 물주머니문제와 혼탁되어 머리를 번거롭게 자극하였다.

경진이 그 상념을 털어 버리려고 눈을 꼭 감고 고개를 가로 저을수록 어렴풋이 떠오르던 생각은 더욱 명백히 그의 뇌리를 독차지해 버리는것이였다. (명해가 성철이와 남 다른 사이였다는것은 과연 뜬 소문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그는 뇌리를 지그시 자극하는 생각에서 풀려 나올수가 없었다. 지금 이 시각 경진의 사생활에서는 다른 모든 문제들보다도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듯 싶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헤아려 보고 관심해 주어야 했다.

마침 상급참모부회의에 올라 간 경진은 군인회관 휴게실에서 군의소장을 처음 만났다.

얼굴이 갱끗하고 꼬장꼬장한 성미의 중좌는 부대장인 명해 아버지가 문득 눈앞에 나타나자 매우기뻐 했다.

《군의소장동무! 내 개인문제인데 숨김 없이 털어 놓아 주오.》

경진이 심중하면서도 허심한 어조로 말하자 군의소장은 자못 의문 짙은 얼굴로 《예, 어서...》 하고는 명해의 모색을 방불케 하는 경진의 표정을 의미심장하게 살피는것이였다.

《우리 명해가 지금 담당한 환자와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는게 웁습니까?》

묻는 경진은 은연중 얼굴이 화끈거렸다.

《글쎄요. 그런 사이 같지는 않은데 간호장 자신이 저한테 그렇다고 하면서 제대마저 뒤로 미루어 달라더군요. 더구나 그 문젠 부모들과도 다 토론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군의소장은 의아한 눈길로 경진을 바라본다.

경진은 무심결에 《예.》 하고 대답했다가 성급히 고개를 가로 저으며 《아니, 알고 있었지요.》 하고 진실을 부정해 버렸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리성을 앞질러 딸을 긍정하라고 부추겼다.

경진은 잠시 안정을 잃고 초점 없는 두눈을 허둥거렸다. 명해가 무엇때문에 듣기 거북한 그런 말을 지어 내었는지 정확한 답을 내릴수가 없었다. 군의소장은 진정을 못하는 부대장의 모습에서 명해가 지어 낸 소리로 자기를 납득시켰다는것을 분명히 깨달은 모양으로 의미 있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회의에서 돌아 온 부대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강창덕은 《그럴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따위 랑설을 지어 내다니요. 그건 믿을수 없단 말입니다.》 라고 분개해 했다. 그러면서 명해는 온 부대가, 성철은 대대장자신이 그들의 병사생활의 순결성을 보증할수 있노라고 얼굴을 붉혀 주장하였다. 강창덕의 완고하리만치 단호한 분격은 부대장이 직접 군의소장을 통하여 확인한 사연의 진실성마저 일격에 뒤엎어 버리는듯 했다. 경진은 생각했다. 명해가 실

지로 그 말을 지어 냈다면 그는 무엇때문에 그런 꾸밈이 필요했겠는가? 그렇지. 딸에는 병사의 사심 없는 의리심으로부터 담당환자를 침대에 눕혀 놓은 채로 제대길을 걸을수 없었을것이다. 그런즉 간호장의 마지막임무까지 성실히 수행하자는 기특한 마음이 그런 거짓도 서슴없이 지어 내게 했으리라. 이렇게 속생각을 더듬는 경진의 마음은 한결 개운해졌고 딸에 대한 대견함과 미더운 감정에 시름마저 스르시 녹아 버리는듯 했다.

×

현실은 준엄하고 각박했다. 그의 앞에는 석수가 휘뿌리는 막장이 막아 서 있다. 과연 저 수천립방의 물을 휘여 잡을 방도가 없단 말인가?

그는 막장지휘처에 돌아 와서 사색에 잠기었다.

어떻게 하면 린접에 피해를 주지 않고 물동을 터치고 나가겠는가? 그는 천천히 좁은 지휘처안을 오락가락했다. 오만가지 방안들이 떠올랐다가는 잦아지고 그랬다가는 다시 떠올랐다. (그래 신통한 방안이란 도대체 없단 말이지.)

철추가 들어 앉은듯 끝이 무거워 났다.

그만하자. 그만. 도저히 이 머리속에선 떠오를수 없는 방안을 나는 자신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는 강창덕이를 믿고 싶었다. 창덕은 방도가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경진은 사색을 포기하며 자리에 앉으려고 허리를 굽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섬광파도 같이 눈앞에서 펑긋거리며 떠오른 하나의 기발한 착상에 이끌린 그는 《가만!》 하는 외마디소리를 내고는 앞상우에 펼쳐진 물길굴도면에 눈길을 주었다.(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는 드디어 린접 부대들에는 사소한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막장을 계속 내밀고 나갈수 있는 방도를 찾아 낸것이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로 되는것은 부대가 깊은 물속에서 남보다 더 악전고투해야 하는것이였다. 그처럼 자기희생적인 담찬 착상을 한 부대장은 후두두 심장이 뛴뛰었다. 말은 쉬워도 대대장들모두가 힘겨워 할수 있었다. 희생이란 언제나 쉽게 각오되지 않는다. 문득 강창덕의 얼굴이 눈에 밟혀 왔다. 우선 그가 부대장이 생각해 낸 자기희생적인 방안을 받아 물기 피로와 할수 있다. 제일 어려운 구간에서 맨 뒤꼬리를 차지하고 힘겹게 전진하고 있는 그에게서는 남을 위해서 자신은 더욱 역경에 빠져야 하는 방안이 너무도 가혹한 처사로 여겨 질수도 있었다.

하지만 허심하게 토론해 보자. 부대장은 그의 의리심에 기대를 걸고 싶었다. 그는 결코 웅졸하지 않으며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지휘관이 아니다. 성

철부대장을 위하여 애먼굴면 속 태우는것만 보아도 그가 의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것을 알수 있지 않는가. 그가 처음에 무작정 맞받아나가자고 우긴것은 다른 출로를 찾지 못한채 긴장한 시간만 보내고 있는것을 더는 참을수 없었던 조급증의 표현이었을것이다. 그도 분명 그 어떤 착상을 무르익히는중이라고 했으니 둘중의 어느것이든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대담하게 출로를 개척하자.

이렇게 결심한 부대장은 두주먹으로 앞상을 힘껏 눌러 짊으며 웃음을 일으키었다.

×

바로 그 시각에 전화종이 야멸차게 울렸다.

뜻밖에도 명해였다. 인차 군의소에 들러 본다했는데 그만에야 딸한테 선코를 양보한셈이였다.

《아버지! 저예요. 명해!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오냐, 잘 있느냐? 내 군의소에랑 들러 본다는게 여기 일이 바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랑해해라. 명해야!》

경진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아버지 일 없어요 하는 딸의 정어린 목소리가 들리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쩐지 명해는 한동안 침묵했다. 침묵어간에 《호.》하고 내부는 한숨 같은것이 분명히 들려 왔다.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라도 품고있는듯 바재이기도 하고 서슴기도 하는 딸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데 했다.

무엇때문일까? 아무런 스스럼도 없이 맥락이 통해야 할 딸과 아버지의 인정의 금선이 불시에 얼어붙기라도 했단 말인가.

경진은 명해와 오래간만에 전화를 맞춰고 서 있는 이 시각에 왜서인지 딸애가 이전보다 서먹서먹하고 멀어 졌다는 느낌이 들자 마음이 저으기 소연해 졌다. 경진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명해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호-하고 한숨을 내 불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주저하더니 결심한듯 입을 열었다.

《아버진 어쩔 그러실수 있어요?》

명해는 울먹이며 항변하듯 말했다.

《아니, 애야. 넌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무슨 사연인지 어서 말하려무나.》

경진은 순간이나마 딸한테서 오해를 받는것 같아 안타까웠다.

《아버지가 군의소장동지한테 전화하셨지요? 제가 성철동무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걸 고려해 달라구 말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담당간호원인 제가 어찌 이 길에서 발뺌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병사의 의리를 배반하는 길이에요.》

눈물은 볼수 없었으나 딸애가 분함을 참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울고 있다는게 느껴 졌다.

《아니, 그 무슨 소리냐?》

경진은 얼토당토 않은 오욕을 들으듯 온몸에 가벼운 전율을 느끼었다.

《군의소장동지가 갑자기 성철동무의 호송간호원을 발표하셨어요. 절 빼놓고 신입대원 간호원을 말예요.… 흑- 이젠 모욕이예요. 전 참을수 없어서 항의했답니다. 그런데 군의소장동지는 뭐라셨는지 아세요. 부대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 왔다는거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누구와 말을 걸수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처럼 울타리를 좁게 치고 계시는분일가 하고 생각하니 부끄러워 몸 돌바를 모르겠어요.》

경진은 진정할길 없는 마음으로 울먹거리는 딸의 모습을 보는듯 했다. 그는 성급히 부인했다.

《아니, 아니야. 아버지를 그렇게 오해하는건 죄되는 일이야. 아버진 군복 입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요. 아버진 거짓말이라곤 모르셨지요.

그렇다면 아버지 가까이에서 누군가 전화했을거예요. 저와 성철동무의 사이가 깊어 저서 제가 그 동물 영원히 따르게 될가봐 마음 쓰는 사람이말이예요.》

경진은 딸의 영민한 판단에 놀랐다. 전화를 한다면서 달려 가던 강창덕이와 그를 멈춰 세우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밟혀 왔다. 무엇때문에 그를 돌려 세우지 못했는가? 그렇다. 멈춰 세울 사이 없이 그는 바람처럼 사라졌었지.

그때 그는 군의소장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부대장의 의향이라고 하면서 명해를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한시 바빠 돌려 보내자고 했을수 있었다.

모든것을 명백히 헤아린 경진은 딸의 심중에서 고개치고 있는 진정할길 없는 감정의 툄동을 어루 쓰다듬으며 자기의 진심을 밝히었다.

《명해야, 그 일로 지내 고심을 말어라. 나는 사심 없는 병사의 의리를 지켜 제대를 뒤로 미룬 간호장의 아름다운 소행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지요?》

명해의 기쁨으로 한껏 높아 진 숨소리가 수화기를 통하여 경진의 귀에 와닿았다. 명해는 이제는 주저없이 물었다.

《아버지, 우리가 만약에 전부터 남 다른 사이였다면 아버진 서운해 하시겠어요?》

명해의 그 물음에 경진은 그 어떤 둔중한 충격을 느끼며 눈을 꼭 감고 서 있었다. 그러니 그 뜬소문이라는게 지어 낸 이야기가 아니었던 말인가! 묻기 거북했으나 어차피 묻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 애야, 그 말이 옳긴 옳으냐?》

저쪽의 호흡이 가빠 졌다. 잠시 서슴는듯 딸의 높은 숨소리만 전류에 실려 왔다. 다음순간 명해의 격정에 넘친 단호한 목소리가 총알처럼 수화기에서 튀어 나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우린 남 다른 사이였어요!》

딸의 목소리가 경진의 귀에 어마어마한 고성기를 갖다 댄것처럼 오래도록 우렁우렁거렸다. 경진은 혼란에 빠졌다.

강창덕이의 론리와는 전혀 다르지 않가. 딸은 지어 낸 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절절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명백히 대답했던것이다.

무언가 자기가 결심하고 소원하는 보다 큰것을 위해서 명해는 근거 없는 《랑설》을 단호히 인정해버린것이었다. 명해의 지어 낸 《랑설》에 보다 큰 소망이 깃들어 있다는것을 깨쳤을 때 경진은 놀랐다. 딸애는 비록 한 환자의 완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 못 보는 청년의 영원한 간호원이 될 결심으로 제대를 뒤로 미루었고 그러기 위해서 뒤소리도 두려워 하지 않고 그런 《랑설》을 지어 낸것이였다.

우리 명해가 이렇게 자랐는가! 하나 팽성한 현실을 고스란히 받아 안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너무도 빈약했고 군복 입은 딸에 대한 파악이 적었던 경진 이였다. 과연 명해가 그렇듯 어려운 한생의 먼 길을 추호도 탈선 없이 걸어 내겠는가! 순간에 떠오르는 무수한 상념으로 머리가 뜨거워 났다.

《아버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딸은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시각부터 부대장의 심중은 연딩이를 삼킨것처럼 묵중해 졌다. 무슨 말인가 해야겠으나 종시 말문을 열지 못했다.

《아버지, 아버진 제가 미운 <예쁜이>가 되길 바라지 않으셨지요?》

명해는 아득히 멀어 저 간 소꿉시절로 추억의 화살을 날리었다. 경진은 응대를 할수 없게 목이 메었다. 후두둑… 갑자기 심한 부정맥을 느끼었다. 벽치고 두려웠다. 왜 이러는가? 명해가 눈 먼 청년과 배필이 될수 있다는 녀려때문인가? 그 문제가 나를 이처럼 진정할수 없게 만드는 그렇듯 커다란 희생이라도 된단 말인가? 경진은 자신이 못내 민망스러워 졌다.

저벅 저벅… 그는 수화기를 든채 라선형으로 꼬불꼬불해 진 련결선이 다 퍼지여 하얀 전화통이 당겨 질 때까지 몇걸음 걷다가는 화가 난듯 뒤로 돌아 섰다. 그러기를 그 몇번… 아, 나의 인간적완성이란 고작 이뿐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인격을 빼 저리게 타매하였다.

《아버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품에서처럼 딸은 정겹게 속삭이듯 불렀다. 그리고는 정차게 뇌이였다.

《아버지. 전 지금 우리가 안겨 사는 위대한 품에 대하여 생각해요. 그렇듯 훌륭한 청년들을 수없이 키워 내는 어버이장군님의 품에 대해서 말이예요, 그런 청년들을 사랑할수 있는건 이 나라 처녀들의 행복이 아닐가요? 네?! 아버지!》

명해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부터 웅침으로 변한 듯 했다. 아버지를 찾는 명해의 목소리는 단순한 부름이나 호소가 아니였다. 부하가 상급에게 명령하고 구령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때를 두고 말할수 있을것이였다. 명령과도 같이 회피할수 없는 그 부름에 경진은 응답하여야 했다.

《간호장, 듣고 있다. 나는 부대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의 그 마음을 지지한다...

지지한다! 명해야!》

《아버지. 흐흐흑... 정말 고마와요.》

딸의 목소리에서는 악보로는 표기할수 없는 환희의 음조가 느껴 졌다.

《너 우느냐?》

《아네요. 기뻐서 그래요. 아버지!》

《넌 정말 몰라 보게 자랐구나. 장하다. 내 딸 명해야!》

경진은 눈굽이 뜨끈해 지면서 코허리가 시큰둥했다.

《아버지, 제가 장한게 아니예요. 전 어쩔수 없이 그 동무에게 이끌렸어요. 제 운명은 날 때부터 그렇게 그어 진가부지요. 아니, 아네요. 세상을 눈뜨고 깨칠 때부터 그건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준거예요. 고운 <예쁜이>가 되라고.》

경진은 딸의 그 말에 짐짓 도리머리를 저었다.

《야야, 그게 아니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군대의 병사들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게 아니겠니.》

《웁어요. 아버지!... 그리고 말예요. 오늘 어머니도 편지에서 저를 리해해 주셨어요!》

《고맙구나. 너의 어머니가.》

경진은 안해에 대한 새롭게 승화된 사랑을 느끼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덧붙였다.

《그리고 성철의 집까지 같이 가는건 내가 곧 군의소장한테 전화할테다.》

《알겠어요. 아버지!》

×

강창덕은 전에 없이 눈길을 허둥거리며 막장지휘처에 나타났다. 무엇때문인지 그는 매우 피로운 인상이였다. 김경진은 그가 물주머니극복문제로 안타깝게 들뛰고 있는줄 알고 어제 자기가 착안한 방안

을 그와 토론해 보려다가 그만 두고 말았다. 무엇에 다몰리우듯 흥분하고 당황해 하는 사람에게 린접을 위하여 자기 구분대를 희생하자고 호소하는건 무모한 일이기때문이었다.

경진의 생각을 동강내면서 강창덕이 울상에 가까운 인상으로 그를 불렀다.

《무엇때문입니까?》

김경진의 물음이었다.

《성철이가 이내 집으로 떠난다고 전화로 인사를 하는구만요. 이번 길에 우리 혜옥이와 함께 고향집 문턱을 넘게 하려고 서둘렀는데 일이 뜻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는 다리맥이 아운하게 풀려 장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강창덕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회오와 속죄의 감정에 휩매여 머리칼을 두손으로 움켜 쥐었다. 김경진상좌는 자책과 번뇌로 하여 퍼그나 수척해진 강대대장의 모습을 애뜻한 런던의 정을 안고 숙연한 침묵속에 마주보면서 술진 왕복눈섭을 쫓고 하였다.

《강창덕동무! 그 일로 더는 피로워 마시오.》

그러자 창덕은 마치 항변이라도 하듯 메밀눈을 한껏 치뜨고 자못 절절하면서도 애바르게 웅쳤다.

《부대장동지! 성철의 지휘관인 나만치 그의 운명을 두고 고심 많은 사람이 어데 있습니까.》

할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 두눈을 그에게 주고픈 심정입니다.》

그는 별절게 상기된 눈으로 경진을 마주 보았다.

밝은 가스등불빛에 그의 축축해 진 두눈이 번쩍하고 빛을 뿜었다. 경진은 이 불 같은 사나이의 심중에서 고괘치는 인정과 의리의 분출을 가슴 뿌듯이 느끼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성철이는 내 아들, 내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강창덕은 믿어 지지 않는듯 벌떡 일어 서며 사실을 부정하려고 성급히 머리를 가로 저었다.

《그건 안됩니다. 명해어머니가 이 사연을 알면... 어허-》

그의 울대뼈가 흐느낌과 같은 소리를 내며 오르내리였다. 그는 분명 비행사와 같은 끝끝한 총각을 사위로 맞고 싶었던 명해어머니의 소원을 상기했던 모양이였다.

《일은 그렇게 되었던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서로 남 다른 사이가 되었던겁니다.》

그애 어머니도 지지하고...》

경진의 혼연스레 뇌이는 말에 창덕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 부대장동지가 아버지로서 딸에게 요구했겠지요. 강요해선 안됩니다. 부대장동지! 이 일에선 오직 나만이 의무감에서 벗어 날수 없습니다.》

창덕은 단호했다.

《강대대장! 이런 일은 의무감으로 이뤄 지는게 아닙니다.》

김경진이 창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친근하게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둘이 이미 남 다른 사이였다 는것도 사실이더구만요.》

강창덕은 그 소리에 눈을 홑뜯 정도로 놀라며 반 박했다.

《거짓말!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본인이, 명해가 직접 나에게 고백했습니다.》

《명해가요? 어쩌면 처녀의 자존심으로 그런 거짓 말을 지어 낸단 말입니까?》

창덕은 실망하여 의자에 물러앉았다.

《그거야 불행을 당한 동지를 생각해서 그랬겠지요. 이제는 그런 뜬 소문을 지어 낸 <시비군>을 탓 할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아.》

강창덕은 자기의 의사와 상상을 너무도 멀리 뒤 집어 열고 앞질러 나가는 현실을 개탄하듯 가슴속 에서 웅근 소리를 끄집어 내었다. 그러던 강창덕은 급기야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수화기를 틀어잡으 려 했다. 경진은 그가 군의소장에게 자기의 실책을 빌려고 한다는걸 알았다.

《군의소에는 전화를 안해도 됩니다. 명해가 성철 이의 영원한 간호원이라는걸 내가 직접 전화하겠습 니다. 그리고 강동무! 이젠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쩌볼수 없지요.》

강창덕은 복받치는 격정에 휘말리운듯 억센 팔을 뻗쳐 경진의 어깨를 부여 안았다.

《내가 아직은 웅졸했습니다. 온 부대가 이 강창 덕이라면 통이 크고 의리심도 있는 대범한 놈으로 일러 왔는데 처지가 각박해 지니까 울타리를 좁게 치고 그안에서 맴도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부대장 동지! 저녁 군정회의시간에 나의 물주머니타개책을 발표할텐니다.》

강창덕은 담찬 각오가 번뜩이는 눈길로 경진을 바라보았다.

×

부대지휘관들이 막장지휘처에 모여 앉았다.

군정회의는 자못 팽팽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 다. 여러건의 물주머니타개안이 부결되고 드디어 막장의 주인인 3대대장 강창덕의 방안을 들을 차례 가 되었다. 한쪽 벽면에 걸려 있는 물길굴도면앞으 로 성큼성큼 다가간 그는 두껍고 투박한 손바닥을 펼쳐 대대의 상류와 하류쪽의 경계선을 가리켰다.

《나의 방안은 대대의 경계선에 차단벽을 쌓은뒤 물주머니를 터치자는것입니다.》

순간 그의 작은 세모눈이 그 어떤 자부심과 긍지 에 겨운듯 현연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경진상좌는 강창덕중좌의 방안이 자기의 선택 과 너무도 꼭 같은데 놀랐다. 경진은 부대담당구간 경계선에 차단벽을 쌓을 결심을 했는데 창덕은 그 것을 자기 대대의 경계선으로 함축시킨것이다.

장내엔 뜻밖에도 숨 막힐듯 한 고요가 깃들었다

지휘관들은 자못 숙연히 그의 방안을 음미하는듯 했다. 한동안 지속된 고요는 강창덕의 방안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것인가를 강조해 주었다. 강창덕이 선택한 자기희생적인 물주머니타개책으 로 하여 3대대는 오랜 나날 물속에서 힘겹게 공사를 해나가는 반면에 린점의 대대들과 부대들은 수많은 설비와 자재들을 끌어 내지 않고 안전하게 시 공을 할수 있게 된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포성 없는 전쟁에서의 자폭이나 육 탄이 아닌가!

《강창덕중좌!》

모든 지휘관들이 군인의 의리와 존엄을 뿔뿔이 고수한 강대대장의 모습을 선망어린 눈길로 바라보 면서 입을 모아 웅쳤다.

《고맙소. 대대장동무!》

김경진이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니, 아닙니다. 이 방안을 선택할 용단은 부대 장동지가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창덕의 그 말뜻을 아직은 다 헤 아릴수 없었다. 김경진은 빙그레 미소를 띤적동 색의 얼굴로 뜻 있게 강창덕을 마주 보았다.

《대대장동무! 그렇다고 우리는 물이 다 빠질 때 까지 기다리지만 맙시다. 대형양수기로 물을 퍼내 는 한편 물우엔 폐목을 띄우고 그우에서 착암도 하 고 폐목으로 버럭도 날라 냅시다. 락동강도하전투 때처럼 말입니다.》

김경진부대장이 신심에 넘친 얼굴로 말했다.

그의 담대한 착상에 감동된 군관들은 모두다 박 수들 보내었다.

×

후날 부대에 온 기자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김경진상좌와 강창덕중좌의 담대한 선택을 가리켜 커다란 희생이라고 격찬하였다.

하나 그들, 군복 입은 사람들은 도리머리를 저었 다고 한다. 동지와 린점을 위한 헌신, 그것은 희생 이 아니라 우리 군대의 보통의 의리이고 사랑이고.

이 땅이 나를 안다

채동규

1

해도무렵 3월은

토지개혁의 그날 나의 할아버지

분여지 말뚝을 적시던 감격의 눈물이

오늘도 내 가슴에 피처럼 고이는

추억의 계절

난생처음 제 땅 농사 푸지게 지으며

어랑어랑 밭갈이노래 구성지게 넘길 때면

할아버지 눈가에 느슨히 피어 나던 미소

푸근푸근 부푸는 이 흙밭속에 그윽히 어려 있는듯

죽어도 이 땅만은 다시 빼앗길수 없어

도리깨같이 긴 보충을 비껴든 할아버지

침략자 족치기를 가을날 마당질하듯 하였다고

나에게 아버지는 자주 이야기하곤 하였다

할아버지 피가 스민 고향산천에

협동화의 종소리 메아리칠 때

아버지도 배잠뱅이 옷깃 벌바람에 날리며

땀으로 이 땅을 걸곤 농민이었다

어이 잊으랴 내 어릴적 그 나날

아버지의 거름달구지우에 너푼 올라 앉아

푸수한 소똥내에 코를 쫓긋거리며

깨끗한 하늘 논물내음새 비릿한 대지

흰둥이 염소들과 노란둥이 송아지들

대자연의 모든것과 철없이 익히던 뜻정

그때 나는 달구지밖에 타본것이 없다

허나 선대들이 이 땅에 바친

순결한 향토에 숭고한 조국애를 깨달으며

나는 농사군의 자식으로 성장했으니

룡마라도 타고 자란듯 한 심정이다

수령님 주신 이 땅의 갈피갈피에

대대로 농민의 순정을 묻은 우리 가문

대지가 영원하듯 추억도 영원하리니

아 수령님과 한생의 정을 맺고 산

다름 아닌 농민의 후손이어서

이 땅이 나를 안다

2

불도젤편대는 토지정리 발동소리 드높이

얼음 풀린 논벌을 시원스레 밀어 가고

나는 폭 폭! 삽질로 새 논두렁 짓는다

삽날끝에 피어 나는 땅김

온몸을 휩싸 안아 주는 싱그런 흙냄새

이 흙냄새에 젖어 사는것

농민의 한생 아니라

세월도 흐르고 대지도 변모되건만

변함이 없는것은 정든 땅의 흙냄새...

흙에서는

내 갓난시절

어머니 물려 주던 달디단 젖냄새가 풍기고

추석명절 달 밝은 고향의 밤

마을사람들과 두리두리 모여 앉아 달게 먹던

온갖 풋음식들의 향기가 풍긴다

흙냄새에 그들먹히 취하는 때이면

내 첫 농장원이 되던 날

한분조치녀와 방풍장나래 엮으며

그의 깨끗한 머리카락의 향기속에서

이 땅과 청춘의 앞날을 두고

하루하루도 품어 안던 가지가지 꿈이 떠오른다

고난의 세월 하루에도 그 몇번

논머리에 지쳐 쓰러지던 농민들이였던가

그때마다 습습한 향기로 이 가슴 열며

쓰러지지 말라!

농민이 주저앉으면

시련에 찬 전선길에 장군님 고생하신다-

나를 떠일으켜 주던 오, 흙냄새!

설사 우주비행선을 타고

구만리 하늘끝을 난다 하여도

이 땅의 흙냄새 폐부속에 간직하지 못했다면

인생은 죽은 목숨

우주의 한개 먼지에 불과하리라

농민의 추억과 갈망

내 삶의 모든것의 거울처럼 비껴 있는

이 흙냄새!

이 땅의 열매를 먹고

이 땅의 숨결을 호흡하며

이 땅의 천만사연 항시 가슴속에 안고 살려니

지금도 흙냄새는 나에게 속삭인다

《그대는 농민, 나는 그대를 안다

나의 품에서 자란 어질고 근면한 아들

기쁨도 어려움도 나와 함께 나누고
한포기 곡식우에 천만나락우에 운명을 엮고 사는
그대의 생활은 아름다다
농민의 참된 삶은 영원하다!》

3

논과 논이 합쳐 지고 벌과 벌이 이어 저
백리벌 천리벌로 가없는 대평원
토지정리 불길속에 태어난
선군시대의 청춘대지
이 땅이 나를 안다

어찌 이 땅이 나를 모르랴
한없이 넓어 지고 부드러워 진 이 땅과
연백벌특유의 꼬리 긴 말투로
나는 날마다 심중의 이야기 주고 받는다
이 땅을 밟아
진함 없는 활력이 가슴에 끓는
나는 농민

좁고 꼬불진 논두렁들 거미줄마냥 얽혀 있던
대지의 옛 모습 찾을길 없으니
햇송아지 한마리 어리둥절 들가운데 서서
두눈만 순하게 습벽인다
아리랑 새 노래 흥차게 부르며

꼭게 다진 논길 따라
나야 눈 감고도 해종일 걸을수 있는걸!

금방 찢낸 시루떡같이
구수한 흰 김 뿜어 올리는 논벌
눈 녹은 물은 기름같이 여기저기 번들거리고
장화바닥엔 철떡철떡 묻어 나는
찰진 흙덩이

눈 부신 전변의 대지우에
이렇듯 봄이 오면 좋은 종자 골라 심고
가을이면 금나락 거두는 재미에 취해 살리
여기서 나 또한 자식들을 흙내 나게 기르며
우리 장군님 이 땅에 기울으신 사랑에 대해
이 땅의 력사와 미래에 대해 깨우쳐 주리

아, 장군님 길이 보살피시여
행복이 무궁할 사회주의청춘대지!
이 땅이 나를 안다
이랑마다 땀으로 걸우고
새 생활의 환희 들가득 피워 올리며
강성대국의 알찬 열매 무르익혀 가는
다름 아닌 대지의 아들임을 안다
다름 아닌 이 나라 농민임을 안다

백명의 나와 함께

최은희

군복을 갈아 입고
내 모교의 정문에 섰노니
추억에 젖어 오는 이 마음속으로
수많은 《나》들이 뛰어 드는구나

저기 책가방 달랑
엄마손 잡고 뛰어 오는 꼬마야
너는 누구니? 내 물음에
꼬마는 생글생글 《나를 모르겠니
나는 일곱살때 바로 너야》

저기 단기발 드리운 소년단실에서
《항상준비!》 인사하며 마주 오는 소녀야
소소리높은 백양나무아래서
백두산시 읊으며 또 마주 오는 소녀야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대답하지 않아도 내 안다
희망의 저 푸른 언덕을 향해

뚫을 올리던 그 아침의 나를

아 키는 다르고 나이는 달라도
아버이장군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구김살없이 자란 《나》들
그 어느 하나만 없어도
군복 입은 오늘의 내가 아니될
열도 넘고 백도 넘는 《나》들아

백뫼의 사랑을 받고 자란 나
백뫼의 위훈없이 어찌 돌아 오랴
조국이 아는 영웅이 되어
모교여 내 너를 찾아 오는 그날
빨간 령장의 애젊은 병사가
오늘처럼 여기서 나를 맞이하리

행복에 겨워 벅글거리며
《나를 모르겠니
나는 입대할 때 바로 너란다!》

고운 별

한원희

1

복계역은 떠나는 사람들과 내려워 주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떠나는 사람들은 강원땅의 토지정리를 마치고 또다시 평북땅으로 가는 안악군 돌격대원들이고 바래는 사람들은 평강사람들이었다.

《풍년》호 불도젤들과 《천리마》호 트랙토르, 자동차며 화식기재들을 실은 꼬리 긴 화차는 흙사땅크와 군용차량들을 싣고 전선으로 떠나는 군수렬차를 련상시켰다.

등에 무거운 배낭을 지고 량손에 가방을 하나씩 갈라 쥔 처녀 하나가 차관우에 실려 있는 불도젤들을 살피면서 사람들의 물결을 헤쳐 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 처녀는 《황남 38-XX×57호》앞에 이르러 생긋이 웃더니 짐을 내려 놓았다.

처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하얀 손수건으로 꼭꼭 눌러 씻고 나서 가방과 배낭을 차관우에 올려놓는다. 불도젤운전수 한성룡이는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일로 잠깐 자리를 비운것 같았다.

날씨는 찌는듯 무더웠다. 삼복철이 갓 지난 때여서 중낮도 되기전에 한증칸처럼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화차우에 오른 처녀는 자신 있게 익숙한 솜씨로 운전칸의 미닫이를 드르륵 열어 제끼었다.

《아니?!》

처녀는 놀랐으나 다음은 방긋이 웃었다. 한성룡이 운전칸에서 잠들어 있었다.

《성룡동무...》

처녀는 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다. 그러자 한성룡이 눈을 버쩍 뜨고 움쭉 일어났다.

《아, 경희동무요? 이거 안됐소. 헌데 왜 또 나왔소. 조금전에 동무의 아버지도 오셨더랬소. 아이들은 어떻게 하구 왔소?》

경희는 농장유치원 교양원이었다.

경희는 한성룡의 부르튼 입술과 꼭 꺼진 눈확을 바라보면서 아차, 또 몸이 편치 않은게로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알찌근해 났다.

《미안해요. 곤히 자는 사람을 깨워서... 그런데 어디 아픈게 아니예요?》

《아니요. 자, 여기 좀 앉았다가 가오.》

한성룡이 웃으며 옆자리를 내어 준다. 경희는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추억이 반짝이는 눈매로 앞시창을 내다본다. 이제 이 불도젤은 멀리 저멀리 평북땅으로 간다. 강원땅엔 천지개벽을 펼쳐 놓고, 경희

의 가슴엔 가지가지 잊지 못할 사연을 새겨 놓고 떠난다.

《성룡동무, 평북에 가더라도 몸을 돌보면서 일해야 한다는것을 잊지 마세요. 무쇠로 만든 불도젤도 고장이 나는데... 꼭 제 말을 새겨 들어요. 알았지요?》

《그러지. 그러나 무쇠라는건 사상이 없으니깐 알아 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지. 사람이란 신념과 의지가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쳐도 이겨내는거요. 하하...》

한성룡이 즐겁게 웃었으나 수척한 얼굴에 떠도는 병색만은 감출수 없었다.

《글쎄 고집일랑 마세요. 자, 이 가방엔 닭곰과 토끼곰이 있고 여기엔 동무가 좋아 하는 마늘장아찌가 있어요. 점심시간도 되어 오는데 닭곰은 이제 당장 잡숫고 토끼곰은 가다가 저녁에 잡수세요. 배낭에 있는 찰떡은 동무들과 함께 나눠 잡숫더라도 닭곰과 토끼곰은 혼자 들어야 약이 되는줄 알구 꼭 혼자 들어야 해요.》

경희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듯이 하나하나 일러주면서 못내 근심스러워 한다. 한성룡이 껄껄 웃었다.

《고맙소. 헌데 꼭 유치원생 다루듯 하누만.》

《아이참.》경희는 활달한 성미 그대로 한성룡을 나무란다. 《그전에 우리 오빠가 군대에 입대할 때 어쨌는지 아세요? <애야, 이 닭곰은 이 자리에서 먹구 이 토끼곰은 가다가 먹어야 한다, 배낭의 떡은 동무들과 나눠 먹어도 되지만 닭곰하구 토끼곰은 혼자 먹어야 약이 되느니라. > 그러자 오빠가 <어머니, 걱정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인민군대입니다.>하고 군복 앞가슴을 쑥 내밀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오나, 장하다. 오늘부터 난 인민군대 어머니가 되었구나. 허지만 인민군대에 나간 아들을 어머니가 따라 다니면서 늘 뒤바라지를 해주어도 좋다는 인민군대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하시지 않겠어요.》

<뭐예요? 아니,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

오빠의 두눈이 당장 화등잔처럼 되었지요 뭐... 전 허리가 꼬부라 지도록 웃었어요.》

경희는 그때의 웃음이 되살아 나는듯이 호호호 웃는다. 한성룡이도 곁따라 벅글거리었다.

《그참 재미 있소. 더구나 그 말속엔 동무가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숨어 있는것 같구만. 내가 미덥지 못해서 나를 따라 다니면서 돌봐 주어야만 제구실을 할수 있다는...》

《옳아요. 바로 그거예요. 동무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니 걱정이 커서 하는 말이에요.》

처녀는 한숨을 호- 내쉬었다. 사실 그는 어제밤 어머니와 함께 닭곰과 토끼곰을 가마에 안치면서 평복땅에 따라 가 그를 도와 주고 돌아 올 의향을 비쳐 보았었다.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도와 주려는 마음이야 더 이룰데 없지... 그러나 그 사람이 여기서처럼 거기 가서두 진심으로 주인답게 토지정리를 해줄게구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성룡이를 제 살붙이처럼 아껴 줄게 아니겠니. 그러니 너무 걱정 말아라.》

어머니의 말이 옳게 들려서 경희는 그렇겠지, 평복땅 처녀들도 성룡동무를 돕지 않고서는 못 견딜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수긍하였었다...

경희는 가방을 열었다. 먹음직스러운 닭곰이 나왔다.

《어서 드세요. 이걸 잡숫는것을 보고서야 내릴테니 그리 아세요. 차가 떠나든 말든...》

경희는 한성룡이 토지정리 전 기간에 때식을 잊기도 하고 추운 겨울 불도젤운전칸에서 찬 밥을 먹는 때가 많았고 그러다나니 위병이 생긴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성룡이 싱긋 웃으면서 경희가 쥐여 주는 닭곰리를 천천히 입에 가져 갔다. 허나 얼마 못가서 그것을 슬며시 내려 놓았다.

《왜 그러세요?》

《내 좀... 있다가 들겠소. 지금은 속에서 받지 않누만. 내 걱정은 마오. 경희동무, 이젠 돌아 가야 하지 않겠소?...》

《아니예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잡수세요.》

그들이 한참 옥신각신하는데 돌격대장과 위생지도원이 왔다.

《허 이것 봐라. 우린 공연히 왔군. 경희동무가 성룡동무를 돌봐 주고 있으니 말이요.》

대장이 너스레를 부리자 경희는 얼른 일어 나 반갑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였다.

《대장동지, 참 잘 오셨어요. 절 좀 도와 주세요. 성룡동무가 닭곰도 안하겠답니다. 명령해 주세요. <대원 한성룡, 닭곰을 먹을것!> 이렇게요. 제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위생지도원이 웃으며 끼여 들었다. 《성룡동무는 갑자기 닭곰을 많이 먹을수 없습니다. 싫은것을 명령으로 먹여야 안되지요. 이 약과 함께 천천히 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흰 약봉투를 내주었다.

경희는 눈이 휘둥그레 졌다. 아니, 그럼 한성룡의 병이 심하다는것이 아닌가. 닭곰도 먹을수 없는 상

태란 말인가? 처녀는 근심에 싸여 그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성룡동무의 곁에는 경희동무가 있어야 하겠군. 안 그렇소, 위생지도원동무?》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늘과 실처럼...》

두사람은 롱 삼아 즐겁게 웃었다.

《아이참, 왜 바늘과 실처럼이겠어요? 대치차와 소치차처럼이라고 해야지요. 그래야 불도젤이 움직일게 아니예요? 호호-》

경희는 이렇게 웃어 넘기더니 정색해 졌다.

《렬차가 몇시에 떠납니까?》

《저녁 8시요.》

경희는 성큼 일어 섰다.

《제가 떠날 차비를 좀 해가지고 오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따라 가야겠어요.》

그는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화차에서 새처럼 가볍게 뛰어 내렸다.

《경희동무, 정신 있소? 어디에 간다고 그러오. 거기 서시오! -》

뜻밖의 일에 놀란 한성룡이 웨쳤다. 그러나 처녀는 한번 피곳 뒤돌아 보고는 사람들사이를 빠져서 달음박질을 놓았다.

2

김경희가 안악군대대 한성룡이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지난해 추석울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래일은 농장적으로 다 쉬는 날이여서 경희도 유치원에서 돌아 왔다. (농장유치원은 10일유치원이여서 교양원들은 열흘동안 유치원에서 먹고 자며 아이들을 돌본다.) 마침 어머니 오씨가 마당가 수도 앞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처녀는 꽃 같은 웃음을 활짝 피운다.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그리운 어머니다.

《네가 왔구나. 아이들은 다들 집으로 돌려 보냈니?》

《예, 부모들이 다 찾아 갔어요. 그런데 무슨 빨래인데 그렇게 새까만 물이 우러나와요?》

《불도젤운전수의 작업복이 그렇지. 체네들의 빨래처럼 하얀 거품만 일겠냐.》

오씨는 밝게 웃으며 기름때국이 흐르는 물을 쏟아 버리고 새물을 받는다. 경희는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빨래버치앞에 마주 앉았다.

《어머니, 제가 빨겠어요... 우리 집에도 불도젤운전수가 들었는가부지요?》

경희는 며칠전에 도착한 토지정리전투원들이 속소를 집집마다에 정했다는 말은 이미 들었었다.

《그럼, 들어도 끝끝한 젊은이가 들었단다. 네가 전번 휴식날 집에 왔다가 유치원으로 돌아 간 다음

다음날엔가 왔단다. 사람이 일밖에 모르더구나. 오자바람으로 밤낮 밭에 나가 산단다. 집에는 어쩌다가 한번씩 들리곤 한단다.》

산촌의 저녁은 이내 땅거미를 몰아 왔다. 대문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웬 청년이 뿔나무단을 한 짝 지고 성큼성큼 마당안으로 들어 온다.

《임자 왔다. 왜 그동안 집에 들어 오지 않았나?》

《예, 일이 밀려서... 이 나무를 어디에 놓으렵니까?》

청년이 싱긋 웃으며 오씨를 바라본다.

《그렇습니까. 난 안악군에서 온 한성룡이라고...》

청년은 얼굴을 붉히며 경희를 바라보다가 문득 말끝을 맺지 못한다. 경희도 잠시 얼떨떨해 저서 청년을 마주 바라보았다. 아니, 이 운전수동무가 엇그제 그 운전수가 아닌가. 그리 크지 않은 키, 다부진 어깨, 큼직큼직한 이목구비... 그래 그 운전수가 틀림 없어.

《아이, 불도젤 57호!... 운전수동무군요... 우리 유치원아이들을 불도젤에 태우고... 호호...》

《아- 저도 그 유치원선생 같기는 한데 실수를 할 것 같아서... 허허허... 뜻밖인데요.》

《우리 집에 드셨다니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꼬마들이 비를 맞지 않구 무사히... 전 김경희라고 합니다.》

오씨는 딸과 한성룡이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바라보며 입가에 웃음을 담는다.

《그러니 벌써 서로 낯을 익혔던가 보구나.》

《예. 그렇게 되었어요.》

경희는 엇그제 있는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날 농장에서는 울망줄망한 뽕기논의 울버를 가을하고 제창 단을 묶어서 거두어 들이는 일을 벌이었다. 동시에 그 논배미의 토지정리를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였다.

농장관리위원회와 토지정리지휘부에서 서로 짜고 들어 하는 일이라 온 골안이 법석대었다.

경희는 유치원아이들을 곱게 단장을 시켜 가지고 토지정리전투장으로 데리고 나갔다. 말하자면 《꼬마기동예술선전대원》들이었다. 경희의 가슴은 참으로 세찬 흥분속에 뛰놀았다. 나서 자란 고향땅을 천지개벽시키는 력사가 시작된것이다. 경희는 이날에 가만히 앉아 있을수 없어서 그동안 유치원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을 준비해 왔었다. 매개 종목들에는 어린이들이 실수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배워 준 경희의 뜨거운 마음과 노력이 어려 있었다. 노래와 춤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입을 하- 벌리고 웃으면서 박수를 힘껏 쳤다. 《공연》이 방금 끝났을 때였다. 갑자기 비구름이 모여 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허, 이런 변이라구야.》

돌격대장은 그중 가까이 있는 불도젤을 보고 나서 《57호!- 어린애들을 운전칸으로! ... 다른 차들은 일에 착수하시오-》 하고 웨치였다.

그러자 그에 맞받는 메아리처럼 작업반장이 소리쳤다. 《농장원들은 버단을 운반합시다!-》

농장원들이 각기 자기 위치로 흩어 졌다.

57호운전수는 불도젤문을 활짝 열어 놓고 병글 병글 웃었다.

《애들아, 이리로 빨리 오너라.》

어린이들이 《야-》 하고 달려 갔다. 경희도 뒤떨어 진 아이의 손을 잡고 달려 갔다.

소나기는 운전칸지붕을 세차게 두드리고 앞시창에도 휘뿌리였다. 아이들은 밖을 내다보며 깔깔 웃고 떠들어 댔다. 이처럼 무쇠철마운전칸에서 비를 그어 보는것이 신기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 지 잠시도 가만 있지 않는다.

《운전수동무, 미안해요.》

경희는 부잡스러운 애들을 말리면서 운전수를 바라보았다.

《웬걸요. 아이들이 그렇지요. 저도 이런 꼬마<배우>들을 태워 보기는 처음입니다.》

운전수는 얼굴을 붉히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다.

운전수는 《애들아,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니까 우린 불도젤을 타고 가자.》 고 하였다.

아이들은 좋아서 《예!》 하고 일제히 대답하였다.

불도젤은 삽날을 번쩍 쳐들고 비발속을 헤쳐 나갔다. 평시엔 보기 드문 류다른 《빠스》였다.

경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오씨는 《호호... 그 참 무슨 텔레비존에 나오는 소설 같구만.》 하고 웃음을 머금은채 머리를 끄떡이였다.

...경희가 한성룡이를 좀 더 깊이 지내보게 된것은 그후 얼마 안 있어 돌아 온 추석날이었다.

집에서는 떡도 치고 닭도 잡고 술도 장만하였다. 한성룡과 불도젤운전수들이 외지에 와서 추석을 맞는데 어떻게 가만 있으라 해서 아버지가 특별히 부한것이다.

《경희야, 그 사람들이 또 밤을 밝혔나부다. 너 어서 샘골에 가서 성룡이네들을 데려 오렴. 그들을 대접하구 우린 인민군렬사묘에 가자.》

경희네는 해마다 추석날이면 그곳을 찾는다.

경희가 샘골어귀에 들어 서니 울망줄망한 뽕기논들은 흔적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1,000평이 넘어 보이는 논판들이 새로 생겨 났다.

어마- 하고 처녀는 희한한 눈길을 들어 주위를 두리번거리였다.

그는 불도젤이 일으켜 놓은 흙물결에 발이 빠져서 하얀 편리화가 어지러워 지는것도 상관치 않고 57호 불도젤앞으로 갔다. 흙밥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불도젤의 세찬 동음이 처녀의 가슴을 우뢰처럼 울려 주었다. 그 소리는 이 땅이 새롭게 태어나는 고고성처럼 들려 왔다.

불도젤의 몸체에는 《결사옹위》란 글발이 엄엄히 새겨져 있다. 그는 감히 다가설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범접하지 못할 그 무엇이 막아 서는것 같았고 자기의 존재는 마치 거인앞에 선 어린 소녀처럼 느껴졌다. 경희를 알아 본 성룡이 싱긋 웃으며 불도젤을 멈춰 세웠다,

《아니 경희동무군요!》

《수고해요. 정말 멋지군요... 오늘은 추석명절이니 좀 휴식도 해야지요. 아버지가 빨리 내려 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추석음식을 차렸답니다.》

경희의 얼굴은 동녘하늘가에 피어 나는 새벽노을 탓인지 발그스레 물들여 지고 두눈은 정차게 빛났다.

《고맙소. 돌격대식당에서도 특식을 준비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하- 이거 어쩐다?! 그런데다가 오늘 다녀 올 곳이 있어서... 좌우간 알았소. 그러니까 기다리지는 마오.》

한성룡이 뒤더수기를 긁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경희네 세 식구는 아침 일찌기 인민군렬사묘로 간다는게 해가 두어발 올라 온 다음에야 떠났다. 한성룡이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늦어진 것이다.

렬사묘는 하주리 고개너머 읍쪽으로 가는 큰길옆 나지막한 언덕에 있다.

묘비에는 평강군일대 하주리계선에서 싸우다 희생된 수십명의 인민군렬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속에는 경희네 가족이 잊지 못하는 옛 경찰소대장 한석근의 이름도 있다. 한석근은 하주리소년빨찌산이었던 김덕삼(경희의 아버지)에게 날아오는 총탄을 막아 주고 전사하였었다. 그를 안장하던날 김덕삼은 오래동안 울면서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였다. 전후에 덕삼은 인민군대에 입대할 때에도 그후 제대되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도 선참으로 그의 명전을 찾았다. 지금도 추석날이 돌아오면 렬사묘부터 먼저 찾아 보았고 옛 경찰소대장의 뒤편까지 일년내내 일하여 왔는가를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곤 하였다. 그는 살아 있는 사람은 전사한 사람들의 피값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산 사람은 전사한 사람들의 뒤편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굳은 날, 마른 날 한생을 하루같이 농장벌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라는 자식들에게도 늘 그렇게 교양하였다.

경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 떨어 진것도 아버지의 이런 엄숙한 훈계를 받으며 자라났기때문인지도 모른다.

렬사묘로 오르는 충계를 따라 올라 가느라니 발걸음을 삼가케 하는 화강석 묘비앞에 웬 청년이 경건히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경희네는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후에 청년은 렬사묘를 떠나 충계를 내려 온다.

《아이, 아버지, 한성룡동무예요.》

경희는 반색하며 눈을 빛내었다. 어데 다녀 올곳이 있다더니 여기에 오자고 그랬구나. 미리 알았더라면 식사를 함께 하고 같이 와도 될걸...

《성룡동무-》

경희의 부름에 한성룡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경희네 가족을 알아 보고 오래간만에 만난듯이 기뻐 한다.

《안녕들 하십니까. 온 가족이 다 오셨군요!》

김덕삼과 오씨는 뜻밖의 사실에 놀란듯 눈을 습박이었다.

《아니, 임자가 웬 일인가. 어떻게 여길 다...》

《오늘은 추석날이 아닙니까. 누구나 다 찾는 곳인데...》

한성룡은 자기는 먼저 내려 간다고 자리를 떴다.

《히, 외지 사람이 여기에 오는것은 쉽지 않지. 흔치 않은 젊은이로군.》

김덕삼은 생각에 잠겨 충계를 오른다. 오씨와 경희는 한성룡의 뒤모습을 정겨운 눈매로 돌아 보았다. 새벽까지도 토지정리장에서 밤을 새운 그가 아닌가. 이렇게 경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성룡이를 미덥게 보았다.

3

북계역에서 하주리까지는 10리가 넘는다. 경희는 쉬지 않고 달리였다. 더위에 숨이 격격 막힌다. 어느덧 하주리고개에 올라 섰다. 그는 소나무그늘 아래 앉아 잠시 땀을 들이였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 왔다. 고향마을이 한눈에 안겨 온다. 그전날 땀기논들은 간 곳 없고 바둑판처럼 펼쳐진 포전에 줄대같이 실한 벼포기들이 짙들어차 설레이고 있다.

경희는 추억이 한껏 젖어 드는 눈길로 고향땅을 바라보았다. 눈보라치는 밤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불도젤을 수리하고 버들개지가 귀여운 솜털외투를 입고 해죽이 눈을 뜨던 올해 이른 봄에 처음으로 불도젤조향대를 잡고 땅을 밀어 가던 법을 배우던 곳은 그 어디바루인가. 지금은 그우에 알찬 이삭이 무르익어 간다. 그것은 마치 한성룡이 두고 간 마음처럼 애뜻이 느껴 온다. 성룡동문 이 시각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가. 닭곰은 좀 들었을가. 앓는 몸으로 또다시 멀고 먼 곳으로 가는 동무, 생소한 고장에 가면 누가 그의 고집스러운 성미를 알아 살뜰히 보살피 준담… 그가 우리 마을 토지를 정리하느라 애쓰다 병을 만났으니 여기서 꼭 완치시켜 보내야 하는건데 …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를 따라 가서 돌봐 주어야 해. 어머니도 아마 허락하실거야…

까치 한마리가 어디서 날아 왔는지 소나무가지에 앉았다. 까치는 키질하듯 꾀지를 우아로 달싹이며 깹깹- 하고 경희의 명상을 깨친다. 경희는 문득 정신을 차리었다. 그는 얼른 일어 나 고개길을 달려 내려 갔다.

《벌써 왔니? 예구, 저 땀을 봐라. 그래 그 사람들이 떠나갔니?》

집오래를 거두던 오씨가 허리를 펴면서 경희의 얼굴을 살핀다.

《너 성룡이 그 사람한테 닭곰이랑 다 제대로 주었느냐?》

경희는 숨이 차올라 갑자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닭곰이랑은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동무가 심하게 앓고 있어요. 닭곰도 먹지 못해요.》

경희는 그때에야 터진 물목처럼 안타까운 심정을 다 말하고 나서 한성룡을 따라 평북도에 갈 결심을 더놓았다.

《에그나, 네가 또 그 소리구나. 우리 두 늙은이들이 너를 지팽이 삼아 살아 가고 있는데 너는 그걸 생각해 보고 하는 소리냐?》

오씨는 한숨을 내쉬고 토방에 풀썩 주저 앉는다. 경희는 어머니말이 가슴에 파고 드는것 같았다. 지난해보다 흰 서리가 더 많아 진 머리, 눈에 띄게 굽어 지는 허리, 그러면서도 성룡이 일이라면 밤이 열이라도 기리지 않는다. 어머니가 측은해 닳다. 별안간 눈물이 솟는것을 입술을 움켜물고 참았다. 열흘마다 유치원에서 돌아 오는 날이면 아무리 늦어 저도 자지 않고 기다리는 어머니, 늘 입버릇처럼 외우는것은 딸을 가까운 곳에 시집을 보내고 보고 싶을 때 보면서 살겠다는것이다.

경희는 성미가 활달하면서도 마음씨도 고와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그를 좋아하였다. 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도예술대학에서 데려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딸은 기어이 농장에 배치 받았다. 한해가 지나서 농장에서는 그를 유치원교양원단기강습에 보냈다. 아이들의 정서교양에 경희만 한 처녀가 어디에 있으랴. 그야말로 농장의 보배요, 가정의 보배다. 이런 딸을 생판 외지에 내놓고 어이 살가 하는것이 오씨의 심정이었다.

《어머니, 전 어머니마음을 잘 알아요. 허나 제가 가면 아주 가나요. 그 동무에게 교대운전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여기서처럼 하루 두교대, 세교대일을 저 혼자 할테니 몸이 견디 내지 못해요…》

집을 떠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스럽고 그냥 남아 있으면 한성룡이가 걱정되어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안타까웠다.

《그 사람은 어디에 내놓아도 나무랄데 없지. 원참, 거기에 가선들 일욕심을 버릴라구. 차라리 내가 가서 도와 주고 싶지만 그럴수도 없구… 어쩌면 좋을지 원…》

오씨는 한성룡이를 일년 가까이 지내보는 동안 사람이 진국이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 다음부터 꼭 사위로 맞고 싶었다. 그러나 안악이란데가 너무 멀고 한성룡의 부모의 의향도 모를뿐만아니라 그가 평북도로 떠나니 지금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평북도토지정리나 끝나면 이 일을 성사시켜 보리라고 버르었다.

경희를 따라 보내서 그를 돌봐 주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하늘 같고 땅 같지만 처녀를 어떻게 오늘 당장 떠나보내겠는가.

경희는 어머니의 허락을 기다리었다. 어머니도 한성룡이를 얼마나 미덥게 여기는가를 그는 잘 안다.

4

《어머니, 오늘은 샘골토지정리를 끝낸대요. 굉장하지요. 그리구 버들골로 옮겨 간대요. 뭘 좀 준비해 주세요. 일도 할겸 지원사업도 할겸 샘골에 가보겠어요.》

유치원에서 쉬는 어느 날 경희는 어머니를 들볶아 댔다. 경희는 작업복을 갈아 입는다, 장화를 찾아신는다 분주탕을 피웠다. 《원 저렇게두 덤벼 친다구야… 그러지 않아도 고구마를 한가마 삶아 놓았다.》

《글쎄- 우리 어머니가 체일이야!》

경희는 어머니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면서 호호 웃었다.

잠시후에 그는 벌써 뜨거운 고구마를 큼직한 가방에 가득히 넣어 가지고 대문밖을 나섰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밤에는 땅결면이 얼고 개울가에는 살얼음이 끼는 때다.

샘골어귀에 들어 서던 그는 자리에 주춤 섰다. 불도젤이 와룡거리며 내려 오고 있기때문이었다. 하나, 둘, 셋… 석대다. 아이, 벌써 버들골로 이동하구나. 경희는 방긋이 웃으며 불도젤을 맞받아나갔다. 삽날을 햇빛에 번쩍이며 맨 앞장에서 오는 차는 57호다. 저것 보지. 운전칸에서 병긋이 웃는 한성룡동무, 그옆엔 돌격대장…

경희앞에 불도젤이 멈춰 섰다. 돌격대장이 차문을 열고 상반신을 내밀었다.

《경희동무가 또 왔구만. 날씨도 추운데 어서 이리 올라 오우.》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운전칸에 타고싶었어요. 자, 이걸 먼저 받으세요.》

처녀는 가방을 쏙 들어 올려 주고 자기도 오른다. 《에크··· 꽤 무거운데. 이걸 뭐요? 뜨끈뜨끈하구만.》

《어머니 <지원품>이에요.》 경희는 돌격대장을 넘어 한성룡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을 이었다. 《성룡동무, 왜 그동안 집에 들어 오지 않는가고 어머니가 걱정해요. 그러다가 병을 만나겠어요.》

《왜 안 들어 가겠소. 들어 가야지요.》

한성룡이는 멋 적게 웃으며 변속기를 넣어 불도젤을 앞으로 전진시킨다.

어느 사이 그들의 앞에는 자그마한 나무다리가 나타났다. 샘골과 버들골사이를 흘러 내리는 개울우에 놓인 다리다. 기껏 해서 길이가 10미터쯤 되고 높이도 사람의 한길이상을 넘지 않았다.

한성룡은 불도젤을 조심히 몰았다. 다리를 다 건느자 그는 차를 멈춰 세웠다.

《대장동지, 다리가 시원치 못합니다. 차가 흔들리는게 불안합니다. 첫차가 이러는데 다음 차들이 무사히 건졌는지 다리를 좀 봐야 하겠습니까.》

《쫄소, 내려 가 봐야겠소.》

그들은 운전칸에서 내렸다, 경희도 따라 내렸다. 돌격대장은 53호와 58호를 다리목에 멈춰 세웠다.

《다리가 불도젤중량을 이겨 내겠는지 모르겠소. 우린 건넜지만··· 우리가 감시할테니 신호에 따라 건느시오.》

세사람은 다리밋으로 내려 갔다. 개울 양쪽기슭에는 살얼음이 졌지만 가운데는 물이 흘렀다. 바로 그 물속에 통나무교각이 솟아서 다리를 떠받들고 있었다. 그들은 다리를 깐깐히 살펴 보았다. 다리는 오래전에 세워져 미타하였지만 어느 부분이 썩었거나 이상한것은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바쁘는데 건너 봅시다. 감시를 하면서-》

《그러지요.》

돌격대장은 다리목에 서있는 불도젤을 향해 손을 높이 쳐들어 출발신호를 하였다.

《앞으로! 천천히-》

53호가 다리를 건느기 시작하였다. 경희는 웬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려였다. 옆에서 안심치 않아 하는 말을 들으니 다리가 무척 낡고 위험해 보였다. 53호가 다리중간에 들어 섰다. 그러자 교각이 부르르 떨리고 다리의 어느 부분에서 신음소리와 같이 삐그극- 하는 소리가 났다. 흙덩어리가 물우에 쳤

병첨병 떨어 저 내렸다. 그러나 53호는 다리를 무사히 건너 왔다.

58호가 건너 올 때 경희는 손에 땀을 쥐었다. 두번째 불도젤 53호가 건널 때보다 교각이 더 흔들리고 좀 더 큰 흙덩어리들이 떨어 저 내린다. 이것은 다리의 나무이음짚들이 버그러지면서 점점 그 공간이 커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한계를 넘으면··· 처녀는 자기의 몸우에도 불도젤의 거대한 무게가 떠실리우는것 같아 숨이 가빠 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앗- 교각이 ...》

한성룡이 갑자기 이렇게 웅치며 비호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번개처럼 발자국을 옮겨 디딜 대마다 물방울들이 사방으로 휘뿌려 졌다. 경희는 그때에야 교각기둥 하나가 천천히 바깥쪽으로 쏠리는것을 보았다. 어마-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한성룡이 덮치듯 교각기둥을 그러안고 어깨를 들이밀었다. 혼자서 무슨 힘으로··· 어떻게 혼자서··· 처녀는 문득 한성룡을 도와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그 순간 그는 정신없이 개울물에 뛰어들었다. 현대 자기앞에 물보라를 뽐양게 일으키며 앞서 달려 가는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 아, 참- 돌격대장이구나. 나하고 셋이면··· 힘을 합치면 ...

처녀는 벌써 생명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었다. 오로지 이 순간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것밖에 다른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경희는 한성룡과 돌격대장의 사이를 뚫고 들어 갔다. 어깨를 교각기둥에 대었다. 죽을 힘을 다했다. 차디찬 개울물이 배허벅에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찬지 더운지 몰랐다. 시간도 정지된것 같았고 세상이 멈춰 선것 같았다.

《됐소. 이젠 됐소, 다들 물러 나라구-》

불현듯 머리우에서 귀 익은 목소리가 울리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경희는 그제야 머리우를 올려다 보았다. 어느 사이 굵다란 통나무가 삐여 저 나오는 교각끝에 든든히 버티여 저 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통나무인가. 처녀는 주위를 돌아 보았다. 아버지가 물속에 서서 교각이 안전한가를 보고 계셨다. 그옆에는 한성룡과 돌격대장 또 그옆에는 작업반장과 53호 불도젤운전수가 서 있었다. 처녀는 창황중에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사람들이 달려 오고 그들을 도와 나섰는지···

개울가에 모닥불이 타올랐다. 사람들은 물에 젖은 바지를 입은채로 쥐여 찼다.

《아바이, 고맙습니다. 아바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돌격대장이 진심으로 김덕삼의 손을 붙잡았다.

《임자들이 수고했네··· 헛참, 자네들이 이렇게 빨리 이동할줄은 모르구 오늘 오전중에 다리를 수리

하면 되리라고 여기구 나왔더니... 안됐네. 주인공 실을 못해서. 안 그렇나. 작업반장-》

《아 그야 이를 말씀인가요. 다리를 수리할 생각도 아버지가 귀찮았기에 망정이지... 내 불찰이 큼니다.》

《허, 반장이 나를 칭찬할 셈인가?》

김덕삼의 말에 일동이 모두 즐겁게 웃었다. 경희는 언제나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시는 아버지가 더욱 존경스러웠다.

《아버지, 신발을 벗으세요. 모닥불에 말리워 드리겠어요.》

《일 없다. 네 옷이나 말리워라. 헌데 성룡이 이 사람, 임자는 왜 그러구 있나? 응?》

김덕삼이 어떤 예감이 든듯 근심스럽게 묻는다.

《예, 제 좀...》

한성룡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가 풀자루 주저 앉듯 한다.

《왜 그러세요. 성룡동무, 어디 다치지 않았어요?》

한성룡이는 왜서인지 차디찬 땅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경희는 성룡이에게로 다가갔다.

《허, 이것 참... 허리가... 아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긴장성이 풀렸기때문이었지요. 허허.》

한성룡이 여러 사람들의 걱정을 일으킨 자신이 민망스러운듯 얼굴을 붉히며 어쭙게 웃었다. 아이참, 긴장성이 풀렸기때문이라니, 아니야. 허리를 되게 다친게 분명해. 첫 순간 우리가 달려 가기전에 혼자서 넘어 지려는 교각기둥을 지켜 내지 않았던가. 그때야, 그때 허리를 상했구나. 그런데도 말하느니 좀 봐. 우리를 안심시켜 보자구... 상기도 젖은 옷두 못 짜구... 경희는 자책이 가슴에 파고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내가 왜 관심을 두지 못했을까. 처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되겠다.》

김덕삼이 한성룡의 등뒤로 돌아 가 랑쪽 겨드랑이에 두손을 넣고 조심히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한발자국 두발자국 모닥불곁으로 옮겨 갔다.

한성룡은 그 몸으로 그날부터 또다시 불도젤을 탔다.

며칠간이라도 누워서 안정치료를 해야 한다고 돌격대장이 엄격히 《명령》하고 경희가 애원하듯했지만 그는 다 듣지 않았다....

오늘은 그 한성룡이 떠나간다. 어머니와 딸은 오래동안 말이 없었다.

오씨는 딸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굽히지 않는다는것을 잘 안다. 유치원교양실을 군적으로 가장 훌륭히 꾸려 놓은것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영양식사를 시킨다고 염소와 토끼, 닭을 길러서 매일 우유와 닭알을 먹이고 있는것이라든가, 여하튼 자기가 옳다

고 생각하는것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악하게 달라붙는 성미였다.

오씨는 딸의 진정을 꺾지 못하리라고 여겨 졌다. 딸을 옆에 끼고 있고 싶은 심정때문에 한성룡이와 같은 사람을 도와 주려는 그 마음을 어찌 몰라 주랴. 다른 누구도 아닌 한성룡이를 따라 가겠다는것이 아닌가. 오씨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못 간다, 못 가. 네가 어떻게 불도젤을 탄다구 그러느냐. 사람은 옛날부터 남자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녀자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게다. 네가 유치원 교양원으로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사는데 그게 싫어서 집을 떠난단 말이야?》

《아이참, 어머니두. 제가 뭐 칭찬이나 바라고 살아요?》

경희는 어머니가 끝내 허락하지 않을것만 같아 속이 상했다.

《그래두 사람이 한번 났다가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불도젤을 타다가 멀미를 해서 게우구 사지가 나른해서 처녀가 그게 무슨 꼴이야?》

《호호, 어머니 제가 처음에 멀미했던것만 생각나구 그후에 멀미도 안하고 땅을 밟아 가던것은 생각나지 않으세요?》

경희는 눈을 크게 흘기며 생글거리었다.

5

오씨의 말도 옳고 딸의 말도 옳았다. 경희는 처음에 멀미를 죽게 했지만 그후엔 멀미를 이겨 냈을뿐만 아니라 불도젤을 제법 몰았다. 경희가 처음부터 불도젤을 탈 꿈을 키운것은 아니었다.

한성룡은 한달동안의 진단서도 개의치 않고 밤낮이 따로 없이 일만 하였다. 자신을 다 바쳐 가는 그 열정의 불은 처녀의 가슴에도 뜨거운 불을 달아 주었다.

버들골토지정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 경희는 한성룡의 밥을 싸들고 나갔다. 저녁이라고는 하지만 날은 벌써 어두웠다.

넓은 벌 한가운데 타오르는 화불이 여기저기 쏘여 있고 전조등을 켜 불도젤들이 와룡거리었다.

처녀는 논두렁들을 타고 넘으며 불빛을 향해 걸었다.

물웅덩이가 나타났다. 거기서 한사람이 물을 길는 형체가 어슴푸레 보였다. 그 사람은 물을 길어가지고 기슭으로 나오는것 같더니 《에크-》하고 넘어 졌다. 물통이 덜렁덜렁 굴러 내리는 소리가 났다. 《가만 있어요, 제가 도와 줄게요.-》

처녀는 달려 갔다. 넘어 진 사람을 일으켜 보니 뜻밖에도 한성룡이다.

《경희동무구만! 하, 이거 하필이면 이럴 때 동무를 만날게 뭐람… 안됐소. 내 그만 지팽이를 헛짚고…》

한성룡이 벌치 않은듯 말하였지만 경희의 가슴은 불안과 걱정으로 떨리었다. 혹시 다쳤던 허리에 또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어디 한번 걸어 보세요.》

《일 없소. 이것 보요.》

한성룡이 지팽이를 짚고 걸어 보려 했으나 잘되지 않았다.

《이 어둠속에서 그 몸으로 어떻게 물을 길는단말이예요. 여기 앉아 꼭꼭 말구 쉬어요!》

경희는 물웅덩이로 굴러 내린 물통을 찾아서 물을 길어가지고 나왔다.

얼마후에 그들은 불도젤의 뿔각장치에 물을 부어 넣고 운전칸에 올랐다.

《밥이 식기전에 어서 잡수세요.》

《먹어야지.》

한성룡이 대답을 했지만 조향간을 잡고 불도젤을 앞으로 내몰았다. 발동소리가 점점 커지고 불도젤이 용을 쓰는것이 알리었다. 온몸이 흔들리고 역한 기름냄새가 풍겼다. 눈 깜박할 사이에 불도젤이 벗어 서는것 같더니 이번에는 뒤로 물러난다.

경희는 앞을 내다 보았다. 낮은 눈에 두엄무지만 한 흙더미가 생겨 나고 뒤로 들어 오면서 깊숙한 흙태기가 패인것이 보였다. 어마나- 단숨에 저 많은 흙을 밀어 놓았구나. 경희의 놀라움이 채 사라지기도전에 불도젤은 다시 앞으로 전진하였다.

경희는 한성룡의 운전동작을 유심히 살피었다. 그는 한성룡의 손동작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그 손잡이는 무엇인가, 그것을 조절하면 왜 그런 변화가 일어 나는가를 하나하나 물었다. 그때마다 성룡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재미났다. 밤 가는 줄도 몰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처녀는 점차 머리속이 뻥해 지고 속이 메스메스해 졌다.

방금이라도 먹은것을 게을것만 같았다. 부끄럽게도 총각앞에서 게운다면 이 무슨 추태란 말인가. 허나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아 주지 않는 멀미는 지긋게도 그치지 않는다. 처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었다. 한성룡이는 차를 세웠다.

경희는 다음날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전신이 나른해서 오금을 놀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만한 멀미에 주저 앓을 경희가 아니었다. 그는 며칠후 밤에도 현장으로 나갔다. 나는 하루저녁에 멀미고통을 겪었는데 그는 일년사철 불도젤을 타지 않는가. 그것도 허리를 다치고고도… 무엇때문에 그는 고생을 달게 여기는가. 무엇때문에 극성스럽게 토지정리전투장을 떠나지 않는것일까. 경희는 이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성룡이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 가슴속에 깊이 묻어 둔 불이 더욱 뜨거운것이다.

이런 사람을 보고도 도와 주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지. 밥을 날라 주고 빨래를 해주는것도 도와주는것이지만 기본은 한성룡의 불도젤을 타는 시간을 줄여 주는것이다. 그러자면 교대운전수가 빨리 와야겠는데 언제 퇴원할지 누가 안담.

돌격대장은 한성룡에게 그의 진단서를 내놓으며 안정치료를 몇번이나 명령했었다. 그에게 엄격한 《두문》 처벌도 내리었다. 그랬지만 그는 자기의 불도젤이 놀고 있는것을 보고는 참지 못해서 지휘관들의 《감시》망을 슬그머니 빠져 나와 제 할 일을 다하였다.

어떤 명령과 어떤 묘책으로도 한성룡을 쉬울수 없었다. 그를 불도젤에서 떼내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교대운전수야. 교대운전수가 있어야 그의 휴식시간을 얻어낼수 있어… 교대운전수는 내가 할테다. 내가 할테야. 녀성비행사도 있을라니…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다진 처녀는 유치원아이들을 잠 재워 놓고 밤마다 토지정리장으로 나갔다. 이 날날에 그는 멀미도 이겨 내고 능숙치는 못해도 작업조건이 좋으면 단독으로 흙을 밀어 갈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는것은 불도젤로 바위를 밀어 내기보다 더 힘들다.

《어머니, 허락해주세요. 네? 우리 농장 토지를 번듯하게 정리해 주고 가는 성룡동무를 끝까지 도와 주자요. 전 그 동무에게 약속했어요. 따라 갈 준비를 하고 오겠다고요.…》

《뭘라구? 약속? 제 마음대루?! 너에겐 벌써 아버지, 어머니도 없나? 에이구나…제 마음대루…》

오씨는 그 자리에 폴짝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 졌다. 마음속에 밝게 떠서 반짝이던 별이 줄지에 사라진것만 같았다. 오씨에게는 경희가 아직 태어나기전 몸안의 태아로 있을 때에도 먼 곳에서 신비롭게 깜박이던 애기별이었고 다 자란 오늘에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언제나 기쁨을 주는 별이었다. 그런 딸이 한성룡과 같은 훌륭한 젊은이를 위해 주는 것은 더없이 기특하지만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것은 나무라왔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자는거예요.》

경희는 오씨의 손을 다정히 어루쓸며 속삭이듯 말했다. 오씨는 경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이걸 놔라. 아버지두 아마 필쩍 뽀실게다. 그래 제멋대루 약속하구 그 사람을 따라 가겠다면 아버지가 가만 놔둘줄 아냐?》

오씨는 제 힘으로는 딸의 마음을 돌려 세울수 없어 령감을 끌어다 대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령감이 미타했다. 령감이 딸의 행동을 지지할것만 같았다. 그래서 령감이 없는 사이에 당장 딸의 마음을 꼭 눌러 놓아야 했다.

경희는 막 안타까웠다. 어머니는 끝내 허락하지 않을 잡도리다. 어머니말마따나 혹시 아버지도 승낙하지 않으면… 아니야. 아버지는 그러실분이 아니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피로히면서 떠나는것은 팔로써 못할 일이다. 그는 저도 모르게 숯구치는 눈물을 겨우 참았다.

이때 밖에서 《경희 왔니?》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김덕삼이 농립모를 벗어 활활 부채질을 하면서 성큼 대문을 넘어 선다. 《음, 넌 언제 돌아 왔니?》

김덕삼은 퇴마루에 올라 앉으며 물었다.

《조금전에 왔어요. 성룡동무가 몹시 앓아서 뭇줄 준비해 가지고 가려구…》

《잘했다. 아까 보니 그 사람이 신색이 좋지 않더구나. 곁에서 돌봐 줄 사람이 있어야 하겠더라. 네가 그 사람을 따라 가거라!》

경희는 난감하게 생각되던것이 이렇게 쉽게 풀리자 어린애처럼 손뼉을 치며 발까지 굴렀다.

《아이, 아버지생각이자 제 생각이었군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보세요, 어머니.》

오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나 경감을 마주 쳐다보았다.

《아니 경감, 그게 정말이우? 그럼 우린 어떻게… 난 못 보내겠수다. 경희가 둘이라면 몰라두…》

《허허, 난 경희가 열이라면 열을 다 보내겠소. 성룡이가 어떤 사람인줄 다 알면서두 그러누만. 그 사람이 한석근소대장의 혈붙이인줄 잊었소? 사람이 제 생각만 하면 안되지.》

《누가 잊는댔수. 그걸 어떻게 잊겠소. 난 그저 저애를 떠나보내면…》

오씨는 자기 집 온 가족이 잇을래야 잇을수 없는 옛 정찰소대장이 다름 아닌 한성룡의 할아버지라는 걸 뜻밖에 알았을 때 깜짝 놀라던 그날이 떠올라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날은 지난해 초겨울 한성룡이 무너지는 다리기둥을 몸으로 받치다 허리를 다치던 날이었다.

집으로 달려 간 경희는 숨이 턱에 닿아 혈떡거리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성룡동무가 허리를 다쳤어요. 옷도 다 적시구… 마른 옷을 가져다 주어야겠어요》

오씨는 놀란 눈을 크게 떴다.

《뭐? 그 사람이?! 너도 온통 물침봉이구나. 도대체 무슨 영문이야?》

《그걸 언제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 동무가 동상을 입겠어요. 어서 주세요. 후에 이야기할게요.》

《오냐, 그래라. 넌 옷방에 올라 가서 그 사람의 트렁크를 열구 속내의를 꺼내오렴. 내 며칠전에 그 사람 내의를 빨아서 넣어 두었다.》

오씨는 움쭉 일어 나 옷장문을 열었다. 경희는 옷방에 올라 가서 한성룡의 트렁크를 급히 열었다. 내의를 꺼내기 시작하였다. 옷밑에는 붉은색투쟁의 큼직한 수첩이 있었다. 표지에는 《토지정리전투기록장》이라고 써여 있다. 처녀의 눈은 대뜸 호기심

으로 빛났다. 《토지정리전투기록장》! 멋진데… 여기엔 무엇을 써넣었을까. 경희는 수첩을 펼쳤다. 첫장엔 누렇게 퇴색한 신문을 오려 붙이었다. 거기엔 《최고사령부보도》라는 큰 제목밑에 《평강군 하주리계선에서 적을 완전히 구축》이라고 찍혀 있는 부제목이 눈에 확 안겨 든다. 아, 이게 뭐야. 우리 하주리구나. 평강군 하주리야! -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경희는 성급히 글줄을 더듬어 내려 갔다.

《…영웅한 조선인민군 제2전선부대들은 평강군 인민유격대와 긴밀한 련계밑에 1952년 10월 X일 하주리에 등지를 틀고 있던 적 한개 련대를 일거에 소멸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한석근소대장이하 정찰소대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장병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

경희는 벌떡 일어 났다. 뭐?! 한석근소대장?! 아니 이런… 그는 도무지 믿어 지지 않아 다시 눈을 밝혀 읽어 보았다. 틀림이 없다. 아니 이게 언제 어느 때 신문이람, 전쟁시기 신문이구나.

한성룡동무가 이 신문을 왜 귀중히 간직하였을까.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처녀는 서둘러 다음 장을 펼쳤다.

주체 87(1998)년 9월 X일

나는 나의 할아버지 한석근소대장이 싸웠으며 목숨 바친 땅인 평강군 하주리에 왔다. 선렬들이 피로 지킨 이 땅을 더욱 살기 좋은 땅으로 가꾸어 가는 것은 우리 후대들의 의무이며 의리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그대 그 정신으로 토지정리전투를 벌리겠다. …

문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경희는 무얼 하고 있냐. 마른 옷을 가져 온다고 하더니-》

《아버지예요? 빨리요, 빨리 들어 오세요. 어머니도… 아이 글썄, 이걸 좀 보세요. 한성룡동무가 글썄…》

경희는 환희에 넘쳐 부르짖었다. 김덕삼과 오씨는 무슨 일인가 하여 옷방으로 올라 왔다.

《아버지, 이걸 보세요. 최고사령부보도예요! 전쟁시기 보도예요! 평강군 하주리에서 적을 완전히 구축한… 한석근소대장의 이름도 있어요!》

《뭐?!-》

김덕삼과 오씨는 약속이나 한듯 똑같이 이렇게 놀랐다. 김덕삼의 두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 쥐었다.

《여보… 돌보기…》

김덕삼은 오씨가 가져 온 돌보기를 끼고 신문을 읽었다. 그의 눈앞엔 어느덧 가렬처절하던 전화의 날이 어려 오고 콩 볶듯 하던 총소리와 만세의 함성이 들려 왔다. 그리고 철갑모아래 눈빛이 날카롭던 한석근소대장이 적의 지휘부를 노려 보며 돌격

을 명령하던 짧고도 낮은 목소리가 귀에 쟁쟁 살아났다. 김덕삼은 마치 살아 있는 옛 소대장을 만난듯 가슴이 쿵쿵 뛰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 한성룡이 그 사람이 한석근소대장의 손자라니... 파시 그 피줄이 그 피줄이다.》

김덕삼은 이렇게 혼자소리로 말하고 나서 한성룡의 《토지정리전투기록장》을 소중히 어루만지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세사람은 다같이 지난 추석날 렐사묘에서 만났던 한성룡이를 생각했으며 제 몸을 무너지는 교각에 내대던 모습이며 낮이나 밤이나 토지정리장을 떠나지 않던 모습을 그려 보았다.

...오늘은 한성룡이를 따라 경희가 가려고 한다. 경희가 가려는 그 길이 옳기야 옳지. 그래서 렐감도 선뜻 보내자고 하지 않는가. 가장인 렐감이 한번 말했으면 다시. 하지만... 오씨는 정작 딸을 보내자니 섭섭하기 그지없었다.

《정 그렇다면 리당이랑 관리위원회랑 어쩔지 의논해 보시구려.》

《내 벌써 리당과 관리위원회에 들렀댔소. 경희야, 난 네가 어제 밤 부엌에서 어머니랑 하는 말을 다 들었다. 장하다. 사람은 그래야 한다.》

사실 김덕삼은 어제 저녁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궁싯거리기만 하였다.

래일은 토지정리전투원들이 떠나간다고 하지 않는가. 내 무엇으로 한성룡이를 위해 주겠는가. 참 얼마나 기특한 젊은이람... 부엌에선 한성룡에게 줄 닭곰을 만든다, 떡을 찐다 하면서 로친과 딸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주고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이야기에 딸이 한성룡이를 따라 가서 도와 주고 오겠다는 말이 섞여 들었다. 김덕삼은 귀가 번쩍 열려 별떡 일어 나 앉았다. 그래야지,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하구말구. 그는 방금 이 일을 리당비서와 의논하고 오는 길이었다.

《리당비서는 내 말을 다 듣더니 <우리 하주리땅에서 고운 별이 또 하나 솟아 올랐습니다.>라고 하시더라. 어서 따라 가 정성껏 도와 주거라. 성룡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응?》

김덕삼은 부채질하던 농립모를 내려 놓으며 추억 깊은 눈길을 들어 먼 하늘가를 바라본다.

경희는 자기도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 생각 깊은 눈길을 보내며 나직이 대답하였다.

《네. 알겠어요, 아버지.》

오씨는 리당비서가 하주리땅에 고운 별이 또 하나 솟아 올랐다고 했다는 말을 듣자 은근히 놀랐다. 마치 제가 품고 있는 속생각을 다 알고한 말같았다. 그래, 우리 경희야 고운 별이지. 그런데 내가 남이 못 보게 내 가슴에만 품고 있으려 했구나. 고운 별은 높이 떠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하구말구. 경희야, 넌 이 에미 하나만의 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별이 되었구나.

《그럼 어서 서둘러야 하겠구나. 차시간이 늦지 않게-》

오씨는 비로소 마음이 거뜬해 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우리 어머니 제일이야!》

경희는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명랑한 웃음을 터뜨렸다. 김덕삼과 오씨도 따라 웃었다.

6

경희는 무거운 배낭을 지고 역개찰구로 빠져 나갔다. 땀이 비 오듯 했다. 그뒤로 경희의 가방, 보따리를 손에 든 김덕삼과 오씨 그리고 리당비서가 따라 나섰다. 그들이 역홈에 들어 섰을 때에는 급기야 차가 떠나는 시간이었다.

《어머니, 빨리요. 빨리-》

경희는 배낭을 추슬러 올리면서 종종걸음을 쳤다. 허나 붉은 철도모를 쓴 조역이 푸른 신호기를 엄숙히 추켜 든채 경희에게 《동무-》하고 제지시켰다.

경희앞으로 불도젤들을 주련이 실은 무개화차들이 천천히 지나가면서 점차로 속도를 높인다.

경희는 발을 동동 굴렀다. 한발만 먼저 왔다면... 아니 저녁 8시에 렐차가 떠난다더니 아직 시간도 되기전에... 어찌된 영문인가? 경희는 급한중에 자기앞을 지나치는 앞뒤화차들을 이쪽 저쪽 번갈아 보았다. 한성룡이 타고 있는 화차가 지나쳤나 지나치지 않았나. 그가 나를 찾겠는데 왜 안보이는가. 혹시 그가 나를 떼여 놓으려고 불도젤운전칸에 숨었을가. 아니면 몸이 더 아파서?...

바로 그때 앞을 지나치는 차판에서 돌격대장이 소리쳤다.

《경희동무- 다음, 다음 차판에 그가 있소! 뒤따라 오시오. 오늘 밤 12시 신천대대가 떠난다오- 동무를 환영...하...겠...소! -》

처녀는 《네- 알- 앓어-요.- 고마- 워-요!-》하고 대답하고 나서 이쪽으로 머리를 돌리었다. 한성룡이 탄 화차가 차바람을 일으키며 달려 오고 있었다. 그는 경희네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소리친다.

《아바이, 안녕히 계십시오-》

김덕삼과 오씨는 손을 마주 흔들었다.

《가거들랑 편지를 하라구.》

김덕삼은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불뭉치 같은것이 불끈 솟는것을 느끼었다. 그는 한성룡이 평복도 어느 군에 가 있는가를 알아서 자기도 꼭 다녀 오리라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제 났던 표적을 남긴다는데 그것은 자식-후대들이다. 피와 골육, 정신과 성격을 넘겨 주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석근소대장은 바로 오늘의 한성룡인셈이다.

《예, 편지하겠습니다.- 경희동무- 집으로 돌아가-오.- 따라 오지.- 마-오.- 교-맵-소.- 잘-있소! -》

한성룡의 마지막말마디가 끝나기도전에 화차는 경희앞을 휩 지나쳤다. 무정하게! 무정하게!

경희는 배낭을 벗어 내치고 차와 나란히 달리며 맞받아 웨치였다.

《먼저 가- 세- 요! 뒤따라- 가겠어-요-》

《그러-지- 마오! -》

렬차는 경희를 멀리 떨구어 놓으며 앞으로 달린다. 손을 끝까지 흔들며 주는 한성룡의 모습이 점점 작아 지더니 꼬리를 이은 차판들에 가리워 아주 보이지 않는다.

처녀는 렬차가 산굽이를 돌아 갈 때까지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다가 되돌아 왔다.

《리당비서동지, 참 수고하셨어요. 차가 20분이나 먼저 떠나서...》

경희는 밝게 웃었다. 차를 놓친 아쉬움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수 없었다.

《허, 수고는 무슨 수고... 알아 보니 모든 차를 다 멈추고라도 평북도로지정리장으로 가는 차를 먼저 통과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구나. 저기를 보라. 어째에 왕별을 단 인민군장령이 있지 않니!》

경희는 흰칠하게 크고 몸이 웅장하며 모자채양에 싣누런 무늬가 있는 장령이 역장과 조역에게 무엇인가 지시하고 있는것을 보았다. 장령의 두리엔 군내 책임일군인듯 싶은 사람들이 몸가짐을 바로하고 있었다.

《야야, 인젠 집으로 돌아 가자. 그 사람이 편지를 하면 그때 주소를 알아서 가도 늦지 않다.》

오씨가 웃으며 말하자 아버지도 리당비서도 빙그레 웃는다. 오씨는 살얼음이 낀 강가에 아이를 세워놓은것처럼 생각되어 근심이 컸다. 이 많은 짐을 가지고 천리나 되는 먼 길을 어떻게 간다고... 다음 차가 있다고는 하나 그 차는 한성룡이 탄 차가 아니라 낮 선 사람들이 타고 가는 차다.

《어머니두 참, 차를 놓쳤다 해도 갈 길은 가야지도중에서 그만 두는건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람, 의리가 없는 사람이지요. 아버지, 그렇지요?》

《암, 의리뿐이나. 신념이 없는거지!》

《그것 봐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이랬다 저랬다 신념없이...》

경희는 생글생글 오씨를 곱게 나무랬다.

《아니 저 애 좀 봐. 못하는 소리 없구나.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어 했니. 차가 이랬다 저랬다 했지. 호호-》

오씨가 이렇게 차잘못으로 빗대자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그러느라니 그들은 장령과 간부들이 가까이 다가와 자기들의 등뒤에서 주고 받는 말을 다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는것을 몰랐다.

《렬차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소. 차는 한시각이라도 빨리 가야 하오.》

등뒤에서 울리는 곱직한 목소리에 그들은 웃음을 그치고 뒤돌아 보았다. 그들은 높은 간부들이 갑자

기 곁에 나타나자 옷매무시를 바로 잡고 황망히 인사를 하였다.

《수고들 합니다... 그래 처녀는 총각을 따라 평북 땅에 가겠다고? 내 다 들었소. 동무가 달리는 차를 따라 달리면서 소리치는것도... 그리구 여기서 하던 말도... 처녀는 거기가 어디라고 가겠다는거요? 총각이 따라 오지 말라고 하는데 처녀의 자존심도 없이? 응? 안 그래?》

장령은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처녀를 곱어 본다. 군모아래 귀밑머리에는 은발이 서리였고 굵은 목에는 로인의 주름살이 잡혀 있었으나 왕별을 단 군복과 정력에 넘치는 체구는 늙음을 감추어 주고있었다.

경희는 뜻밖에 이 장령이 자기의 일을 다 알고 하는 말을 듣자 부끄러워 얼굴을 숙이였다.

더구나 처녀의 자존심도 없다는 그 말에 당황하였다. 그는 대답을 갑자르다가 용기를 되찾은듯 또 릿또릿 대답하였다.

《여기엔 처녀의 자존심이 문제 아닙니다. 한성룡 동무는 우리 고향의 토지를 정리하여 준 돌격대의 한 성원입니다. 그 동무는 집을 떠나 멀고 먼 여기까지 와서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마지막날까지 차에서 통강냉이 언 밥을 먹고 잠도 자지 않고 불도젤을 물았습니다. 지금도 앓는 몸으로 가는데 그를 돕지 않는다면 그 동무는... 그 동문 아마 쓰러...》

경희는 눈물이 불쑥 솟아서 말끝을 호리였다.

《중소, 좋아... 그러나 그 동무를 처녀가 꼭 돌봐 주어야 할 리유는 뭔가. 응?》

장령이 옆에 있는 간부들도 함께 들어 보자는듯 그들에게 눈을 끔뻑해 보였다.

경희는 철길이 예돌아 간 산기슭너머로 불 타고 있는 저녁노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물기 어린 두눈에는 저 붉은 노을아래로 떠나간 사람을 그려 보는 마음이 그윽히 어려 들었다. 처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어느 때부터인지 그도 모른다. 그 추석날부터인지 아니면 무너지는 교각을 두어개로 받들던 그날인지 그리고 그의 《토지정리전투기록장》을 보던 그때부터인지 알수 없으나 생활속에서 하나씩 둘씩 가슴속에 남 모르게 피어난 고운 꽃들이 합쳐 저서 이제는 만발한 사랑의 화원을 이루었는지 몰랐다.

《제가 그 동무를 제일 잘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경희는 그 동문 자기 할아버지가 조국해방전쟁시기 목숨을 바친 하주리땅으로 와서 할아버지의 념원을 더욱 활짝 꽃 피워 놓았습니나라는 말이 가슴에 가득히 차올랐으나 꼭 눌러 참았다. 그러나 처녀는 가슴속에 갇든 진정을 끝내 터뜨리였다.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경희는 행복하였다. 한성룡을 만나게 된것이, 함께 일하며 사귀고 믿게 된것이, 그를 사랑하게 된것이!

불 타던 노을이 어느덧 사라지고 하늘엔 첫불을 켜는 별이 솟았다. 그는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 무쇠는 사상이 없으니까 녹이 쏘고 신념이 없어서 부러지기도 하지만 사람은 사상과 신념이 있어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쳐도 끄떡 없었던 한성룡의 웃는 얼굴이 새삼스럽게 눈앞에 떠오른다.

《음, 그랬됐구만. 참 좋소. 장군님의 위대한 토지 정리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맺어 지는 사랑은 아름답소. 투쟁속에서 꽃피 난 사랑은 변함 없지.》

장령은 일꾼들을 데리고 역을 떠나면서 경희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쳐너동무! 난 동무와 같은 청년들을 알게 되어서 기뻐. 전화의 날에 피로 지킨 이 땅을 오늘에 딸

으로 가꾸는것은 새 세대의 본분이요. 거창하게 흐르는 강물도 뒤물이 있어야 마르지 않고 흐르는것처럼 새 세대의 의무는 크고도 뜻 깊은 의미를 담고 있소. 이런 의무를 간직한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거요. 서로 다른 샹터에서 흘러 나온 물이 종당에 바다에서 만나 큰 하나가 되는것과 같소. 평북도로 떠나시오. 피현군 성동리라는 곳에서 동무들은 만나게 될거요. 영원한 하나로 말이요!》

밤 12시!

복계역을 떠난 열차는 기적을 높이 올리면서 별들이 무수히 빛나는 하늘아래로 힘차게 달리였다. 그 열차에 김경희가 타고 있었다.

세계작가소개

바이론, 조지 고든

19세기 초에 활동한 영국의 진보적랑만주의시인. 몰락한 귀족가문에서 외아들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성질이 매우 사납고 조폭한 군인이었고 스코틀랜드의 오랜 귀족가문출신인 어머니 성격도 매우 거칠고 횡포하였다.

바이론은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으나 기형적으로 구부러진 발을 가지고 태어난 천성적인 절름발이였다. 세살나던 해에 아버지를 잃고 번덕스러운 어머니와 함께 고독과 빈궁속에서 살았다. 이러한 생활환경속에서 자라난 바이론은 어려서부터 자존심이 매우 강하였다.

열살나던 해에 큰아버지의 귀족작위와 유산을 물려 받아 경으로 되었으며 귀족자제들의 교육기관인 하로운공립학교를 거쳐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하였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기인 1807년에 바이론은 첫 시집 《태만의 나날》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어용문단에서는 그에게 조소와 야유로 가득 찬 모욕적인 공격을 들이쳤다. 그러나 바이론은 실망하지 않고 더욱 굳은 결심을 가지고 창작에 달라붙었다. 두해뒤에 풍자시 《영국의 서정시인들과 스코틀랜드비평가들》을 발표하여 지배계급에게 복무하는 반동적인 어용문단에 맹목한 조소와 풍자로 반격을 가하였다. 이 시에서 바이론은 사회적반향아로서의 자기 얼굴을 드러내 놓았다.

바이론은 대학을 졸업하고 1809년 7월 2년동안 유럽여행을 하였다. 이 여행에서 탄생한것이 장편기행서사시 《차일드 해롤드의 권력기》(1812년 1권, 2권)이다.

1813년~1816년에 서사시들인 《이단자》, 《어바이도스의 신부》, 《해적》, 《라라》, 《코린트의 포위》 등을 발표하여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떨치였다. 주로 동방나라들에서 소재를 취한것으로 하여 《동방의 서사시》라 불리우는 이 시들에서는 귀족반동통치에 대한 항거, 부르조아민주주의운동

과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의 정신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바이론은 귀족으로서의 세습적지위인 국회 상원의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계파괴운동참가자들에 대한 탄압법안을 반대하여 두번이나 연설하는 등 영국반동통치배들에게 항거해 나섰다.

이렇게 되자 반동지배층은 어용언론을 총 동원하여 바이론을 비방중상하고 모해하는데 열을 올렸다. 바이론은 더는 영국에서 살수 없게 되었다.

1816년 4월 바이론은 영원히 고국을 떠났다. 그것은 반동적이며 위선적인 영국반동정부와의 결별이였다. 스위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간 바이론은 오스트리아의 지배밑에서 이탈리아를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까르보나리》(숫구이당)의 혁명사업에 적극 뛰여 들었다. 그러면서도 시창작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바이론의 창작활동에서 가장 풍요한 시기였다. 1816년에 《실론의 수인》, 1816년~1811년에 서사시 《차일드 해롤드의 권력기》(3권, 4권), 1821년에 신비극 《케인》, 1823년에 장편풍자시 《청동시대》, 1821년~1823년에 장편서사시 《돈 주앙》(미완성) 등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발표하였다.

1821년 《까르보나리》 봉기가 오스트리아당국의 가혹한 탄압으로 하여 실패한것은 바이론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으로 되었다.

1823년 7월 바이론은 이탈리아를 떠나 그리스로 가 그곳 인민들의 반튀르끼에해방투쟁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이 투쟁에 자신의 모든 힘과 재산까지 깡그리 바쳐 싸우던 바이론은 그만 열병에 걸려 1824년 4월 19일 서른여섯살의 젊은 나이에 이역땅에서 세상을 떠났다.

19세기 초 영국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바이론은 현대유럽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아름다운 신천리

김정철

여기가 신천리

가을날 정주벌에 내 서니
바다위에 우뚝 솟은 섬인양
푸른 숲 우거진 이 동네
여기가 아름다운 신천리란다

억만년을 자연이 못다 이룬 아름다움
인간이 다듬어 하늘아래 내세운
붉은기가 날리는 내 조국의 절경
관서8경에 또 한경을 더해 준 곳

푸른 숲, 맑은 물, 하얀 집들
길들은 이삭속에 갈라 저 가고
언덕들은 파원속에 묻히어 오는
락원의 행군길에 피어 난 또 하나의 꽃이런가

아직은 그 어느 시인의 정서로도
화가의 색깔로도 채색되어 있지 않는
청초한 모습 그대로의
신천리가 우리앞에 있다

첫 자욱을 호수가에서

숲속의 삼지연이 내앞에 펼쳐 진듯
숲속의 우산장이 여기 옮겨 앉은듯
선경 같은 마을을 한품에 안고
호수는 행복한 명상에 잠겼구나

하루에도 그 몇번 그 몇십번
장군님 모시던 꿈 같은 순간을
새파란 수면위에 동그란 파문으로
펼쳤다 지우고 지웠다 또 펼치며

들꽃이 피어 웃는 저 언덕에 오르시여
새로 정리된 포전들도 보시고
걸히는 안개속의 새 마을도 보시며
신천리가 룡이 됐다고
그리도 기뻐 하시던 우리 장군님

어제날 땡벌아래
장군님을 모셔야 했던 한스러움
그것이 신천리가 떠나온 첫 기슭
그 첫 기슭에서 시작된 신천리의 그리움

언제면 장군님을 다시 모실가
기다리는 그 세월에 마음도 커져
덩실하니 문화회관 연구실도 크게 짓고
때마다 작은 못도 앞쪽으로 넓히어
일곱번을 넓혀 간 호수와 함께
일곱번을 뒤채여 그 모습 바꾸며
새 모습으로 단장한 오늘의 신천리

기다림이 그대로 복이 되었다
기다림이 그대로 락원을 일으켰다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나날에도
줄지 않는 젖줄기로 이 땅을 자래웠다

장군님만 그리며 장군님만 따르자
오늘도 변함 없는 그 마음이
찰랑찰랑 넘쳐 나는 그리움의 호수
신천리의 심혼인 이 못에
내 가슴속 정도 함께 쏟노라

하루밤 자고 나서

아기의 즐거운 웃음처럼
찰싹찰싹 물소리 베개밑을 간지르는

물가운데 서 있는 집-농장합숙
저녁에 나 혼자 누웠는데

깨고 보니 친구들 여러문명 늘었구나

이웃마을 침향리로 간다는 제대군인
차시간 놓치고 도로 왔단 젊은이
지나가던 운전사들
리합속치고는 지내 크다 했더니
그 또한 공연한 걱정이었구나

많지 않는 고정합속생보다
지나가는 길손들을 위해 세운 집
내 집앞을 지나거든 어느 때나 누구나
하루밤 쉬어 가라
무딘한 주인들이 문을 열어 놓은 집

옛날에도 내 민족은 그렇게 살았고
오늘에도 내 민족은 그렇게 산다고
초가집 섰던 곳에 기와집 서고
꽤기논이 규격논으로 변했어도
그것만은 변치 않는 미풍량속

꽃중의 꽃인 일심단결도
이우에 뿌리 내려 한껏 고운 꽃
원썩들이 악을 쓰며 없애려 했던것
그래서 우리의 준엄한 싸움들은
이 아름다움 지켜가는 성전

《나는 어디로 가십니까?》

정갈한 호수가엔 조각품도 많아
호랑이, 사슴, 기리기, 염소...
어느덧 내 마음도 어린애되어
웃으며 다가서네
깜찍한 꼬마 《교통정리원》앞에

《통통통 프락프론 발으로 가고
뽕뽕뽕 자동차는 창고로 가고
회계원은 장부 끼고 시내로 가고

아이들은 노래하며 학교로 가는데
안경 낀 이 늙은이 노래 짓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십니까? 교통정리원동무!》

했더니
하얀 조각의 돌사람이
생긋이 웃네
앵두 같은 입술에서 금시 피여 날듯 그 말-
《더 가지 마시고 여기서 오래오래 사세요》

봄날의 그네터

후여, 올라라 방울을 차라
후여, 한번 더 방울을 차라
봄명절 해빛 밝은 그네터에서
신천리 너인들이 그네를 뛰오

모내기도 으뜸으로 끝냈으니
그저는 못 보내 연두색 이 봄날
휘휘칭칭 그네줄에 꽃봄을 묶어
쌍그네 외그네 반원을 그리오

봄바람에 날려 가는 꽃잎이런듯
후여, 다홍치마 구름우에 나풀
그래도 내 집 내 고향이 더 좋아
후여, 다홍치마 땅을 향해 사뿐

굽어 보면 이 땅의 땅속엔 아직도
천년도 남아 켈 쇠돌이 묻혀 있고
붉은기 날리는 저 지붕밑에선
대들보 터지도록 아이들이 커가거니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장군님만 모시고 장군님만 따르며
백년전쟁 천년봉쇄도 끄떡 없는
배심도 든든한 인민의 저 웃음

우리의 저 웃음 없애려는
어리석은 놈들의
박통 같은 그 머리를 걷어 차며
후여, 우리는 하늘로 오르오
후여, 우리는 태양 향해 오르오

소설의 원형들과 나는 이야기

송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시대 인간과 생활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그려내야 한다.》

오늘 황해남도에서는 5천년 우리 민족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거창한 국토전변의 새 력사가 창조되고 있다. 이 거대한 변혁으로 특징 지어 지는 현실을 말 그대로 우리 문학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무궁무진한 토양으로 되고 있다.

최근에 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 작가들은 단편소설 《대지의 노래》(송병준), 《세월이여 앞으로》(박종철), 《상봉》(오광철), 《멈출수 없는 발동소리》(박원성) 등 토지정리전투원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우리도 올해 공동사설을 받들고 들끓는 현실속에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하여 얼마전에 라남의 숨결이 맥박치는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전투장을 찾아갔다. 현지에서 뜻밖에도 소설의 원형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우리가 재령군 재천리에 찾아 갔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삼국동벌의 추억 깊은 대지에 섰노라니 감회가 새로왔다. 우리를 안내하던 한 일군은 토지정리한 포전들에 자급비료를 운반하는 농장원들속에서 한 처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동무가 바로 단편소설 <세월이여 앞으로>에 나오는 그 선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지면에서는 낯을 익혔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 참말 반갑습니다.》

우리의 말에 처녀는 수집은듯 얼굴에 고운 웃음을 지우며 《아이참, 저야 방계인물인걸요 뭐.》하고 겸손을 피웠다. 그리고는 활달한 목소리로 마을 앞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저기가 바로 소설에서 나오는 <턱바위>가 있던 자리구 저 다리가 방원철(원형이름)중대장동지와 군인들이 놓은것이랍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토지정리를 만년대계로 하기 위해 수천년을 두고 마을 앞포전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넓은 바위를 폭파하여 없애버리고 도로를 직선으로 펴고 다리를 놓던 주인공 방갑철(소설이름)중대장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작가선생님이 소설을 참 잘 썼어요. <이 땅 어디서나 군대가 앞서 나가는 나라, 그래서 남보다 꼭질 빨리 그리고 멀리 앞으로 달려 가는 내 조국, ...

(아, 좋은 세월아, 어서 앞으로 달려 가자!)>. 얼마나 희망과 량만에 찬 표현이에요.》

처녀는 환희에 찬 표정을 짓고 시를 읊조리듯 소설의 한대목을 뜯금으로 외우며 격찬해 마지 않았다. 우리도 마음이 즐거웠다. 작가로서 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것이다. 단편소설 《세월이여 앞으로》는 선군혁명문학으로서의 우리 소설문학의 특성을 잘 살려 군대가 앞장에 서서 강성대국의 새 력사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잘 반영하였다. 소설의 중심에 인민군 중대장 방갑철을 등장시켜 놓고 마을 작업반장과의 관계속에서 토지정리도 하고 마을도 꾸리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잘 그리었으며 여기에 작가의 주정토로를 적절히 배합하여 소설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그 중대장동진 지금 어디에 있소?》

《떠나갔어요. 다른 곳으로...》

우리의 물음에 처녀는 그리움에 젖은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다.

《떠나다니?》

《세월을 주름 잡는 군인동무들이 한곳에 머물러 있을게 뭐니까. 그 중대장동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난관을 두려워 할줄 모르구, 인정 많고 속이 깊구...》

처녀는 열렬한 어조로 중대장을 찬양했다.

《혹시 반한게 아니요?》

《반할만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처녀는 말을 중도에서 끊고 무엇때문인지 우리를 쳐다보며 방긋 미소를 지었다. 그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처녀의 속대사를 알고 싶었다. 그 속대사에 소설에 대한 그 어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을지 누가 알랴.

《그런데 소설에서는 어땠다는거요?》

우리는 호기심을 품고 은근히 물었다. 처녀는 여전히 생글거리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어서 말해 보오. 소설에 무슨 의견이 있는 모양이구만.》

우리는 조심성 많은 처녀의 속생각을 알고 싶어 또다시 재촉했다.

《욕하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무슨 소리를 하오. 소설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데 누가 시비를 한단 말이요.》

처녀는 우리의 말에 용기를 얻은 모양인지 《글쎄 중대장동지를 똑바우로 그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열렬하고 뜨거운 사람을 말이에요.》하고 사뭇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처녀의 순진한 생각이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스쳐 보낼 일이 아니었

다. 어째서 인민군대 중대장을 그렇게 그렸는가. 처녀는 항의한것이다. 작가는 처녀의 이 항의에 대답을 해야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중대장은 마을사람들앞에서 레절도 밝고 유치원어린이들도 끔찍이 사랑했다고 한다. 그의 외형은 똑해 보이지만 마음은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다정다감하다고 했다. 우리는 처녀의 말을 들으며 이 소설의 주인공에 대하여 다시 생각했다. 중대장 방갑철은 바위 하나를 없애는 일에도 계급의식을 심어 주고 《낯아 빠진 봉건잔재를 없애는...》 뚜렷한 의의를 부여하는 투철하고 리지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어째서 작가는 말수더구가 적은 실천가형의 인물인 중대장을 《독박우》로 그리여 처녀의 불만을 자아내게 하였는가. 혹시 작가가 군인 일반의 절도와 엄격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렇게 형상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매우 경직되고 상식적인 론리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이 깊어 졌다. 이 문제는 소설의 원형들을 더 만나보고 론의하기로 했다.

며칠후에 우리는 청단군 남촌리에서 토지정리를 다그치고 있는 한 불도젤을 타게 되었다. 운전수는 우리가 말을 걸어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과묵한 사람이었다. 부부가 교대로 불도젤을 타면서 리적으로 실적을 제일 많이 올리고 있는 운전수라는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작가라는것을 알자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작가들은 보지 못하고도 본것처럼 꾸미는데 명수더군요.》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체험하지 못하고 쓴 글은 진실하지 못하오.》

《그래두 나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우리 집 내막을 기 막히게 썼더군요.》

운전수는 드디어 말문이 열린듯 속생각을 거침없이 털어 놓았다.

《우리 처가 리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문학신문>을 한장 얻어 왔는데 거기에 <상봉>이란 소설이 실리지 않았겠습니까. 허, 그런데 어찌문 우리 처와 편애하던 이야기를 손금처럼 알고 썼는지 난 깜짝 놀랐지요.》

《그게 바로 작가들만이 할수 있는 환상의 힘이지요.》

《우리 처는 그 소설을 읽고 별루 한일도 없는데 소설에까지 나왔다고 눈물이 글썽해 있더니 요즘은 일을 더 잘해야겠다고 극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허허... 하여튼 고맙소.》

우리는 가슴이 후터워 올랐다. 얼마나 소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잘된 소설은 이렇게 감화력이 큰것이다.

단편소설 《상봉》은 황해남도의 불도젤운전수 총각이 강원도토지정리를 위해 철령을 넘다가 사권 처녀를 다시 황해남도땅의 토지정리전투장에서 만

나는 이야기이다. 소설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두개의 극적정황을 조성시키면서 처녀 총각들의 상봉을 재미 있게 엮었다. 구성 역시 철령을 넘는 첫째 정황에서 사건의 전제를 마련하고 황해남도토지정리전투장에서 그들이 만나는 두번째 이야기를 통해 형상적과제를 해결하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특색 있게 조직하였다. 그야말로 작가의 재간이 엿보이는 소설이다. 그러니 소설의 원형이 흡족할수밖에...

《작가선생님, 내 그 소설에 대하여 한가지 의견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운전수는 뜻밖에 이렇게 질문했다.

《말해 보시오. 소설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건 자유요.》

하면서도 우리는 어쩐지 마음이 약간 긴장해 짐을 느꼈다.

《소설을 쓸바에야 좀 본때 있는 이야기를 써야지 싱겁게서리 처녀총각 만나는 이야기나 써서 뭘합니까.》

운전수는 소설에 대한 불만을 직관 내쏘았다. 우리는 그만 아연해 졌다. 방금전까지 자기네 생활을 썼다고 좋아 하던 그가 이렇게 돌변하다니? ...

작가는 시대의 위훈이 창조되는곳이야말로 아름다운 인간들이 만나는 곳이라는것을 강조하려고 한것 같은데 오히려 소설의 원형은 《싱거운 이야기》로 무자비하게 혹평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뺨을 한대 후려 맞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마디의 항변도 못했다. 운전수의 말은 투박하고 론리가 없었지만 진실이 있었다. 정녕 현실에 있는 원형들에게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하는 소설이야말로 얼마나 가공한것인가. 우리는 차츰 심각해 지지 않을수 없었다. 어째서 작가와 독자사이에 이러한 불일치가 조성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작가는 응당히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단편소설 《멈출수 없는 발동소리》의 주인공의 원형이 작가에게 보낸 편지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하려고 한다.

소설을 쓴 작가는 우리에게 한장의 편지를 주며 작품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작가가 토지정리주체 소설을 쓰기 위하여 현지에 나갔는데 한 젊은 녀성이 토지정리지휘부에 찾아와서 간청하는 말이 남편을 대신하여 불도젤운전대를 잡게 해달라는것이였다. 알고 보니 그 녀성은 온천군 급양관리소에서 일하는 애기어머니인데 남편이 불도젤을 몰다가 사고로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 오자 어린것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황해남도 토지정리전투장으로 달려 온것이다. 남편이 올리던 발동소리를 멈추지 않고 자기가 계속 올리겠다는것이였다. 작가는 감동되었다. 그는 즉시 흥분하여 붓

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멈출수 없는 발동소리》가 세상에 태어난것이다.

우리는 서둘러 편지를 읽어 보았다. 편지의 사연을 여기에 그대로 공개한다.

《작가선생님, 소설을 반갑게 보았습니다. 남편을 대신하여 운전대를 잡은것이 무슨 큰 일이라고... 저는 고향에 있는 남편과 어머니에게 이 소설이 실린 신문을 보내며 울었습니다.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가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토지정리전 투장에서는 지금 마지막돌격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부림소도 들어 가지 못하는 진펄논을 불도젤에 보조바퀴를 덧달고 차체를 높여 해제끼기도 하고 불도젤삽에 이발을 더 달아서 땅땅 언 땅을 밀어 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운전칸에 피가 흘러 내려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차를 몰아 가고 있으며 숙소에 들어 가 잠을 자는 시간마저 아까워 비닐박막으로 몸을 감고 논두렁에 기대어 잠깐 말뚝잠을 잔 다음 또다시 교대하군 합니다. 작가선생님, 그들은 영웅이 되려고 이렇게 일하는것도 아니며 소설이나 신문에 이름을 내려고 글을 쓰며 일하는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국토건설구상을 빛나게 관철하여 조국의 대지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많이 내는데 이바지하려는 일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설을 읽으며 저는...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거워 견딜수 없습니다. 만약 저의 생각이 외람된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녀성불도젤운전수의 편지는 감동의 눈물 없이는 읽을수 없으면서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것이 있었다. 과연 소설을 읽으며 얼굴이 뜨거워 견딜수 없었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점점을 찍은 그 글밭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분명 그 점점에 녀성운전수의 속대사가 있는것이다. 한없이 소박한 소설의 원형은 작품에 대한 불만을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지만 말속에 말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소설을 읽지 않을수 없었다. 단편소설 《멈출수 없는 발동소리》는 주인공의 병원생활을 기본으로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비로소 소설의 원형이 어째서 작품을 읽고 얼굴이 뜨거워 견딜수 없었겠는가를 이해할수 있었다. 토지정리전투장에서는 결사적인 투쟁이 벌어 지고 있는데 자기는 안온한 병원침대우에 누워 아이를 낳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졌던것 이다.

이것으로 하여 소설의 원형은 자신에 대한 수치감을 느꼈으리라. 우리는 녀성불도젤운전수의 높은 정신세계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 졌다. 참으로 지성과 이해가 깊은 녀성이었다.

우리는 소설의 원형들이 피력한 솔직한 고백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을수 없다.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류의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소설에 대한 독자의 평가에 대한 견해와 관점인것이다. 더구나 소설의 원형들이 제기한 문제인것만큼 결코 외면할수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에 응당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면 우리의 문학은 독자들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문학의 본도와도 관련되기때문이다.

작가들은 독자들의 목소리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려고 한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소설의 원형들을 것처럼 실망하게 만들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혁명적군인정신, 라남의 로동계급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이 차넘치고 있다. 소설의 원형들이 말한것처럼 토지정리전투원들의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맡겨 주신 토지정리과제를 끝내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와 억척 같은 의지가 간직되어 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당이 준 과업을 몸이 열조각, 백조각이나도 기어어 수행하고야 마는 드팀 없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작가들도 들끓는 현실에 몸을 잠그고 토지정리전투원들과 함께 침식을 하면서 논두렁도 짓고 불도젤도 타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작가는 열정이 있고 다정다감한 인민군 중대장을 감정이 메마른 《독바우》로, 처녀총각이 연애하는 이야기나 안온한 병원생활을 그리게 되었는가. 결국 작가는 세기적인 토지정리전투장의 벽찬 현실을 주도적으로 그리지 못하고 시대의 변두리이야기에 현혹되어 붓을 들었던것이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성격을 깊이 있고 진실하게 형상하지 못하였다.

원인은 명백하다. 그것은 무엇보다 시대를 감수하는 작가의 미학관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여 작가자신이 현실에 있는 인간들의 사상정신적높이에 따라 서지 못한데 있다.

작가는 마땅히 시대의 숨결로 호흡하고 시대정신의 높이에 서서 현실을 새롭게 보고 인간들을 분석평가해야 한다. 작가들은 라남의 봉화 따라 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오늘의 격동적인 사실을 대할 때 언제나 시대적높이에서 투시해 보고 그속에서 활동하는 인간들의 사상정신적도덕적면모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들어 감으로써 새 세기 선군시대의 인간성격들을 그려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 소설이 시대를 선도하는 생활의 교과서로, 힘 있는 사상정신적무기로써의 자기 사명을 다할수 있다. 이러한 교훈을 소설의 원형들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것이 아니겠는가.

《별무리》 흐르는 곳

공승길

도소재지에서 시원스레 뻗어 나간 포장도로옆에 두 녀인이 초조한 기색으로 서 있었다.

넓은 잎 가로수가 던져 주는 얼룩무늬를 조심조심 밟으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녀인은 영사구 병원 조산원 리선화이고 부한 몸에 미색 여름옷을 입고 서 있는 녀인은 시급양관리소 인수원 한명애이다.

그들은 옛 중학동창생들이다. 꿈처럼 아득히 멀어 저 간 그 시절, 그들은 해무가 감실감실 떠돌고 일망무제의 간석지가 하루 꼭꼭 두번씩 드러나곤 하는 영사의 도래곶이에서 함께 뛰놀며 자랐다. 가무래기랑 동조개랑 주어다 심술궂은 사내아이들의 눈을 피해 불구이를 해먹기도 하고 다시마 따려 가는 양식반언니들의 전마선에 떼를 써서 기어 오르기도 했었다. 바다는 참으로 넓고 아름다웠다. 거기에서 유년기, 소년기, 사춘기의 황홀한 《역》들을 지나보내고 지금은 현숙과 안정이 깃든 40대에 이른 것이다. 그사이 한명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인 민위원회에 배치되었다는 한 젊은이와 가정을 이루고 도소재지로 올라 왔고 조산원양성소를 나온 선화는 간석지건설사업소 시공부원청년과 일생을 약속했다. 그들은 자기나름의 새 생활에 인차 심취되어 버렸다.

이 시각, 명애는 영사수산의 판매과장을 찢찢매매 할 맵쌀 말마디들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었고 선화는 물통이가 진 입술을 감빨고 있었다.

《선화! 난 어쩐지...》

《그 판매과장아바인 내가 잘 알아. 작년인가 바다에 아이들이 빠졌을 때 건져 낸... 그런 아바이가 설마 그럴수 있을까?》

갑자기 명애가 짹짹 웃어 댔다.

《아이?! 아유 우스워.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할수 있다면 나두 얼마나 좋겠니.》

《너두 참,》

선화는 하루살이떼를 쫓거나 하는듯 허공에 대고 손을 뻗 내저었다. 그 바람에 명애의 웃음소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고 마는 것이었다.

한일, 두일, 때 이르게 황이 든 이파리가 너울거리며 날아 내려 선화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아직은 푸른 빛이 많은 그러나 분명 못잎속에서 떨어져 내린 그 이파리를 측은한 눈매로 들여다 보았다.

불쑥 그의 뇌리에 해산예정일을 앞둔 한 녀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제 선화가 도산원으로 떠나올 때 걱정에 잠겨 바라보던 그의 큰 눈이 삼삼하다. 그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전 아직 믿어 지지 않아요. 제가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이.

선화는 사랑스런 눈매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옥이! 넌 이제 얼마후면 애기어머니가 돼. 기쁘지? 그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다 잘될 거야. 이렇게 하고 떠나온 길인데...

(영옥이는 저 나무잎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아! 못잎은 푸르름을 자랑하며 저렇게 억세게 설레고 있는데 유독 그 잎만은...)

그는 고개를 들어 가로수의 무성한 우듬지를 올려다 보았다. 썩-

경적을 울리며 《갱생》 승용차 한대가 쏜살같이 달려 오다 휙 지나가버린다.

두 녀인은 금시 맥 풀린 기색으로 가로수의 밑둥 아리에 몸을 기대인다. 포동포동한 팔목에 찬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는 한명애의 입술은 뽀조름 해졌다.

《약속했던 시간보다 두시간이나 지났구나. 흥, 우리 충일이 아버지 낄쌈 봐야 그렇지.》

그들은 지금 영사구로 내려 가기 위해 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시인민위원회에서 일하는 명애의 남편이 그쪽으로 갈 일이 생겼다면 승용차로 같이 갈걸 약속했던 것이다.

엇저녀.

도산원에 올라 왔던 선화는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무렵에 올라 왔던 선화는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무렵에 명애네 집을 찾아 갔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자 딸랑- 하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렸다. 이어 닭알빛 실내옷을 걸친 한명애가 문을 열었다.

《아니, 선화로구나. 어서 들어 봐. 어서.》

명애는 반가와 하며 그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새는 왜 꿈쩍 안했니? 내 그러지 않아두 너에게 전화하든지 한번 만나려 했단다.》

《뭇때메?》

《우리 충일이에게 소개표본을 해주마 하고 약속했다면서? 제발 썩 걸어 치워 줘. 보려마! 그만큼 하라는 손풍금련습은 하지두 앓구 제 맘대로 돌아치는 거.》

《아이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난 그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더구나. 바다가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식들이 조개를 몰라서야 되겠니?》

《글쎄 그건 그렇지만 지금은 내 말을 들어.》

《그런데 충일이랑 왜 보이지 않니?》

그가 왔다고 하면 서둘러 뛰어 나와 반기던 충일이 보이지 않아 선화는 의아해서 물었다.

《소년회관 손꼽금소조에 보냈지 뭐.》

《기어코 생물소조에서 뽑아 내자는게구나.》

순간 서운해 하는 표정이 선화의 얼굴에 비쳤다.

사실 선화는 우정 시간을 내서 여기에 들렀던 것이다. 전번에 왔을 때 충일이 가무레기가 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선화는 미처 대답을 못해 주었다.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통 생각나지 않아서였다. 아이들 일이라면 덮어 놓고 흥분하기 잘하는 그에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 명애는 그저 《애 충일야! 어른들이 마주 앉아 있을 때 그런걸 물으면 못 써. 어서 동생을 데리고 옷방에 올라 가 악보공부나 해.》 하고 쫓아 버렸지만 선화는 무엇인가 가슴에 꼭 맺혔다. 명애 자식의 취미를 모르고 있어. 저렇게 하다가 아들의 장래를 망칠수 있거든. 선화는 충일을 기꺼이 도우려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애에게 다음번엔 조깅지가 아니라 포르말린 용액속에 잠근 조개류들을 가져다 보일것을 약속했던 것이다.

《됐어. 그 소린 이따 더 하구 어서 들어 와.》

그제서야 선화는 생긋 웃으며 《뭐든지 참아내지 못하는 그 성민 여전하구나. 글썄 손님을 문밖에 세워 두고 이게 뭐니.》 하며 전실에 들어 섰다.

《흥, 자긴. 너 신발 벗는 버릇만 좀 봐. 15년전이나 오늘이나. 이젠 좀 달라질 때두 되잖았니?》

명애는 질책하듯 지청구를 늘어 놓으며 곱하기모양으로 덧놓아 진 그의 신발을 나란히 바로 잡아 놓았다.

《애두 참. 그 버릇이 어쩔다는거야?》

《어쩌긴 뭘 어째. 제 나이 마흔일줄두 모르구 칠딱서니 없던 시절처럼 아직도 쿵당쿵당... 네가 볼쌍해서 그런다.》

선화는 가슴이 찢듯해 났다.

홍안의 시절, 그에게도 뺨시를 부리고 싶어 하던 가슴 부풀던 계절이 있었으니 그는 코가 뾰족한 가죽구두를 신고 왕진을 나가기도 했다. 간석지마을의 길들은 그리 좋지 못했다. 약간한 비에도 죽탕이 되는가 하면 조금만 땀별이 내려 쪼여도 돌투성이 서덜발처럼 굳어 저 버리곤 했다. 감탕속에 박힌 구두를 벗어 들고 다급히 환자의 집에 들어 섰을 때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벌써 진통이 시작됐구나. 좀 더 빨리 올걸. 난 확실히 허영에 들었어. 뾰족구두가 다 뭐람.)

그후부터 선화는 구두보다 신고 다니기 혈한 편리화를 찾아 신곤 했다. 그리고 시간의 촉박감에 떠밀려 어느 집이든 당자 바람 서둘러 들어 서곤 했다....

방안에 들어 선 선화는 그사이 몰라 보게 달라진 방안장식에 눈을 돌렸다. 색깔이며 형태가 품위 있

어 보이는 안락의자, 광택으로 하여 눈 부시게 번쩍거리는 앞차대, 여러가지 모양의 물고뿌와 주전자, 사기조각품들이 들어 있는 장식장.

선화는 치마폭을 내리 끌며 안락의자에 나부시 주저앉았다. 모든게 현란하기만 했다.

(괜찮아. 명애의 생활이 이젠 든든히 자리를 잡은 게지.)

그는 뒤따라 들어 선 명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지간에 방이 더 환해 졌구나.》

《음, 할수없이 이 명애가 좀 뛰었다구 할가. 너두 알겠지만 발전하는 추세를 따른다는건... 대단히 힘든거야.》

명애는 해맑은 얼굴에 살짝 웃음을 짓고 도무지 신식가구에 낯 돌릴줄 모르던 세대주의 마음을 어떻게 돌렸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속에 간직되어 있는 부부간의 정을 감축한 선화는 저도모르게 마음이 즐거워 저 호호 웃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 봤던가?)

...아니, 그들은 그렇게 살아 보지 못했다. 선화의 남편은 늘쌍 간석지에 나가 살다싶이 했다. 해종일 측량기를 메고 발목이 푹푹 빠지는 감탕관을 걷고 파도와 싸우다 나면 저녁에는 녹초가 되어 들어와 밥술을 놓기 바쁘게 쓰러지곤 했다. 선화도 마찬가지였다. 로동자구내 수많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언제 한번 집안일에 마음 써볼새가 없었다. 그저 쿵쿵 뛰여 다니야 했고 그래도 시간이 모자랐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비록 집안에 번쩍거리는 가구가 없고 생활은 그다지 유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화기가 넘쳤고 단란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하긴 번쩍거리는 저것들속에서 행복을 찾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그럴수만 있다면...)

명애가 다반에 사과를 담아 가지고 들어 와 꺾기 시작했다. 신선하고 향긋한 냄새가 방안에 가득 찼다.

《좀 편히 앉으렴, 그래 광남이랑 애들은 다 잘 있니?》

《응.》

《늘쌍 바다기슭에 나가 장난하며 놀겠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말 다해 뭘하겠니. 헌데 그렇게 세차던 장난꾸러기들이 요즘은 왁새섬을 아카시아섬으로 만들고 거기다 새 품종 토끼를 갖다 넣는다고 야단이 이만 저만이 아니야. 어데서 노 젓는 법이랑 배워 가지고는 동네 애들을 회동해서 떠날 땐... 굉장해.》

《아카시아섬?! 아이들이란 확실히 엉뚱하단말이야. 헌데 위험하진 않니? 바람이 분다든가.》

《일 없어.》

《어쨌든 통제를 잘해. 아이들이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보려 두면 어대 가서 무슨 일을 칠지 모르거든.》

벙글벙글 돌아 가며 깎아온 사과껍질이 새끼손가락뿔으로 흘러 내려 명애가 손을 놀릴적마 흥겹게 춤을 추었다.

《우리 충일이때문에 우정 올라 온건 아니겠지?》

《응, 사실 도산원에 볼 일이 있어서...》

《글쎄. 너야 뭐 이 명애가 보고 싶어 온적이 한번이라도 있니. 그저 강습 아니면 링게르, 그렇지? 네 할 일이 아직두 많은가 보구나.》

《 많아, 막 바빠서 죽을 짬두 없단다.》

명애가 깎아 준 사과를 한입 베어 문 선화는 《정말 달구나.》하면서 사각사각 씹었다.

《그래? 하긴 그럴거야. 아이를 받아 낸다는게 어디 쉬운 일이나.》

명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이를 받아 낸다... 명애, 넌 그 말을 너무도 쉽게 하는구나. 그 일이 그저 자연의 순리를 따라 저절로 되는 일인줄로만 생각하지. 하지만 그 일은...

선화의 눈앞에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놓이고 덧놓이는 병력서들.

《선화선생! 그래 그걸 몰라서 묻소? 우리 병원수준에선 어렵도 없소. 3년전에 받은 외상으로 생긴 척추변형에 심한 랭병. 이걸 어떻게 과연 무슨 수로 고쳐 내겠는가 말이요.》

《옳아요! 하지만 기술부원장동진 영옥이네 집창문을 들여다 본적이 있어요?》

《창문?!》

부원장의 눈이 안경알속에서 둥그렇게 커졌다. 하지만 얼굴에는 이내 내가 신흔부부가 사는 집창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어대 있는가 하는듯 한 표정이 어리었다.

선화는 이마로 흘러 내린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그는 녀성이예요. 나와 꼭 같은 녀성이란 말이예요. 제 말뜻을 알겠지요? 그러니 우리 영옥인 어떡해서나 아일 낳아야 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 났다. 그리고 영옥이네가 사는 도요섬마을로 떠났다. 저로서도 무슨 방도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3년전, 간석지해일피해복구현장에서 굴러 내리는 돌을 몸으로 막아 동지들을 구원해 낸 영옥이란 한 처녀의 결혼식이 온 마을의 축복속에 있었다. 그때 영옥이에 의해 구원된 청년이 일생의 반려가 되어 주겠다고 그를 찾아 와 신랑이 되어 주었던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한쌍이었다. 신흔의 밝은 미소가 어린 그들의 창가엔 시들세라 아름다운 분꽃이 활짝 피어 웃군 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바다바람 사나운 일터로 나갔

고 저녁이면 땀 젖은 작업복을 벗어 어깨에 걸치고 노을 비낀 제방길로 걸어 들어 오곤 했다. 갈매기들이 낮추 떠서 깎깎거리며 즐거이 원을 그리고 발밑에선 파도가 흥그럽게 철썩, 처철썩 춤을 추었다.

어느 날 왕진 갔다 오던 선화는 그들이 사는 집앞에 이르러 못 박혀 버렸다. 길바닥은 조가비를 깔아서 포장도로만 못지 않게 좋아 졌건만. 무엇이 자기를 멈춰 세웠는지 선화는 도저히 알수가 없어 천천히 집을 둘러 보았다. 아담한 단층살림집에 산뜻한 회벽, 꽃벽돌로 둘러 친 울타리, 누가 떠다 심었는지 감나무까지 보인다.

그러던 그는 바늘에 찔리운 사람처럼 흠칫 놀랐다. 하얀 창가림사이로 빠금히 들여다 보이는 백자기화본의 시든 꽃송이들.

(왜 그렇게 됐을가. 꽃이 질 사이가 없었는데. 이집에 무슨 일이 생긴거나 아닐가? 혹시)

심장이 갑자기 쿵당거린다.

정말 결혼한지 이태가 지났건만 영옥이에겐 태기가 없지 않는가. 꽃은 틀림없이 그래서 시들고 있다.

가만! 언젠가 보았지? 젊은 부부의 손에 매달려 모래불우를 아장아장 걷던 아이의 발자국에 꼬챙이로 동그라미를 그려 놓던 영옥이의 그 모습을 말이야. 얼마나 아이가 고왔으면 그렇게 했을가. 얼마나 아이가 사랑스러웠으면 말이야.

선화는 눈곱이 화끈 달아 올라 얼른 걸음을 옮겨짚었다. 그렇게 되어 영옥이의 병력서를 들춰내여 부원장과 무릎을 마주하게 됐던것이다...

선화는 영옥이네 집에 들어 서자 에돌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난 너를 돕고 싶어 왔어.》

《돕다니요? 무엇을요?》

《그야 뻔하지 않니, 네 아이를 받아 내는것.》

《어마 뭐라고요?!》

놀람, 의혹, 당황, 그 다음엔 기쁨이랄가. 환희랄가. 아름다운 꽃물결이 영옥이의 얼굴에 사뭇쳐 흘렀다.

《고마와요. 하지만... 전 제 몸을 안답니다.》

《몸이 어쨌다는거야?》

《됐어요. 제발 그 모든걸 다 잊고 나가 일이나 힘껏 하게 해줘요.》

바다바람에 그슬려 가뭇한 그의 얼굴엔 모든것을 체념한 인간의 표정이 흘렀다. 영옥이는 그를 향해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팔을 걸어 올리고 늪버치에 담가 놓았던 빨래감을 꺼내 땡땡 방치질을 맹렬히 해댔다. 그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울려 주어 선화는 와락 그의 손목을 붙잡고 방치를 뺏어 들었다.

《영옥이! 이제 한해만 더 있어 보지? 저를 좀 도와 주세요. 도와 달란 말이에요 하며 줄줄 따라다니지 않나. 난 장담해.》

《호호, 어찌문 그런 통을 다.》

《아니야.》

《그럼 하나 물어두 돼요?》

《물어 보렴.》

고개를 짓숙이고 젖은 손가락을 매만지는 영옥이의 귀밑이 장미꽃처럼 빨강게 익어 갔다.

《정말 그렇게 될수도 있을까요?》

《되잖구.》

《조산원선생님!》

선화는 가슴에 콕 안기는 영옥이의 화끈 단 뺨을 오래도록 어루쓸었다. 그러면서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살거렸다.

《기다렸지? 응? 어디 말해 봐.》

《고마와요. 전 선생님의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아이를 본것만큼이나 기뻐요. 이제 됐지요? 그러니 절 다신 찾아 다니지 마세요.》

《무슨 소릴, 네 고집이 아무렴 내 고집 절반만이나 하겠니?》

《흑...》

영옥이의 가슴속에서 막혔던 울음이 건잡을수 없이 터져 나왔다.

그날 따라 달빛은 왜 그렇게두 밝던지.

선화는 매일 그를 찾아 갔다.

그런데 좀처럼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몇달이 지나자 영옥이는 점점 의기소침해 지는것이였다. 안타까운 일이였다. 선화는 눈물이 글썽해서 그를 볼렀다.

《영옥이 당귀 달인 물은 왜 한모금도 안 먹었니?》

《저... 안됐어요. 희망이 크지 않으면 실망도 크지 않겠지요?》

《뭘?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구 있니? 그래두 난 지금까지 너를 믿어 왔어. 그래 넌 아이 낳는 일이 주어 진 자연의 논리를 따라 저절로 될줄 알았니? 아니야. 그건 지금껏 없던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크고 벅찬 그리구 또 뭐라구 할가...》

《선생님!》

《됐다. 난 네가 그렇게까지 나약한줄은 모르구.》

선화가 분김에 이렇게 말하며 돌아 서려 하는데 부엌문이 빙시레 열리며 김이 문문 나는 삶은 고구마그릇이 쑥 들어 오는것이였다. 그러더니 어느새 슬쩍 닫히고 문의 저쪽너머에서 영옥의 남편인 《오락회대장》의 웅글진 목소리가 울려 왔다.

《그 동문 더 세계 두들겨 패야 정신 들겁니다.》

선화의 가슴이 쭈뼛 찼다.

(행복한 가정! 이들이 못해 낼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선화는 자기의 마음을 리해한 《오락회대장》에 대한 고마움에 사무쳐 영옥이의 가냘파 보이는 어

개를 와락 안아 일으켰다. 그리고 물약그릇을 들어 영옥이의 초들초들 마른 입술에 갖다 대주었다.

《방금 그 말을 들었지? 영옥이! 오락회때 저 동무에게 한번 지명 당하면 배겨 내지 못한다고 했지? 그렇게 보면 넌 지금 지명 당한 몸이야. 네가 부를 노래는 귀여운 아기구.》

《...》

《영옥이! 창문을 내다봐라. 제방이 보이지? 얼마나 멀리로 뻗어 갔니. 이제 네가 막은 저 넓은 간석지땅엔 벼바다가 물결칠거구 섬기슭엔 지금보다 열썩한 문화주택과 상점, 영화관, 공원들이 일떠설거야. 그때 가선 네가 낳은 아이가 그 모든 행복의 주인이 되겠지? 생각해 봐. 새땅의 주인으로 자란 새세대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야.》

《언니! 고마... 워요.》

《언닌 무슨 언니. 선생님이라고 불러. 엄격하고 에너리를 모르는 선생님이라고 말야.》

선화는 그에게 정성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힘이 솟는 자신을 느꼈다. 왕진 나갔다 돌아 오는 길이면 랭병에 좋다는 약초를 찾아 섬골안을 헤매기도 했다.

어느 날,

《오락회대장》이 선화네 집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어떻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밀도 끝도 없이 간석지에 흔히 돌아나는 나무재기, 통통이마디로 정성껏 엮은 다발을 그의 가슴에 불쑥 안겨 주는것이였다. 거기서 풍기는 비릿하면서도 싱그러운 풀향기에 젖어 들 사이도 없이 《오락회대장》은 돌파서 부리나케 달아나는 것이였다. 뻥해 서 있던 선화는 그체서야 사연을 짐작하고 와뜰 놀랐다. 아! 그럼 영옥이에게?! 쿵, 쿵. 심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며 환희롭게 뛰놀았다. 선화는 서둘러 그를 뒤쫓아 갔다. 했으나 그는 벌써 도래굽이너머로 사라지고 그쪽에서 멎들어 진 휘파람소리가 들려 오고 있었다.

그때부터인지 영옥이네 집 창가에서 분꽃이 아름답게 피여 웃기 시작했다.

어데서 벌써 소문을 들었는지 이웃에 사는 안강망선 선장아바이가 해삼을 한다래끼 잡아 가지고 찾아 왔다.

그는 《오락회대장》이 부어 주는 《삼백》술을 받아 마시고 거나해 저 때마침 와 있던 선화를 불렀다.

《이보우, 곱하기선생! 고맙수다.》

허허, 이렇게 부른다구 욕하지 마시우. 이제 입에 불어 와서 그만... 하긴 이제 다 선화선생을 사랑하구 고맙게 여기는 우리 간석지사람들의 마음 담긴 이름이지요. 선생이 하는 일이 아이나 받아내는 그

런 하찮은 일 같애두 우린 그렇게 생각 안하우다. 선화선생이야말로 정말 우리 자식들두 불구어 주고 행복두 불구어 주는 곱하기선생이지요. 허허...

선화선생! 내 옛말 하나 할가요?

선생을 보니 어쩐지 왜정때 일이 생각나누만. 허허.

그땐 아이 낳는 일이 왜 그렇게 무서웠던지. 나와 배를 같이 타던 구레나룻이 더부룩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는 만삭이 된 안해가 있었지. 정말 착실한 녀인이었어. 한데 웬간한 아낙네들 같으면 해산을 하겠다고 본가에 갔을테지만 그에게는 본가란게 없었네. 구레나룻의 걱정은 산갈았지. 서른이 넘어서야 보게 된 자식인데 마음이 오죽할랴구. 그런데 여기 영사엔 조산원이 없었네. 날이 흘러 어느덧 그날이 오고야 말았지. 구레나룻은 금평으로 무섭게 전마선을 몰아 댔네. 그땐 밤이었어.

그가 조산원의 집문을 두드리자 이발이 빠진 새양쥐 같은 늑다리가 거들거리며 나왔네. 덜덜 떨면서 사유를 말하는 구레나룻에게서 비린내가 나는지 한참 코를 찌르고 있던 그놈은 더 듣지도 않고 손을 내밀었네. 돈을 내라는것이였지. 한데 우리 친구에게 돈이 다 뭐가. 그러자 그놈은 새된 소리로 <거지 같은 배놈의 새끼. 어서 썩 사라지지 못해.>하고 고함을 질렀네.

구레나룻의 분노가 터져 올랐지. <당신두, 당신두 사람이요?>놈은 한대 맞고 쓰러졌지만 집안은 벌둥지를 쑤신것처럼 소동이 일어 났지. 물론 순사놈들도 오고. 아! 그러니 이게 뭐가. 해산방조 청하러 갔던 구레나룻은 류치장으로 끌려 가고 그의 안해는... 혼자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아일 낳고는... 그만...>

《선장아바이!》

《영옥아! 그 구레나룻이 누구였는지 아냐? 선화선생의 아버지였다. 그 사람은 막내딸을 키워 조산원양성소로 떠밀었지. <좋은 세월이로다. 우리 집에 조산원이라니, 꿈이나 꿀번 한 일이나>이렇게 말하며 말일세. 정말이지 이 모든게 그전같으면야 꿈이나 꿀번 한 일인가. 허허.》

《선장아바이! 고마와요.》

선화는 좀 더 바빠 뛰어 다녔다.

임신부와의 상담결과가 매번 시원치 않았기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가 골머리 앓으며 영옥이네 집문가에 이르렀을 때 안에서 《오락회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 나왔다.

《가만, 가만! 그걸 당신이 들다니. 제발 놓고 그저 앉아만 있소. 그게 내 소원이요. 그리구 굳이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나처럼 힘깨나 쓰는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하나만 무사히 안겨달라는거요. 허허, 그건 룡담이구 앞으론 제발 이런 일에 손 대지 마오. 내가 있지 않소.》

선화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원인은 저기에 있었어. 너무 어루만지기만 하는데. 안되겠어. 래일부터 무슨 일이나 만들어서라도 시켜야지.)...

바로 그 영옥이가 이제 해산하게 된것이다. 선화는 어떻게 하면 그가 척추에 부담이 없게 아이를 낳게 할것인가 모대기다 영옥이의 《임신부건강관리부》를 가지고 도산원에 올라 왔던것이다. 능력 있는 선생들의 의견을 받고 싶어서였다...

《아니?! 너 어디 편찮니? 저런, 입술이 다 부르렀구나.》

명애가 사과를 씹다 말고 선화를 침대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폭신한 담요를 덮어 주고 머리맡에 놓인 록음기의 스위치를 눌렀다.

《조산원동무! 좋아 하는 음악이나 들으면서 피곤을 푸시라요. 그동안 내 맛 있는거 해놓을테니.》

명애가 나간 뒤 고즈넉한 방안에 경음악이 은은히 울려 퍼졌다.

팔랑- 초인종소리가 들려 와 그의 상념을 깨친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는군요.》

명애의 목소리에 이어 들려 오는 석침한 목소리.

《회의를 끝내고 곧장 오는 길이요. 한데 누가 왔소?》

《쉬, 조용해요. 선화가 왔어요.》

《그렇소?》

저으기 반기는 음조다. 한데 그 뒤소리는 전혀 예상밖이다.

《여보! 그런데 당신넨 무슨 일을 그렇게 하오. 급양이 자주 말밥에 오른단 말이요. 전어문젠지 뭔지 그건 대체 어떻게 된거요?》

《그게 당신 귀에까지 들어 갔군요. 그건 다 영사수산때문이에요. 체세를 쓰느라 시간을 끝다 그만 적잖은 량을 변질시켰으니.》

《그것 보오. 책임문제가 나서면 네 미록 내 미록... 영사수산에서는 당신네 급양이 잘못했다구 한단 말이요. 하여튼 당신이 각성해야 되겠소.》

《아이구, 아니예요. 그들이 이제 와선 뭘.》

선화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충일이는 왜 아직 안 올라?)

이 집에 올적마다 그가 섭섭하게 느끼는 감정은 충일이에 대한 어머니인 명애의 태도였다. 왜 그가 자기 취미대로 못하게 하는지. 제 하고 싶은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는 그때문일까? 아니야. 여기엔 뭔가 다르게 숨어 있어. 그게 뭘가?

벌써 3시.

명애는 안달이 나서 자꾸만 서성거렸다. 이따금 손마디를 꺾기도 하고 매끈거리는 구두 앞코송이로 장단을 치기도 했다.

선화는 가로수밑등에 둘러 친 보호턱우에 앉았다. 눈알이 콧꽃해 나고 가슴이 자꾸 졸아 드는것만 같아 서 있기가 참으로 힘에 부쳤다. 잘못했어. 곧장 버스정류소로 갔을걸. 그럼 신암고개에 올라 섰을텐데.

아까 도산원에서 일을 다 보고 나서 버스정류소로 나가던 선화는 명애네 살림집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다.

《선화! 좀 기다려.》

창문에서 맑고 청정한 명애의 목소리가 울려 왔던것이다. 얼마 안 있어 그가 나타났다.

《영사에 같이 내려 가자.》

《물고기인수가 제기된게구나.》

《글쎄 그보단 지나간 일을 가지고 뭘 해명할게 있어 그래. 거기 수산사업소 판매과장이란 량반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난 참을수 없어.》

《판매과장? 머리가 벗어 진 아바이말이지? 그 아바이가 뭘 잘못했게? 난 믿을수 없구나.》

《넌 다 몰라.》

《또 그 참지 못하는 성미가 발작한게구나. 그럼 마침이다. 우리 집에 들려 광남이가 그린 그림들두 구경하구...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

《그 애가 벌써 그림을?!》

《작년에 도적인 미술전람회에서 1등을 했는데.》

《아유나, 그래? 뭘성 부른 나물 떡잎부터 알아본다구 우리 충일인 안되겠어. 지금까지 손뽕금만 부지런히 려습했어도 대만해 졌을텐데.》

《그게 아니야.》

《됐어. 아이들 말이면 그저 신경나 죽겠어. 예미 말을 왜 그렇게 안듣는지. 대체 쪼꼬만 애들에게 취미란게 뭐야. 어른들 말대로 하면 되는거지.》

《뭐라구?!》

선화는 아연해 났다. 어쩔 명애가 저런 말을 다, 자기 아이의 장애에 대해 그렇게 말하다니...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아이들의 취미를 따르구 꽃피워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나두 그렇지. 광남이가 그림에 정신이 팔리자 나두 남편두 거기에 자연 정신을 팔았지. 그래서 대상에 대한 조형적파악이라든가 명암원리 같은것도 알게 되구 재미도 갖게 됐지. 그런데 명애? 한심해.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해 줘야겠어.

그들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영사구로 가는 버스정류소쪽으로 나서자 명애가 《이쪽으로!》하며 땀길을 가리켰다. 의아해서 바라보는 선화에게 셀쭉 웃어 보이며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남편님>이 마침 그쪽으로 간다는거야. 뭐 오랜만에 동부인하자나.》

《그럼 난 불청객이 되잖니.》

《무슨 소릴. 우리야 어릴적추억을 함께 나눠 가지고 있잖니. 우리 충일이 아버지두 뭘 보구 그러는지 너만은 높이 산단다.》

땡, 땡.

도로우에 《갱생》차가 나타나더니 그들이 있는 쪽으로 굴러 왔다. 명애는 바지런히 쳐대던 발장단을 멈추지 않고 새초롬한 표정으로 손목시계만 들여다 보았다. 미안쩍은 얼굴로 내다보고 있을 남편에게 《이보다 더한 불성의가 또 어데 있지요?》 하거나 하려느듯.

선화는 긴 숨을 후- 내쉬었다.

어느덧 승용차가 와서 멈춰 섰다. 차문이 벌컥 열리더니 젊은 운전사가 고개를 내미는것이였다.

《아주머니! 일이 정말 맹랑하게 됐습니다.》

《왜서요?》

《처장동지가 영사쪽으로 못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다른 일이 제기되는바람에 그만...》

《그래요?》

두 녀인은 락심천만해 버렸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갱생》차는 부릉거리며 돌파서 달아 났다.

《믿는 나무 구새 먹는다더니.》

이렇게 종알거리며 명애가 새파래 있자 선화는 왜서인지 자기가 더 미안해 저 나직이 달래였다.

《그렇게 된걸 어찌겠니.》

《흥.》

자존심이랄가 그것이 여간 세지 않은 명애가 제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변을 당했으니 속이 저렇게 토라질수밖에.

《선화! 이렇게 된바엔 우리 집에 들어 가 하루밤 더 자구 래일 차를 얻어 가지구 떠나자. 그까짓 승용차 하나쯤 못 얻겠니. 어서 들어가자.》

선화는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넘어 진김에 쉬여 간다구 그렇게 할가?

그러다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해산을 앞둔 영옥이의 걱정 어린 눈길에 떠올라서였다. 아니 그럴수 없어. 하루밤 또 묵다니. 《난 가 봐야겠어. 꼭 무슨일이...》

《하긴 내가 괜한 말을 했지. 이왕 떠난 길인데 돌아 서자면 네가 돌아 서겠니? 함께 가자.》

한낮의 태양은 급작스레 기울어 지기 시작했다. 은행나무가로수들사이로 보이는 아동공원에서 벽적 떠들던 아이들의 목소리도 이즈막에 와서는 퍼그나 즈믄해 졌다.

선화는 명애와 조금 떨어져 저 타박타박 걸었다. 그러면서 명애의 옷매무시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40대의 명애, 얼마나 몰라 보게 번져 졌는가. 저 모습을 보면 누가 그 옛날 누더기를 걸치고 노잡이를 하던 어부의 딸이라고 할것인가. 아마 영사사람들

도 쉬이 알아 보지 못할것이다. 그만큼 명애는 고마운 우리 제도하에서 누구보다도 노래가락처럼 우아해 지고 설레이는 바다처럼 풍만해 졌던것이다. 그런데 그는 뭔가 잊고 사는것 같다. 언제 봐야 차례지는 행복을 당연한것으로 여기면서 그저 누리려고만 하거든.

명애, 넌 언젠가 나더러 살줄 모른다구, 이젠 제살 궁리도 좀 하라구 했지. 아니, 난 지금도 행복해. 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보람 있는 일인줄 다는 모를거야.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우리 제도가 얼마나 고마운가를 실생활로 느끼게 하는 일이야. 그리고 창창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보람찬 일이구. 그래서 어려워도 힘겨워도 뛰고 또 뛰는거란다. 내가 정성을 바치면 바칠수록 영사구사람들은 나를 더욱더 사랑해주구...

행복이란게 뭐겠니?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사는 거기에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지 않겠니. 이젠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해주고 싶던 말이야...

선화는 땀발이 송골송골 내똥은 이마를 닦으며 걸음을 다그쳤다.

그러는 선화를 보는 명애는 생각이 많았다.

선화, 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넌 확실히 나하구는 모든게 달라. 나도 조산원이라면 저렇게 선화처럼 할수 있을가. 아니, 아니야... 명애는 고개를 저으며 저만큼 앞선 선화를 뒤쫓아 갔다.

이때 지나가던 자동차가 그들의 곁에 뺨 멈춰섰다.

《거 조산원선생님이 아닙니까?》

부엌부엌한 얼굴에 웃음을 띤 운전사가 시창밖으로 상반신을 쏙 내밀었다.

《아유나. 03호 정동무!》

선화는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다.

《도에 올라 왔됐습니까?》

《예, 도산원에 불 일이 있어서...》

그래 아이는 앓지 앓구 잘 크는가요?》

운전사는 씩 웃으며 뒤더수기를 굽었다.

《그럼요. 우리 어머니는 떡돌 같은 손주를 보게 해주었다구 늘 조산원선생님 이야기랍니다.

영사구에 돌아 가는 길이었지요? 어서 타십시오..》

《정말 마침이에요. 고마워요.》

명애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기가 선화를 도와주려고 했던 노릇이 그만 반대로 선화의 신세를 지게 된것이였다. 그래, 확실히 선화는 사람들속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것 같애. 그런데 난...

선화는 머뭇거리는 명애를 재촉하여 차에 올랐다.

그들은 어둠이 깃들무렵에야 영사구에 이르렀다. 비릿한 해감내가 폐장깊이 스며 들고 썩- 처절썩 제방을 들때리는 파도소리가 간단없이 들려왔다.

멀리 간석지건설장에서 이 밤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각종 기계들의 동음소리가 그에 뒤섞여 분주하게 울려 왔다.

마을은 고요히 굶니는 안개발속에 포근히 잠겨있었다.

선화는 이마에 송골송골 내똥은 땀을 씻었다. 배가 출출해 오고 장딴지가 무엇에 주어 맞은것처럼 아파왔다. 어서 들어 가 찬물에 발을 잠그고 피곤을 쭉 풀었으면 좋겠다. 했으나 영옥이에게 들려 보지 않고서는 그대로 들어 갈수 없었다.

《명애! 집에 먼저 들어 가. 난 아무래도 토요일에 갔다 와야겠어. 자꾸 걱정돼서 그래.》

《걱정두 팔자라더니, 넌 할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제 무슨 배가 있다구.》

《배가 없으면 갯 막은 제방으로 에돌지 뭐. 좀 멀긴 해두 일 없어.》

《넌 정말 이상하구나. 모르겠어. 나두 조산원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을가?》

《하겠지 뭐.》

그들이 마을어귀에 이르렀을 때 우중충 치솟은 백양나무중턱에서 전지불이 환하게 내려 비쳐 졌다. 동그란 불빛은 선화의 옷자락을 훑으며 재빨리 움직이는것이였다. 뒤이어 짜랑짜랑 울리는 애어린 목소리.

《할아버지! 와요-》

그 전지불이 불시에 방향을 돌려 이번에는 제방너머 검은 타루같이 진하게 펼쳐 진 바다쪽으로 옮겨 진다. 그러자 뿌연 안개가 떠서 흐르는 모래불에 바위처럼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가 일어 나 부산을 피웠다.

《애, 복남아! 네가 바루 보긴 봤냐?》

《맞아요. 맞다는데두요.》

선화와 명애는 그만 우뚝 서버렸다. 그러자 매출하지 못한 밀둥아리로 전지를 목에 건 어린 소년에 공처럼 구울러 내려 왔다.

《조산원선생님!》

《아니?! 너 토요일의 복남이가 아니냐?》

《왜 이제야 와요?》

복남이란 소년은 머쓱하게 웃어 보이고는 어른스럽게 선화의 어깨에서 가방을 벗겨 내렸다.

《빨리 가자요, 우리 할아버지목이 한뼘은 길어졌네.》

《왜?》

《광남 엄마를 기다리다 그렇게 됐지요 뭐.》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다던? 혹시...》

《나야 모르지요 뭐.》

복남이는 뒤더수기를 썩썩 굽으며 따라 섰다.

아직 달은 뜨지 않고 하늘엔 금싸래기 같은 별들이 자르르 떠서 무척 정겹게 새물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제방을 넘어 서자 침부당거리며 전마선을 기슭에 바짝 붙인 안강망선 선장아바이가 격석격석 다가왔다.

《거기 오는게 조산원선생이 옳수다? 음. 걸음썰 보니 옳구먼. 어서 오우다. 이렇게 늦을것 같아 배를 갖고 나왔더니...》

《아바이! 무슨 일이 있었지요?》

《허허, 영옥이가 진통을 시작했다우. 그래서 기술부원장이랑 건너 가구 영옥인 입원실(현장치료실)에 옮겨 왔는데 선생이 와야 어찌지요.》

《아! 글썄 어쩐지... 아바이! 어서 가자요.》

《암, 그래야지.》

전마선에 먼저 다가간 아바이는 어렵지 않게 훌쩍 올라 타 갑판에 그가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선화는 명애때문에 한참 머뭇거렸다.

그걸 어느새 눈치 챘는지 명애가 다가왔다.

《야! 전마선이구나. 선화! 그럴것없이 섬에 함께 가자. 수산사업소두 거기에 있잖니.》

《넌 래일 가두 돼. 피곤하겠는데 우리 집에 들어가 쉬어.》

《싫어.》

명애는 제 먼저 아바이가 내민 꺾꽂은 손을 붙잡고 배에 올랐다. 아마도 건들거리는 전마선이 그를 철부지시절로 이끌었는가 싶었다.

《아바이, 안녕하세요?》

《가만, 누구신지?》

아바이는 잘 알아 보지 못하는듯 눈을 가늘게 쪼프렸다.

《아바이두 참, 나 명애예요, 명애. 선화의 소꿉시절동무.》

《?!...》

아바이는 고개만 기웃거릴뿐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명애는 안타까운듯 두손을 가슴앞에 모두어 잡았다.

《야, 언젠가 선화랑 아바이 몰래 전마선을 끌고 바다로 나갔다가 아바이한테 욕을 한참이나 먹었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제야 생각이 떠오르는듯 아바이는 무릎을 때렸다.

《오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 그 배나무집 외동딸! 생각나네 생각나. 허허, 이젠 늙다 보니 다 잊어버린 모양일세.

《그런데 이 밤중에 어딜 가자구?》

《아니, 전 그저 선화동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런답니다.》

선화는 싱긋 웃기만 했다.

(애두 참, 해산방조 가는데 따라 오겠단건 또 뭐야.)

끼룩끼룩.

밤갈매기들이 떠서 그들의 머리우를 빙빙 날아왔다.

그들이 자리를 정해 앉고 복남이가 올라 와 닻줄을 걸어 올리자 선장아바이가 삿대로 기슭을 끄고 떠밀었다.

《복남아! 그럼 우리가 선생님을 태우고 간다고 신호를 해라.》

《알겠어요.》

배 앞코승이에 앉아 닻줄을 사려 놓은 복남이가 섬쪽에 대고 빙글빙글 신호했다.

전마선은 밤물결우로 서서히 미끄러져 갔다.

빠거덕, 빠거덕.

명애는 선화의 손을 꼭 붙잡았다.

《선화야! 여기가 우리 뛰놀던 그 기슭이 맞긴 맞니? 난 도대체 믿을수가 없어.》

《맞아. 저기 곰바위가 보이지? 그옆엔 싸리바위.》

《옳긴 옳구나, 그결엔 구죽바위! 그아랜 가무래기가 곰찍이 많기도 하더니.》

선장아바이가 선화를 정겹게 여겨 보다 이렇게 말했다.

《복남아! 한번 더해라... 혹시 못 알아 봤을수도 있거든.》

이때 도요섬에서 한점 불빛이 나타났다.

《할아버지! 저걸 보시라요.》

《음, 신호를 받았군.》

명애는 오래간만에 느껴 보는 기이한 바다정서에 너무도 황홀해서 자기를 거의 잊다싶이 했다. 비릿한 해감내, 굼니는 해무, 배전에 와서 부딪치는 물결, 섬에 보내는 불빛신호... 문득 아득히 멀어 저간 동심시절로 되돌아 간듯 그의 가슴은 하냥 부풀기 시작했다.

복남이가 허공에 대고 웨치듯 말했다.

《할아버지! 저걸 봐요. 불들이 계속 켜져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야! 많네.》

잠간사이에 수십개의 불들이 도요섬기슭에 꼭 펼쳐 졌다.

그때까지도 영옥이생각에 움해 한점한점 피어나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고 있던 선화는 차츰 가빠 오르는 숨결을 억제하지 못하여 벌떡 일어 섰다.

영문을 알수 없어 눈을 깜박이던 명애도 결따라 일어 섰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고 싶었는데 입안에서만 감돌뿐 터져 나오지 않는다. 한참만에야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게 다 선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어마나, 섬 같지 않고 별무리가 내려 앉은것 같은게...》

선화의 눈굽에 파가운것이 핑- 고였다. 그것은 불을 타고 견잡을수 없이 흘러 내렸다.

여러분, 고마워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저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화불까지 켜들고 나와 기다려 주시니 정말...

영육이, 저 불빛을 보니? 저건 너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마음 쓰는 사람들의 진정어린 가슴에서 타오른 불이야. 그러니 힘을 내. 너는 이제 것처럼 가슴 태우며 고대하던 새 생명- 우리의 미래가 터치는 고고성을 듣게 될거야. 힘을 내. 모든게 다 잘될거야.

행복감으로 달아 오른 선화의 두볼에서 맑은것이 불빛에 반짝이며 어룡거렸다.

선화를 바라보는 명애의 가슴은 찌르르해 났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펼쳐 나와 선화를 기다리다니?! 아, 선화! 너는 정말 행복하구나. 사랑해 주고 기다려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네가 막 부럽구나.

그런데 난... 저 사람들속에 나를 기다려 주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부끄럽구나.

선화, 내가 오늘 너를 따라 오길 정말 잘했어. 난 오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진정을 바칠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 온다는것을 깨닫게 됐어. 바로 저 《별무리》가 그걸 나한테 깨우쳐 주고 있어. 선화...

전마선은 물결을 타고 흥떡이며 《별무리》 흐르는 도요섬으로 내달고 있었다.

아이들이 소곤댄다

문광근

한적한 섬마을 우리 학교
꽃테 두른 영웅소개관앞에서
아이들은 소곤댄다
이 영웅은 우리 학교 1기졸업생
이 형님은 우리 분교 졸업생이었다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영웅들의 옛 학창시절 어려 오누나
학교정문앞에 내다붙이던 벽보
아침마다 그앞을 지나며
제 이름 찾아 보던 아이들
남몰래 자랑에 겨워
붉은 넥타이처럼 빨강계 물들던 얼굴들...

언제부터 벽보의 주인공들이었던가
첫 과목부터 전 과목 5점인 성적증
자랑차게 받아 안던 그때부터였던가
얇은 옆동무의 입맛을 돋군다고
늑가에서 봉어궤미 안고 들어 서던
늑가울 그 저녁부터였던가

이른 새벽마다 정히 안고 온
이슬 함초롬한 들꽃다발
수령님영상앞에 허리 굽혀 드리고
하루공부 시작될 교실로 향하던 그 걸음...

큰 비가 내린 뒤
넘어 진 강냉이포기 바로 세워 흙을 다져 주며
방울방울 흘리던 땀방울도 보여 오누나

그들이 작은 손으로 심어 가꾼 《소년단립》
오늘도 잣나무 이빨나무 무성히 설레누나

그 마음 지니고 자란 그들이어서
터지는 수류탄을 가슴으로 덮으며
꽃다운 생을 동지 위해 바칠줄 알았구나
청년영웅도로의 영웅건설자로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칠수 있었구나

아 그들의 그 모습
모교를 못 잊어 다시 찾아 왔는가
의젓한 가슴팍에 금별메달 빛나도
어릴적의 그 눈매 그 웃음으로
교정을 정답게 바라보누나
키워 준 그 사랑 그 정이 고마워

학교시절 소박한 벽보관에
꽃처럼 피여 나던 그 이름들
여기서 첫 자옥 땀 어린 날의 주인공들이
장군님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났구나

한적한 섬마을 우리 학교출신 영웅들
오늘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아침 아이들이 소곤댄다
-다음 차례는 누가 될가
글쎄...

서로 마주 보며 아이들이 소곤댄다

종자의 탐구와 성격형상

-지난 하반기 《조선문학》 7-12호를 두고-

박성국

지난 하반기도 《조선문학》 7~12호에는 22편의 단편소설이 실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인간학의 체모를 갖춘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소설가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을 투철한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 내는것이다.

하반기 《조선문학》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령도업적과 고매한 덕성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들이 량적으로 많이 실렸으며 질적수준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

단편소설 《생의 메아리》(김명익, 8호), 《추억》(조상호, 9호), 《어머니들이 태어나다》(리영환, 12호), 《복주머니》(박찬은, 10호)는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비교적 훌륭히 형상한 작품들이다.

단편소설 《생의 메아리》에서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그 어떤 복잡한 경력을 가진 자산가라도 애국공신으로 키우는 위대한 정치라는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사상에술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였다.

해방은 되었지만 사람들의 운명을 지켜 주고 보호해 줄 무력도 공화국정권도 나라의 법도 없던 때한 개인기업가를 불행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의 마지막까지 참된 인생길을 걷도록 보살펴 주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베푸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단편소설 《추억》, 《어머니들이 태어나다》는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덕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추억》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한생을 다 바치신분 이시라는것을 작품의 사상적핵으로 하여 비교적 수준 있게 형상하였다.

작품의 특성은 남조선에서 살다가 공화국북반부에 들어 와 자진하여 병기공장에서 일하던 로천일이 사고를 일으키고 일부 편협한 사람들의 의심과

배척을 받게 되자 공장을 떠나버렸을 때 그의 운명을 구원하고 책임져 주시려고 마음 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예술적화폭속에 펼쳐 철학적으로 심오한 사상을 밝혀 낸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총대로써만 지켜 낼수 있다는것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혁명의 사랑의 철학이다.

작품에서는 인민무력건설을 위한 투쟁이 곧 인민의 운명을 지켜 주고 보호해 주기 위한 투쟁이기에 김정숙동지께서 그토록 한 병기기술자의 운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시기까지도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 주시었다는것을 잘 보여 주었다.

작가는 작품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탄생과 그 강화발전이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이룩된것이기에 더없이 위대한것이며 여기에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무력건설로선을 높이 받들어 오신 어머니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품모가 있음을 뚜렷이 부각하였다.

작품의 특성은 또한 작가가 종자의 요구에 맞게 인물관계를 옹계 설정하고 회상식수법으로 어머니의 숭고한 품모를 다면적으로 펼쳐 보여 준것이다.

작가는 상대인물인 리덕현의 체험세계에서 추억되는 인상 깊은 김정숙어머님의 생활과 활동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주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뜨거운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파헤쳐 펼쳐 보임으로써 어머니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격이 있게 형상하였다.

작품에는 어머니의 숭고한 품모를 추억하시는위대한 수령님의 내부적체험세계에 대한 묘사가 질게 주어 져 있다.

(그렇게... 그렇게 평생 고생만 시키다가 보내엿구나. 단 한번만이라도 잘 입고, 단 한번만이라도 잘 먹고, 단 하루라도 편안히 살았다면 이다지도 가슴이 아프겠는가. 세상을 떠나기전에는 군기금을 위해, 인민군대무장장비를 위해 자기의 모든걸 깡그리 다 바치면서도 무기를 못 만들겠다고 달아난 사람의 운명을 걱정해 주고... 그토록 속을 태우면서도 그가 못 오겠다면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마음 놓고 마음껏 하도록 하라고 대책을 세워 주고... 그렇게 한생을 살아 왔었지. 오직 동지들을 위해, 인민을 위해, 혁명을 위해...)

력사적사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대목이 큰 감동을 주는것은 작가가 사실자료를 전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보여 줄수 있는 생동한 세부들을 탐구하고 이야기흐름을 감정조직으로 맞물려 성격형상을 인상 깊게 한데 있다.

작품에는 어머니의 숭고한 품모를 감명 깊게 보여 주는 생동하고 인상적인 세부들이 잘 탐구되어 묘사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변변한 옷이 없는 어머니께 모아 두었다가 꼭 좋은 옷을 해 입으라고 주시였던 생활비를 올린 조국보위기금명세표세부, 어리신 장군님의 밥상에 오른 조밥과 꿏김치세부, 달아난로천일을 걱정하여 하시는 전화세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께 갈아 입혀 드릴 옷이 없다는것을 알고 통곡하던 너투사들의 아픈 마음을 보여 주는 생활세부들, 이것은 어머니의 숭고한 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 뜨거운 추억의 세계와 인상 깊은 생활화폭을 통하여 어머니는 한생의 모든것을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신 사랑과 믿음의 위대한 체현자, 최고화신이심을 감명 깊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어머니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보여 주는 가슴 아픈 추억들을 무겁고 어렵게 형상함으로 하여 정서적색갈이 밝지 못하고 동질의 생활과 세부를 겹놓아 형상이 처진것과 같은 약점을 찾아 볼수 있다.

《어머니들이 태어나다》는 위대한 김정숙어머니의 품속에서 새 조선의 어머니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상을 예술적화폭속에 구현한 소설이다.

작품의 우점은 종자의 요구에 맞게 곡절 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 온 각이한 인물들을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잘 맺어 주고 어머니의 주동적인 생활과 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옹게 해명한것이다.

작품에서 25년만에 쓰련의료단 성원으로 조국에 나온 련채봉의사, 천대와 굴욕속에 해매다가 절간에 들어 가 중이 된 그의 딸 리성녀, 왜놈들의 《정신대》로 끌려 가던중 죽기를 각오하고 물에 뛰어들어 구사일생으로 살아 난 해녀출신의 박남희, 고아로 떠돌아 다니던 불쌍한 철이 등 이들은 나라를 빼앗긴탓에 곡절 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인간들이다.

작가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에서 짓밟힌 우리나라 녀성들과 아이들의 운명을 보시며 그들모두의 친어머니가 되시여 해방된 조선의 새 인간들로 키워 가시는 어머니의 고매한 품모를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잘 보여 주었다.

작가는 또한 각이한 사건과 생활계기에서 체험되는 어머니의 내부적심리세계를 깊이 파고 드는 방법으로, 상대인물들의 시점에 굴절시켜 펼치는 식으로 어머니의 위대한 품모를 감동 깊게 형상하였다.

작품의 형상에서 일련의 결합들도 있다. 그것은 작품에서 녀승인 리성녀와 철이의 성격형상이 진실치 못한것이다.

어머니를 것처럼 증오하던 리성녀가 쉽게 어머니를 용서해 주는것, 리성녀가 돌보아 주던 철이가 련채봉의사에게 며칠사이에 정이 들어 리성녀를 멀리하는것과 같은 형상은 인위적인 느낌을 준다.

작품에서 생동한 세부의 결핍, 작가의 의도와 형상의 불일치는 작품형상을 낮추고 있다.

하반년도에는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이채로운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단편소설 《회초리》(안홍운, 8호)에서는 일군들의 사업실적은 실리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그 실리는 나라와 인민에게 있어야 한다는것을 사상적알맹이로 하여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자세에 대한 문제에 옳은 해명을 주었다.

작품의 우점은 현 시기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에 민감한 해명을 줄수 있는 의의 있는 종자를 탐구하고 나라와 인민을 위한 사업에서 서로 상반되는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가진 두 인물의 성격을 옹게 설정하고 형상한것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언제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일하는 군당 책임비서 윤준모와 이와 반대로 커다란 《실적》만을 노리면서 당면한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박정산의 성격을 예리하게 대치시켰다. 네거리 한복판에서 솟아 오르는 온천물에 식료품들을 가공하는 녀인들이 거리의 풍치에 손상을 준다면서 도시경영과장에게 과업을 주어 인민반장들을 시켜 못 나오게 하는 박정산과 가정부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수고도 헤아려 보고 읍지구 녀성들이 음식물가공도 빨래도 마음 놓고 할수 있게 집을 지어 주자고 하는 윤준모의 립장은 뚜렷이 대조된다. 작가는 여기에 조수력발전소건설시운전에서 여러번 실패하고도 준비된 기술력량도 과학기술적담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또다시 시운전을 벌려 술한 자재와 노력, 기술수단들을 잃어 버리는 박정산의 《실적》 놀음을 겹놓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발전기 5기중 1기만이 가동할수 있는것을 방편으로 내걸고 규모가 큰 양어장건설에 또다시 착수하려는 사건으로 성격을 더욱 예리화한다. 작가는 이러한 사건과 생활계기들속에서

빨래돌세부에 초점을 집중하여 두 일군의 상반되는 입장(윤준모는 힘들더라도 화강석을 구해다 잘해주자고 하며 박정산은 넘적한 돌이나 나무판자로 적당히 해주라고 한다.)을 반복강조하면서 누가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일하는 일군인가 하는것을 예리하게 밝혀 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없으며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는것이 실리가 있는 진짜 실적이며 바로 여기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우리 일군들의 자세와 일본새가 있음을 작가는 뚜렷한 자기의 형상세계를 통하여 깊이 있게 보여 주었다.

《넓어 지는 땅》(윤경찬, 10호), 《불 타는 노을》(강호진, 11호)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혁명적 랑만에 넘친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넓어 지는 땅》에서는 토지정리사업은 땅만 넓히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넓히는 사업이라는 의의 있는 문제를 작품의 핵으로 하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가는 주인공의 성격을 통하여 비교적 진실하게 해명하였다.

작품의 우점은 종자의 요구에 맞게 문제를 제기하고 성격규정을 잘하여 인물관계를 맺어 준것이며 모든 생활과 사건들을 인간문제의 해명으로 일관시킨것이다.

작품에서 어느 한 농장의 토지정리를 도와 주러 나온 제대군인이며 불도젤운전수인 강철호는 농장에서 걸린 문제가 막대골토지정리를 제 기일에 끝내는가 못 끝내는가 하는 생산기술적문제가 아니라 는것을 제때에 포착한다. 그는 부닥친 일시적난관에 포로되어 미래에 대한 확신과 략관이 없이 생활하는 처녀작업반장 진옥이의 그릇된 인생관을 바로 잡아 주는것을 자기가 농장에서 토지정리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것을 옳게 가려 볼줄 아는 인물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이러한 성격을 작업반 농사일은 자기만 걱정하고 책임지는듯이 생각하면서 항상 근심어린 얼굴로 뛰어 다니며 여유없이 생활하는 진옥이의 성격과 잘 대조시켰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계기들과 사건들속에서 드러나는 두 인물의 내면심리세계를 깊이 개방시켜 성격적대조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작품에서 시들어 버린 화분에 매달아 놓은 먼지오른 종이꽃을 보면서 진옥이와 강철호의 느낌에서 오는 정서적체험에서의 차이, 오락회장면과 논관에 박혀 있는 커다란 바위돌을 놓고 두 인물의 견해와 행동에서의 불일치 등은 긍부정의 성격을 개성이 뚜렷하고 인상 깊게 특징 짓고 있다.

작가는 이처럼 성격이 상반되는 두 인물을 맞세워 놓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략관에 넘쳐 부닥치는 난관들을 랑만적으로 뚫고 나가는 강철호의 정신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기를 따라 세우는 진옥이의 성격발전과정을 이들의 사랑이 시작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과 결부하여 형상을 흥미 있게, 진실하게 보여 주었다.

작품에서는 상대인물인 진옥이의 성격을 낮게 설정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인 강철호의 성격을 더 높이지 못한 부족점을 찾아 보게 된다.

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격이 있게 보여 주려면 상대인물의 격을 높여 주어야 한다는것은 새로운것이 아니다. 작가가 두 인물의 성격을 지성도가 있게 보여 주기 위한 생활적이고 생동한 생활세부들을 시대정신의 견지에서 탐구하고 파고 들어 형상하였다라면 작품에서 보다 높은 성격을 보여 줄 수 있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단편소설 《불 타는 노을》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가는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의 위훈에 찬 영웅적인 생활을 반영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고 순간을 살아도 웃으며 살면서 조국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데 영생하는 삶이 있다는 철학적인 종자를 심고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형상하였다.

작가는 작품에서 불치의 병에 걸려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청년영웅도로건설에 깡그리 다 바치는데 우리 시대 청춘의 빛나는 삶이 있음을 자각하고 생의 순간순간을 견인불발의 의지로 불 태우며 투쟁하는 처녀주인공 윤희의 성격을 시대의 높이에서 훌륭히 전형화하였다.

작품의 우점은 작가가 현실에서 의의 있는 종자를 골라 잡고 그에 맞게 인물관계를 잘 선정하고 짜인 구성속에서 이야기흐름을 강한 감정조직으로 엮어 감명 깊은 성격형상을 창조한것이다.

작가는 1인칭형상수법의 우점을 잘 살려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심리를 깊이 파고 들어 펼치는 방법으로, 인상 깊은 세부들의 련속으로 이야기를 시종 감동적이고 견인력 있게 끌고 나가면서 진실하고 생동한 화폭속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하였다.

작품에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생활을 그 본질에 맞게 밝고 랑만적인 정서로 채색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작가의 탐구와 사색을 좋게 평가할수 있다고 본다.

작가는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깡그리 바치고 순직하는 처녀주인공의 아름답고 숭고한 인생관을 보여 주는것을 형상과제로 내세웠지만 비장하고 영웅적인 생활사건들, 동정과 련민, 슬픔의 색조가 진한 표현들을 극력 피하면서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과

언어표현으로 작품을 형상화하였다. 때문에 작품의 전반적인 색깔이 어둡거나 칙칙하지 않으며 랑만적인 생활정서로 일관되어 있다.

그런데 작품에서 정대에 비끄러 맨 터슬터슬한 쇠바줄에 험하게 찢려 피 흐르는 손에 대한 묘사와 같이 끔찍한 장면을 필요이상 보여 주는것과 같은 것은 성격형상에 인위적인 희생성만 강조할뿐 별로 의의가 없다고 보아 진다. 이러한 묘사는 작품의 형상에 적지 않은 손해를 주는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의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채로운 형상을 창조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로서는 단편소설 《돈지갑》(강귀미, 12호), 《노을》(정영중, 12호), 《옥계천물소리》(홍철진, 9호)를 들수 있다.

단편소설 《돈지갑》에서는 사회주의조국만 있으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다 풀리게 된다는 의의 있는 사회적문제를 탐구하고 특색 있는 생활과 성격형상을 통하여 해명하였다.

작가는 생활과 성격의 본질을 드러낼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세부를 찾아 냄으로써 형상을 이채롭고 수준 있게 할수 있었다.

단편소설에서 생활세부의 탐구는 작품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것은 생활의 본질과 성격의 전모를 생동하고 인상 깊게 보여줄수 있는 조건이 바로 생활세부에 있기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돈지갑세부에는 3대에 걸치는 인간들의 생활이 함축되어 있다.

《나》의 시점에서 펼쳐 지는 낡고 자그마한 돈지갑에는 심각한 인간문제가 깃들어 있다.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절 《나》의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받아 온 천대와 멸시, 굴욕의 피눈물나는 과거사와 3세가 걸어 온 행복한 어제와 오늘의 력사가 작은 세부에 집약되어 하나의 인간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는것이다.

아들을 공부시킬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일본땅에 건너 가 뼈 빠지게 일하지만 공부는 고사하고 자그마한 돈지갑도 채워 주지 못하고 비명횡사한 시할아버지, 몇푼 안 들어 있는 돈지갑을 큰 재산으로 생각하였던 시아버지, 갓은 고생끝에 나라 없는 백성예겐 돈도 휴지장과 같음을 느끼고 애국사업에 나선 시아버지가 귀국의 배길에 오른 아들에게 빈 돈지갑을 넘겨 준다. 그러나 사회주의조국은 빈 돈지갑밖에 없이 찾아 온 세남매를 한품에 안아 대학 공부도 시켜 주고 나라의 어엿한 과학자로, 일군으로 내세워 준다.

작가는 이처럼 하나의 작은 돈지갑세부를 통하여 사회주의조국만 있으면 우리 인민의 행복과 미래는 영원히 담보된다는 사상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밝혀 내었다. 하여 이 작품은 우리 제도제일주의사상

으로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작품에서 시아버지가 일제의 패망직후에 2층짜리 주택을 자체로 지었다고 형상한것은 생활의 진실에 맞지 않는것으로써 허점을 남기고 있다.

단편소설 《노을》은 력사는 존중시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로 하고 로씨야의 한 인간의 운명을 통하여 이채롭게 형상한 소설이다.

작품의 특성은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하여 수령이 개척한 인민의 력사가 모독 당하던 때에 량심과 의리를 지키려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한 주인공이 재생의 빛을 받아 새롭게 성장하게 되는 생활을 통하여 심오한 사상을 밝혀낸 것이다.

작품에서 주인공 쉽코브는 청소부나 다름 없는 역사관리원을 자진하여 9년간이나 하면서 역에 건립된 레닌동상을 보호하고 관리해 왔지만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작가는 인생의 귀중한것을 잃게 된 쉽코브가 다시 돌아 오지 않을 력사에 대해 느끼는 서글픈 심정과 레닌의 시선을 추연한 눈빛으로 받아 들이는 심리세계를 파고 들면서 부닥친 운명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될 그의 성격의 모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하였던 주인공의 운명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으로 하여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방문 공식 행사일정에 레닌묘참관을 포함시키심으로써 레닌묘앞에서 10년만에 처음으로 국가적행사가 다시 부활되게 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쉽코브에게 레닌동상을 원상수복하는 책임이 맡겨 져 바라고 소원하던 레닌을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에 앞장설수 있게 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야로슬라블리역을 통과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영접하는 영광의 자리에 설수 있는 특전을 지니게 된다.

작가는 이처럼 주인공의 성격을 옹계 선정하고 제기되는 생활사건을 그가 처한 환경과 주어 진 성격으로서는 자체로 해결할수 없는 상태에 몰아오다가 새로운 사건으로 주인공의 성격에 질적인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제기한 문제를 잘 해명하였다.

작가는 주인공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의 거대한 영향력과 생활력, 세계사적의의를 생활적으로 뚜렷이 확증하였다.

바로 여기에 작가의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이 있고 발견한 몫이 있다.

지난 하반년도에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투쟁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일부 작품들에 그려진 성격들이 시대의 높은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부족점도 나타내었다.

단편소설 《토양》(라광철, 11호), 《함께 가는 길》(공천영, 11호), 《한 녀교원에 대한 추억》(리경명, 9호)은 시대의 요구를 옹계 반영하려는 작가들의 의도가 엿보이는 작품들이지만 탐구된 종자가 일반적이고 주인공의 성격도 새롭지 못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단편소설 《토양》에서는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에서 못해 낼 일이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주인공이 기술혁신에서 성공할수 있게 된 비결은 집단속에 있었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기술혁신에서 성공할수 있게 한 당비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믿음, 아버지의 희생적인 행동, 처녀의사의 사랑, 어제날 전우들의 당부가 담긴 생활들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생활들은 모두 주인공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제기한 문제의 견지에서 볼 때 옳은 인간관계의 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혁신을 발기하고 성공시켜야 할 담당자인 주인공이 주동적인 위치에 서 있지 못한것이다. 작품에서 주인공은 기술혁신을 발기하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의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여러 사람들의 지지와 고무에 감동되는 인물로 그려 저있을뿐 그가 하는 일이란 별로 없다. 주인공이 기술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만 주어 저있고 기술혁신을 도와 목숨을 내대고 실험을 진행하는 아버지의 생활이 우세를 차지한다.

이것은 작가가 주인공이 안고 풀어나가야 할 인간문제를 체현한 종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를 종자로 하여 형상함으로써 새 세대기술자의 새로운 성격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함께 가는 길》은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이 땅의 밑거름이 될 일념으로 미생물비료연구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가는 우리 시대 과학자의 참모습을 보여 주려고 한 소설이지만 탐구된 종자가 새롭지 못하고 성격형상도 진실하지 않아 구태의연한 작품으로 되었다.

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 주는 감동적인 생활들이 그려 지고 있지만 독자들에게 별로 감흥을 안겨 주지 못하였다.

작가는 녀성과학자 욕심이 연구사업때문에 남편의 림종도 지켜 주지 못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의 해산방조도 따끈한 밥 한끼도 못해 주었으며 외손

자가 다섯살이 될 때까지 생일날 한번 찾아 가 보지 못한 녀성으로 그리면서 가정도 자식도 돌보지 않고 오직 연구사업에만 전심하는것이 과학자의 생활이고 참된 인생인것처럼 내세웠다. 물론 과학연구사업이 고심어린 탐구의 길인것은 사실이며 자기의 지혜와 열정, 노력을 다 바쳐야 성공할수 있는 길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문제는 과학자들을 형상하면서 인간적인 모든것을 다 바치는, 희생적인 생활에 매여 달리는것이다. 이것은 과학자형상에서의 편향이고 도식이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에 대한 그릇된 견해이다.

단편소설 《한 녀교원에 대한 추억》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느 한 마을의 학교 교원으로 온 녀선생이 학생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교육자의 성실한 노력을 다 바치던중 적기의 폭격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고 장렬하게 희생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지적하게 되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에 대한 똑똑한 형상적해명이 없는것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교원이 학생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이런저런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생활들을 보여주다가 아무런 생활적전제도 감정의 축척도 없이 주인공을 희생시키고는 그의 행동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낳은 결과라는 선언적인 주장을 하였다.

작품에서 주인공이 마지막숨을 가다듬으며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학교도 아버지도 선생님도 다시 찾을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원인도 생활과 성격의 웅당한 결과에 의한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새로운 인간문제, 인간성격을 보여 줄수 없는 일반적인 사상을 가지고 거기에 억지로 생활과 성격을 맞추려고 한데서 나타난 결함이라고 본다.

이러한 결함은 이밖에도 하반년도에 발표된 일부 작품들에서도 나타났으며 앞서 지적된 작품들을 통하여 웅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시대가 절실히 해결을 바라는 문제, 선군시대의 높은 요구에 민감하게 해명을 줄수 있는 의의 있는 종자와 새로운 성격을 탐구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내용과 성격을 가진 형상을 내놓는 편향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하반년도에 발표된 단편소설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혁신해 나가면서 새 세기의 높은 요구에 따라 세우야 한다. 하여 라남의 봉화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펼쳐 나선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신심과 용기를 안겨 주고 승리에 대한 락관을 안겨주는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해야 할것이다.

《친구》 부자

리진

옛날 어느 한 고을에 친구사귀기를 매우 즐겨 하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누구든간에 한번 만나 말이나 몇마디 나누고 혹은 술이나 몇잔 마신 사이면 대뜸 《친구》로 사귀자고 청을 드리곤 하였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사귀 《친구》가 이루 다 꼽지 못할 정도로 수없이 많았다.

그의 집에는 늙은 할아버지와 애젊은 처 그리고 네살난 아들이 살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손끝에 흙 한번 묻혀 보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자란 그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처지이지만 제 마음이 내키는대로 마구 놀아 댔다.

술집에서 사귀 구름같이 많은 《친구》들과 몰려 다니며 밤새껏 술을 퍼마시는가 하면 기생집만 찾아 다니며 소일하는것을 쾌락으로 여겼다. 《친구》들을 따라 집을 나가서 하루이를 들어 오지 않는것쯤은 여반장으로 알았고 때로는 며칠씩 어디 가 돌아 치다가 곤드레만드레 녹초가 되어 어정어정 찾아 들어 오곤 하였다.

이따금씩 《절친한 친구》들을 집으로 달고 들어 와서는 밤새껏 동팡대며 법석판을 벌려 놓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집식구들은 그 뒤시중에 정신이 홀 나갈 정도였다.

그럴 때면 늙은 아버지는 제 혼자 사랑방에 꼭 들어 박혀서 애꿎은 담배만 뻑- 뻑- 빨아대며 한숨만 푸- 푸- 내쉴뿐이었다. 그러면서 젊어서 마누라를 잃고 애미 없는 어린 자식에게 계모의 눈치밥을 먹일수 없어 재취도 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금이야 옥이야 떠받들기만 하면서 호미 한번 쥐여주지 않고 건달기만 한것 길러준 자신의 남편 사랑을 타매하였다. 예로부터 귀한 자식 매로 키우겠다고 너무 고이 자식을 키운 자신의 잘못을

탓할뿐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것이다.

사실 아버지는 부모가 남겨 준 얼마 안되는 재산을 개미 톱 쌓듯 조금씩 늘어 밥술이나 먹을만한 밑천을 자식에게 넘겨 주면 부모로서의 구실을 다하는것이라고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헌데 날이 갈수록 아들이 하는 것이 하도 해피망측하여 도를 넘는데다 일껏 모은 가산이 턱없이 탕진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렇다고 여태껏 큰소리 한번 안치던 자식에게 매를 안길수도 없고 하여 답답한 마음을 담배로만 달래고 있었다.

(무슨 방법으로든 자식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가는 패가망신을 당하기가 첨경일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골똥히 생각을 가다듬었다.

어느 날, 그날도 아들의 《친구》들이 욱 몰려 와 질탕치듯 먹고 마시고 떠들다가 밤이 이슬해야서 헤어져 갔다.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을 불러 앉히고 물었다.

《애야! 내 한가지 좀 물어 보자구나.》

《아버님, 무슨 분부이신지...》

《오늘 왔던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저의 막역친구들이옵니다.》

《친구들이라?! 친구가 그렇게도 많단 말이나? 천하에 가장 힘든 일중의 하나가 바로 친구사귀는것이라 하였는데 어떻게 친구가 저렇듯 많을수 있는지 난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그러니 저들이 모두 네가 속마음도 나누고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겠냐?》

《그렇습니다. 저 친구들은 다 저와 뜻이 같고 의리를 중히 여길뿐더러 재물 같은건 하찮게 여겨 네것내것없이 얼마든지 나누

어 쓸수 있으며 제가 죽을 고비에 들었더라도 절대로 저바리지 않을 진실한 벗들입니다.》

《네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나도 더 할 말이 없구나. 네 말이 옳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어디 기회를 보아 내가 한번 시험해보도록 하자.》

아버지는 그날은 그쯤하고 아들을 돌려 보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기르던 중돼지 한마리를 잡더니 말쑥하게 튀를 하여 통채로 찌내는것이였다.

영문을 몰라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잡아 금시라도 먹을수 있게 다 손질해 놓았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건 너의 친구들을 좀 시험해 보자는것이 다.

이제 너는 이 삶은 돼지를 지게에 지고 네가 가장 믿는 친구들한테 찾아 가서 우연히 싸움을 하다 사람 하나를 다 죽게 만들었는데 앞일을 의논하려 믿고 찾아 왔다고 하여라. 그 순간에 너를 용납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삶은 돼지를 안주로 하여 이 아버지도 마음껏 술을 마실것이며 앞으로 네가 친구 사귀는것을 시비하지 않겠다. 어떠냐? 어서 내 말대로 하거라.

자, 그럼 앞서거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덩덤히 서 있다가 통돼지를 멍석에 말아 지게에 얹어 지고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났다. 때는 새벽을 알리는 파루소리가 금방 울린 뒤였다.

그들은 아직도 캄캄한 골목길을 오불꼬불 돌고 돌아 아들의 제일 가까운 《친구》네 집부터 찾았다. 문앞에 이르러 주인을 부르자 조금후에 방안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등잔불이 켜졌다. 잠에 취한 《친구》가 푸시시한 물골로 문을 열

고 내다보다가 얼른 밖으로 나왔다.

《아니, 자네 이 새벽에 웬일인가? 현대 등에 진건 뭐가?》

《사실은 어제밤에 객주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리진사택 하인녀석이 하도 갈잡게 놀기에 몇대 채박았는데 그만 인사불성이 되었군 그래. 가만 두면 혹 죽을지도 모르는지라 무턱대고 명석에 말아 지고 자네를 찾아 왔네. 자네 부친이 의술도 좀 알기에 메고 왔네만 살것 같지 못하다면 어떻게 자네의 도움을 좀 받으려 하니 우선 이것을 집안에 들여다 놓고 자세한것은 후에 의논하세.》

말을 다 들은 《친구》는 낮색이 변하면서 사위를 두릿거리며 불안한 태도를 감추지 못하였다.

《여기로 오는것을 누가 본 사람은 없겠지? 허, 그 참! 형편이 딱하긴 한데... 부친께 말씀드린다는것도 그렇고... 하여튼 내 안에 들어가 의논해 보고 나오겠네.》

그 《친구》는 시각을 다루는 일이라는것을 전혀 모르는듯 집안에 들어 가 한동안이 지나도록 전혀 응대가 없었다. 그래서 재차 문을 두드리며 방문을 잡아당겼더니 문은 이미 안으로 걸려있었고 조금후엔 가물거리던 등잔불마저 꺼져 버렸다. 위험한 일에 발을 잠그고 싶지 않다는 심사가 확연했다. 겁쟁이 《친구》는 이런 때엔 모르쇠를 부리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이 <친구>는 안되겠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친구를 찾아 가보자.》

아버지는 쓰거운듯 아들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형편은 전과 다름 없었다. 두번째 《친구》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급시 포도청 라줄이 룽모방망이를 들고 뛰여 오는듯 부들부들 떨며 말도 제대로 번지지 못했다.

《그- 그럼 자네 등에 진것이 죽어 가는 사람이란 말이지. 어- 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자네가 나를 믿고 찾아 온건 고맙긴 하네만 이런 일엔 통 속맥

이다 보니... 자네 다른 곳에 가보지 않으려나? 실상은 오늘이 돌아 가신 할아버지 제사날이 돼서 당금이라도 친척들이 들이닥칠것 같아 그러네. 자네 내 마음을 잘 알지 않나? 마음 같아서는 백번도 더 돕고 싶네만 형편이 그러하니 양해해 주게.》

그 《친구》는 너무 바빠 주어 섬기다 나니 아직 생존해 있는 할아버지를 제사까지 지낸다고 횡설수설하였다. 구구한 변명 끝에 그 《친구》는 잘 가라는 인사말 한마디없이 황황히 집안으로 사라졌다.

평시에 가장 믿는다고 생각했던 두 《친구》에게서 쓰디쓴 냉대를 받은 아들은 낮이 나간듯 망연자실하여 서 있을뿐이었다.

《그쯤하면 죽하고도 남지 않았느냐? 그래 아직도 더 가볼데가 있느냐?》

은근한 질책이 담긴 아버지의 엄엄한 말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아들은 사정하듯 말했다.

《아버님! 딱 한군데만 더 가보십시오. 아마 그 친구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어서 앞서 걸어라.》

이윽고 세번째 친구네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망신을 당했다. 여사여사해서 찾아 왔다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평소에는 뽕발이 바다로 변해도 친구에 대한 자기의 의리는 결코 변할수 없다고 곧잘 흰소리를 치던 《친구》는 대뜸 성을 왈각 내며 냅다 욕설을 퍼부었다.

《아니, 자네 제 정신인가? 한차 날이 밝겠는데 산 송장을 내 집에 끌고 오면 어찌자는건가? 다 죽게 된걸 살리자면 약차한돈이 들것은 말할것도 없고 혹 죽기라도 하면 포도군사의 기찰을 면할것 같은가 말일세. 이거야 제가 살기 싫으면 그만 둘것이지 애꿎은 나까지 모가지 없는 귀신을 만들자는건가? 응! 난 자네 덕에 집안 망하고 싶지는 않네. 잔말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원 살다살다 별꼴 다보겠군.》

문이 쾅 닫기는 소리에 외톨 놀라 바라보니 어느새 그 알량한 《친구》는 집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생각에 얼굴이 수수떡이 된 아들을 몰끄러미 바라보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다.

《됐다. 진정해라! 평소엔 살도 베줄것처럼 가까이 굴던 사람들이 정작 급할 때에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았지. 이따위것들이 무슨 친구란 말이야? 자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가던 길에 한군데 들려 볼데가 있다. 내 소시적에 사귄 친구가 이 근방 어디서 살고 있는데 만나본지가 10년이 넘었구나. 예까지 왔다가 어떻게 사는지 들려 보지 않으면 친구지간 의리가 아니지. 들렀다 가기로 하자!》

어느덧 새벽하늘이 푸름푸름 밝아 오고 있었다.

그들은 부지런히 걸음을 다그쳐 산밑에 오בות하게 들어 앉은 한 마을에 이르렀다. 아버지는 어느 한 집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주인을 찾았다.

《게 누구요?》

옷방문이 열리며 주인이 내다 보았다. 주인은 한순간 제 눈을 의심하듯 두눈만 슴벅거리더니 별안간 환성을 지르며 맨발로 뛰여 나와 얼싸안으며 반가와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손을 잡아 끄는 친구에게 딱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뱉다.

《먼저 내 말을 좀 듣고 들어가든가 말든가 걱정하세. 사실은 우리 아들이 씹을 하다가 사람하나를 거의 죽게 만들었네구려. 동네에서는 이목을 꺼려 무작정 들춰 지고 나왔네만 어디 갈데가 있더라구. 그래서 자네를 찾아왔으니 도와 주셨다면 들어 가는거고 거절하면 다른 곳에 가볼수밖에 없네.》

《원 사람도!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섭섭하네그러. 사생동고를 맹약한 친구지간에 어려울 때 모르는척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람이겠나. 우선 병자를 방안에 들여다 놓고 앞일을 의논하세. 완치시키면 좋은거고 혹 죽는다 해도

내가 책임지지 않으리. 어서 빨리 들어 가세.》

그 사람은 무작정 등을 떠밀어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 갔다.

《어서 내려 놓게. 병자상태부터 보자구.》

쿵- 하고 멍석에 만 통돼지를 방바닥에 내려 놓자 그 친구는 제잡담 멍석을 풀어 헤쳤다.

《영, 이게 뭐야?》

《하하하...》

놀라서 두눈이 둥그레진 친구와 호탕하게 웃어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들도 시무룩이 웃음을 지었다.

《정말 미안하이. 진실한 벼를 속여서...》

아버지는 그제야 새벽결음을 하게 된 자초지종을 친구에게 들려 주었다.

《원 사람두! 그렇게 놀래우는 법이 어디 있나? 예로부터 부모 팔아 친구 산다고 아직 나를 진짜 친구로 여기지 않는거나 아닌가?》

《미안하이! 미안해! 내 그저 아들녀석 가짜 친구 잘 사귀는 버릇을 좀 떼주려 했을뿐이네. 자, 어서 술상이나 차리게. 안주는 여기에 있는거고 술이나 뒤말 있으면 되겠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디 한번 폭 취해 보세나.》

두 친구는 통돼지를 얹어 놓고 고기를 저며 가며 마음껏 술을 마셨는데 그간 쌓였던 회포와 정회가 하도 많은지라 그것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줄 몰랐다.

저녁녘이 되어서야 아버지는 거나해 저서 술자리를 파했다.

두 친구는 서로 작별하며 떨어지기를 사뭇 아쉬워 했다.

《이제 헤어지면 또 쉬이 만날 것 같지 않은데 부디 몸조심하게.》

《자꾸 만나야만 맛이겠나. 서로 떨어 저 있더라도 마음만 변치 않고 두 마음이 항상 하나로 살면 그만이지.》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 왔다.

아들은 아버지와 그의 친구사이의 진실하고 의리 깊은 우정관계를 보고 자신을 깊이 돌이켜 보았다. 그후 아들은 가짜친구들과 모두 결별하고 다시는 함부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으며 착실한 살림꾼이 되었다.

고향의 밤에 내 읊는 첫시를

고남철

고향의 밤에 내 읊는 첫시를

선생님은 첫 독자로 들어 주십니다

나의 학창시절이 흘러 간 작은 책상앞에서
언제나 웃음만을 머금고 서 계시던 중학시절
못 잊을 스승이시여

흘어 가는 시절우에 생생히 살아옵니다
후리한 키에 사내답게 잘 났던 젊은 날의 그
모습이
어느덧 이마전에 여울쳐 간 주름살에
저에게 새책을 안겨주시러 오십리길
찬 비를 맞으며 읊에 다녀 온 일요일이 있습니다

어느 해 농촌지원 가을날
낮가락은 눈두렁에 걸쳐 놓고
입술이 아궁처럼 까맣게 콩청대를 해먹는 날
우릴 보시며 준절히 타이르던 그 목소리
희끗한 귀밑머리 오리마다 울려 옵니다

내 시를 들으려 창가에 별이 돋습니다
고향별의 억만익삭이 생각에 잠겨 고개 숙입니다
도란도란 속삭이던 시내물도 귀 기울입니다
정에 젖어 사랑에 젖어
시로 엮어 저 선생님께 드려 지는
아름다운 고향의 밤이여

아직은 널리 알려 진 시를 낸적 없고
생활의 먼먼 길을 앞에 둔 이 젊은 시인을 보시며
정녕 기쁘시여 눈물 짓는 선생님모습은
글짓기경연에서 1등하고 돌아 온 저를
공중에 추켜 올리던 그 모습
내 심장에 한생토록 영원한 모습입니다

선체로 타버리는 초불처럼
향촌의 작은 교단에 한생 서 계시는 선생님
저는 오늘도 스승의 어깨우에 받들려 갑니다
천만의 참된 스승들이 인민의 숲을 이룬 이 땅우에
우리 청춘은 억세고 아름답거니

이런 스승의 어깨우에 받들려 내 읊는 시가
어찌 이 세상 끝까지 울려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민의 어깨우에서 부르는 우리 생활의 노래가
어찌 원쑤의 심장을 찢는 푸른 창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의 밤에 내 읊는 첫시를
선생님은 첫 독자로 들어 주십니다
이 마음 다해 스승앞에 첫시를 드렸듯이
내 한생
인민앞에 진정만을 읊으렵니다
조국앞에 심장만을 바치렵니다

연필화

내 어릴적 손에 연필을 쥐고
많이도 그렸다
꽃이며 새
그리고 동무들과
선생님의 부드러운 그 눈매도

창공을 날으려는 어린 새마냥
가슴속에 퍼덕이던 희망의 푸른 싹이여!
그렇게 자꾸 그리며 그려 보며
썩어 지면 다시 깎고
닳으면 다시 갈던
그 빨간 연필-

오, 그래서 작아 저도
그만큼 내 희망의 키를 자래워 준 연필이여
그날의 선생님 수고를 잊을수 없듯
그날에 그린 그림들을 내 어찌 잊으랴

그 누가 연필로 그린 그림 지워 진다 했던가

네 총 잡은 병사시절에도
탐구의 밤을 새던 대학의 창가에서도
나의 붉은 화첩속에 쉬임없이 그리여 지던
못 잊을 그 연필화!

아, 진정 그 연필화들이 있어
나의 풍경화 《고향의 달밤》도 있었고
우리 장군님 기뻐 하신 나의 처녀작이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늘도 지워 지지 않는것 아니더냐

참된 미술가에겐
붓과 연필이 따로 없고
훌륭한 명작뒤엔 그 작은 연필화들이 있거니
아마 그래서
백발이 된 지금도 나는
아침이면 손자녀석들처럼 연필을 쥐는가봐!
인민학교 손녀애처럼 연필을 못 놓는가봐!

붓과 인생

붓은
세상리치를 후세에 넘겨 주고
자기를 위해 따로 남겨 두는것 없더라
날카로운 붓초리가 다 닳을 때까지
쉬임없이 달음쳐 온
나의 붓아

세워 보면
초불처럼 깡그리 탈듯
내 붓을 놓고 잠시 붓앞에서
인생에 대한 생각 절로 깊어 지나니

붓이여
내 처음 너를 잡은 그 시각부터
나와 함께 얼마나 많은 화폭우에
자기를 불 태웠던가
너는 붓물에 젖고...
나는 땀에 젖고...

진정 붓은
우리 수령님 빈농민의 아들에게 쥐여 주신
내 희망의 첫 등불이였다
우리 장군님 이 가슴에 뜨겁게 지펴 주신
내 운명의 횃불이였다

내 이제
천만시련이 가로 놓이고
《고난의 행군》길을 열백번 고쳐 걸어도
오로지 장군님 따라
사회주의 저 붉은 기폭아래서
혁명의 횃불봉인양 끝까지 들고 갈
나의 붓!

그 길우에
이 붓이 닳으면
내 머리칼을 잘라 붓을 삼으리

만일 붓물이 다 마르면
내 피를 찍어 붓을 적시리

오,
붓을 세워 둔채로
내 잠에 들고
잠을 깨면
나와 함께 다시 먼 길을 달리는
붓과 나의 인생

그렇다
내 처음 연필로 제 이름을 썼듯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내 조국의 모습을 새겨 갈
아, 나의 붓은
조국과 혁명앞에 그렇듯 사심이 없는것이다
오늘껏 내 인생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 있는
아, 붓은 나자신이다!

내 삶의 푸르른 하늘에

김일철

내 삶의 푸르른 하늘에
해와 달 별들을 모두 떠올려 주고
그 억만가닥 빛발로
오리오리 따스한 요람을 엮어
나를 품 안아 키워 준 조국이어
내 언제 다 알았던가
그대 부어 준 젖줄기의 고마움을

어른으로 다 자란 오늘도
추억의 봄비는 내 마음 적시누나
교정에 비 내리던 그 저녁
창가의 글소리를 들으며
백양나무아래서 우산을 펴들고
어린 나를 기다리던 어머니...
그 모습은 조국이어 그대 아니었던가

눈 내리는 개밭지에 배낭 풀고
언 땅을 까내던 돌격대시절
그대는 희열 넘친 밤하늘에
열정의 우등불을 활활 지펴 주었고
적기가 노래높이 돌파구를 열어 가며
붉은기 휘날린 이 장알 박힌 손에
그대는 청춘의 꽃다발을 안겨 주었더라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도
그대는 뜨거운 심장으로
천만의 가슴들을 덥혀 주었고
흠뿌리를 깨물면서도

삶의 터전만은 억척같이 지켜 낸 가슴들에
그대는 빛나는 훈장을 달아 주고
성스러운 우리 당 대오속에 세워 주었나니

아, 내 삶도 미래도 다 받아 안고
세월의 눈비바람을 헤쳐 온 조국이어
그대모습은 진정
총대바람의 열풍을 휘몰아
가는 곳마다 불락의 성세를 쌓고
격파를 일으키신
장군님의 그 영상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장군님은 조국의 운명임을
내 심장은 제일 먼저 새겨 안았거니
믿어 다오 조국이어
그대 옷자락 더는 비바람에 젖지 않게
내 희망의 꽃을 피워 준
그 따사로운 봄빛이 되리라
누가 그대 풀 한포기라도 다친다면
내 무자비한 불길이 되여 날아 가리라

아, 내 삶의 푸르른 하늘에
해와 달, 별들을 모두 떠올려 주고
제 가슴은 찬 눈비로 다 젖은 조국이어
억만가닥 빛발로 오리오리 엮어 준
그 요람을 내 다시 풀어
포근한 주단을 필필이 짜서
그대의 앞길에 펼쳐 드리고 싶어라